

#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9 vol.334

# 10

유럽 박물관 기행  
로마 보르게세 박물관  
(Museo e Galleria Borghese)

오페라 연출가 이외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종표씨, 그 공연 취소하고 나랑  
리콜레토 합시다

키버스토리  
(재)부산문화회관 오페라  
'리콜레토'

오페라 '리콜레토'



동성 창립 60주년 기념

# DONGSUNG FESTA

영웅이 부르는 신세계







동성 창립 60주년  
SINCE 1959 Dongsung



바리톤 고성현

소프라노 황수미

바이올린 김다미

예술감독 오충근

# 탄생, 성공, 영웅, 신세계로 이어지는 음악 파노라마!

예술과 기업 철학을 통해 인류 행복에 공헌하는  
글로벌기업 동성이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며 세계적 거장들을 초청합니다.

## 2019. 11. 7 (목)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P. de Sarasate

사라사테

### Jisoo Lee

이지수

### Yeon-Joon Kim

김연준

### A. Dvořák

드보르자크

### Carmen Fantasy Op.25

카르멘 환상곡 Op.25

### Arirang Concertante 'Araryyo'

아리랑 콘체르탄테 '아리리요'

### I will live in the Chungsan

청산에 살리라

### Symphony No.9 e minor, Op.95 'From the New World'

교향곡 제9번 마단조 작품43 '신세계로부터' 등

바이올리니스트 스베틀린 루세브  
Violinist Svetlin Roussev

# BUSAN WORLD PHILHARMONIC ORCHESTRA

The Classic 아시아의 창(창) 부산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op.47 / Sibelius Violin Concerto in D minor, op.47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4번 F단조 op.36 / Tchaikovsky Symphony No.4 in F minor, op.36

지휘 성시연  
Conductor Shiyeon Sung

2019. 11. 1 | Fri |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 최 |  KNN

| 후 원 |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KNN 문화재단

| 협 찬 |  KWANG 조광페인트  부산도시가스 SK E&S

| 문 의 |  KNN 051-850-9568 www.knn.co.kr

| 입장권 | 전석 무료(초대권 소지자, 인터넷 신청자에 한해 입장)

| 초대권 신청 |  KNN 홈페이지 www.knn.co.kr

지휘 성시연  
Conductor Shiyeon Sung

바이올리니스트 스베틀린 루세브  
Violinist Svetlin Roussev

연주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Busan World Philharmonic Orchestra

\*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공연은 부산광역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시민을 위한 초대권은 KNN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수준 어쿠스틱음향 연주홀 녹음홀 글로벌아트홀

글로벌

# 실내악 · 합창

## 전국경연대회


GloVil National Ensemble & Choir Competition

대한민국 실내악 · 합창 제전

2019. 11. 16. (토)

장소	글로벌아트홀
부문	실내악 · 합창
참가인원	실내악 3~20명, 합창 8~40명
대상	유 / 초 / 중 / 고 / 대 / 일반
접수처	글로벌아트홀 홈페이지(www.glovil.org) / 콘테스트(www.contest.co.kr)
접수기간	2019년 10월 9일 ~ 11월 11일까지
과제곡	전 부문 자유곡 1곡 또는 2곡으로 총 10분 이내
참가비	팀당 25만원 국민은행 99776600054 글로벌아트홀 (참가팀명 이름으로 입금하고 참가비는 접수 후 반환되지 않습니다.)
시상	1등상 · 2등상 · 3등상 · 장려상
심사기준	부문별 절대평가로 채점
수상자 특전	부문별 학년별 1등상을 수상한 8팀을 선정하여 글로벌 실내악·합창 페스티벌 음악회 참가 자격 부여 출연팀당 고화질 동영상 원본 제공
시상식 및 음악회	2019년 11월 23일(토)

주최 |  GloVil Art Hall 주관 | 글로벌예술원 후원 | 글로벌콘서바토리 협찬 |  JOSEPH X STACEY 

 GloVil Art Hall 글로벌아트홀 47849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 (온천3동)  
Tel. 051-505-5995 / Fax. 051-505-5935 / 홈페이지 www.glovil.org / 이메일 glovil@hanmail.net

 glovilarthall



제15회

# 부산국제합창제

2019.10.15~19 영화의전당, 소향씨어터

Choral Busean  
Festival &  
Competition

# 개막공연 및 갈라콘서트

2019년 10월 16일 ~ 18일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라야톤 (RAJATON, 핀란드)**  
최고의 양성률을 듣고,  
최고의 비포먼스를 보라

**DAY 1** 개막공연/Opening Concert  
2019년 10월 16일(수) 오후 8시



**리가오 국립고등학교 보이스코랄**  
(LNHS Voice Chorale, 필리핀)  
2016년 부산국제합창제  
그랑프리수상팀

**DAY 2** 갈라콘서트 1./Gala Concert 1.  
2019년 10월 17일(목) 오후 8시



**민속합창의 밤**  
민속무용 참가팀들의 가장 화려한 무대

**DAY 3** 갈라콘서트 2./Gala Concert 2.  
2019년 10월 18일(금) 오후 8시





#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0** 2019 October  
월간문화예술정보지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2019년 10월호 통권 334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용관  
**편집인** 황해순  
**편집위원** 동길산(위원장), 권은영, 이상현,  
 정두환, 정봉석, 채영희, 홍동식  
**홍보마케팅팀장** 서정환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9년 9월 25일  
**디자인·제작** 디자인글꼴

- 08 COLUMN**  
숨표와 심표
- 10 SCHEDULE**  
10월 공연캘린더
- 12 COVER STORY**  
(재)부산문화회관이 자체 제작한 첫 오페라 ‘리골레토’
- 18 POEM**  
시가 있는 산골 이야기 ③ 달빛
- 20 BACKSTAGE OPERA**  
종표씨, 그 공연 취소하고 나랑 리골레토 합시다
- 22 MUSEUM OF EUROPE**  
로마 보르게세 박물관
- 26 TRAVEL WITH YOU**  
찬란한 대가야문화가 숨쉬는 역사의 고장 고령
- 32 PREVIEW**
- 35 ISSUE**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의 명작 연극 ‘NT 라이브’ 2019 부산국제합창제 제57회 부산예술제
- 42 REVIEW**
- 48 PROGRAM GUIDE**  
프로그램 가이드
- 63 NEW BOOK**  
새로 나온 책
- 64 COLUMN**  
극장장의 손 편지 ⑧
- 66 BSCC NEWS**  
(재)부산문화회관 소식



## 숨표와 심표

문화유목민, 음악평론가 정두환

“덥다 덥다 하더니만 그래도 시간은 가는 군.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게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면...” 음악회 가는 길 조금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 부산문화회관 주변을 산책하는 길에 어르신 여럿이 앉아서 장기를 두시며 나누시던 이야기다. 그래, 자연은 어김없이 오늘도 흘러간다.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다.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묵묵히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주하게 누군가와 끊임없이 교감하

고 교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다양한 삶의 흔적들을 남기기 위해 서로에게 위로하며 때론 상처도 주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철저히 자신의 삶을 위해 지키는 것이 있다. 생존을 위한 본능이다. 이는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며 그 어떠한 지시도 용납하지 않는다. 음악에도 그런 것이 있다. 숨표다. 악보 위에 표시되어 있는 숨표가 있는가 하면 표시되어 있지 않는 악보도 있다. 이유가 어떠한지 숨표는 연주자 스스로가 자의





적 해석에 의해서 처리한다. 숨을 쉬지 않고 연주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맥박과 호흡에 의존하여 가장 자연스럽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 연주자들은 이 숨표를 해결한다. 이 해결 방법을 보면서 감상자들은 연주자들의 예술성과 기교를 감상한다.

같이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곡가가 꼭 지켜야 한다고 표시한 부분이 있다. 숨표다. 이는 악곡을 이루는 기본 마디에 박자로 들어가는 것으로 지키지 않으면 틀린 것이 된다. 이 숨표는 반듯이 지켜야 하고, 잘 지키면서도 자신의 음악성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연주자에게 남는다. 결국, 숨표는 연주자의 삶을 음악에 투영하기 위해 작곡가의 일차적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주자는 작곡가가 왜 숨표를 두었는지를 알아야 하며, 이는 악보의 철저한 분석을 통한 작곡가의 삶과 생활의 흐름을 이해해야 가능한 것이다. 그냥 주어진 박자 속에서 이해하고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베토벤 교향곡 제5번 단조의 시작은 숨표로 시작한다. 굳이 숨표로 시작하지 않아도 연주 전 긴장된 연주자들의 호흡을 맞추기 충분하다. 여기에 숨표까지 만들어 긴장에 긴장을 더하게 할 수도 있으며, 연주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해석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어 연주자마다 다르게 해석할 틈이 생길 수도 있다. 이유가 어찌되었던 숨표로

인하여 생기는 다양한 해석은 연주자나 감상자들에게 새로운 연주와 흥미를 전한다. 결국 숨표는 숨표와 달리 새로운 해석을 위한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다.

가을이 되면 많은 공연장들이 하루도 빈틈없이 움직인다. 오페라를 비롯하여 오케스트라, 합창, 실내악, 독주 및 독창 등 부산에 흩어져 있는 대형공연장을 비롯하여 우리 삶 주변의 복합문화공간까지 씬 없이 분주하다. 많은 곳에서 열리는 다양한 예술행위, 이곳을 찾는 것은 숨표가 아닌 숨표다.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살기 위하여 나만의 숨표를 찾는 힘도 필요하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다. 무엇 때문에 바쁘지도 모르고 그냥 바쁜 경우가 많다. 남들이 다 바쁘게 움직이는데 그냥 여유로운 것이 이상하고 괜히 불안해 또다시 바쁜 척이라도 한다. 정말 바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말이다. 그냥 바쁘게 보이는 것이 잘 살아가는 방법이라면 뭐라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왜 이렇게 바쁘게 살지?” 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숨표를 위한 순간이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나를 공부하는 시간, 나를 찾아서 한 걸음 내딛는 시간이다.

오늘도 각 공연장은 예술가 각자가 해석한 예술 행위들을 발표하고 있다. 삶의 다양성만큼이나 많은 분야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각자 숨을 허덕이며 살다가도 예술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나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도 힘들게 살아가니 조금은 힘내라는 위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라도 오늘은 시간을

내어 공연장을 찾아보자. 꼭 비싼 값을 치르는 공연장이 아니더라도 예술가 개개인의 삶과 치열한 예술행위를 이야기하는 작은 공연장들도 주변엔 많다. 그들과 함께 내 삶 속에 예술을 통한 삶의 이야기를 공감해보자.

숨표와 침표는 각자의 몫이지만, 필자는 살아가는 순간순간 숨표의 중요성 만큼 침표의 중요성을 알아간다. 우리의 삶에 의식주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침표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결국 배부른 돼지가 되지 않겠는가. 배고픈 소크라테스는 아니어도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다양한 이야기에 공감하는 공감능력을 찾기 위해서라도 이 가을 공연장으로 발길을 보내면 어떨까.

새벽빛 와 닿은 숨결이  
밤이슬처럼 내 마음에 살며시  
자리 잡기 위해...



# 10

## 2019 OCTOBER

###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 부산문화회관

**대** 대극장 **중** 중극장 **첼** 챔버홀  
**아** 야외광장 **사** 사랑채극장

##### 부산시민회관

**대** 대극장 **소** 소극장 **아** 야외광장  
**전** 전시장



#####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http://www.bscc.or.kr)를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SUN	MON	TUE
<p><b>전</b> 시 실</p> <p><b>부산문화회관</b> 제15회 부산국제차어올림문화제 10월 4일(금)-10월 6일(일) (사)부산차문화진흥원(809-1551) 2019 부산서예협회 한·중 서화 친선교류전 10월 8일(화)-10월 15일(화) 사무국장 한현숙(010-4507-3657) 2019 제57회 부산예술제 '꽃예술전' 10월 18일(금)-10월 20일(일) (사)부산꽃예술작가협회(612-2604)</p>	<p>제13회 대한민국 한서미술대전 전국공모전 10월 22일(화)-10월 24일(목) (사)한서미술협회(808-2322~3) 제39회 부산미술제 10월 28일(월)-11월 2일(토) (사)부산미술협회(645-3900)</p>	<p><b>1</b></p> <p><b>2019 부산 오페라 WEEK_아지무스오페라단</b> 오페라 갈라콘서트 '사랑의 묘약' 19:30 <b>중</b> 5만원·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해설과 함께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서현의 '사랑이야기' 19:30 <b>첼</b> 전석 2만원/지클레프(02-515-5123)</p>
<p><b>6</b></p> <p><b>2019 부산 오페라 WEEK_온누리오페라단</b> 오페라 '살로메' 18:00 <b>대</b> 10만원·7만원·5만원·3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b>(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NT라이브</b> '프랑켄슈타인' 14:00, 18:00 <b>중</b>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b>7</b></p>	<p><b>8</b></p> <p>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제19회 정기연주회 19:30 <b>중</b> 초대/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010-9640-7766)</p> <p>소프라노 임혜정 독창회 '집시를 노래하다' 19:30 <b>첼</b> 전석 2만원/지온컴퍼니(010-9736-3535)</p> <p>뮤지컬 '언제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10:00 <b>소</b> 초대/엠스테이지(010-4121-2356)</p>
<p><b>13</b></p> <p><b>2019 부산 오페라 WEEK</b> (재)부산문화회관 오페라 '리글레토' 18:00 <b>대</b> 10만원·7만원·5만원·3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UKO 제46회 정기연주회 19:30 <b>중</b> 전석 2만원/UKO(988-3087)</p> <p>제10회 2019 부산국제춤마켓 '대한민국 청춘첼린지' 19:30 <b>소</b> 부산국제춤마켓 조직위원회(010-6775-8867)</p>	<p><b>14</b></p> <p>제37회 부산창작관악축제 18:00 <b>대</b> 초대/부산관악협회(010-6505-5689)</p> <p>세계음악 연주회 19:30 <b>중</b> 아미티에성악연구회(010-6647-6676)</p>	<p><b>15</b></p> <p>제37회 부산창작관악축제 18:00 <b>대</b> 초대/부산관악협회(010-6505-5689)</p> <p>뉴프라이م 오케스트라 제34회 정기연주회 19:30 <b>중</b> 초대/뉴프라이م 오케스트라(010-5468-4658)</p>
<p><b>20</b></p> <p>제99회 전국무용예술제 10:00, 13:00 <b>대</b> (사)중앙무용문화연구원(02-866-8880)</p> <p>2019 부산체임버뮤직소사이어티 정기연주회 19:30 <b>중</b> 부산체임버뮤직소사이어티(010-8524-0069)</p> <p>월드패밀리잉글리쉬 카니발 11:00, 15:30 <b>소</b> 초대/월드패밀리잉글리쉬(1661-0952)</p>	<p><b>21</b></p> <p>제32회 부산합창제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18:00 <b>대</b> 무료/부산시립합창단(607-3116)</p> <p>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58회 정기연주회 19:30 <b>중</b> 전석 1만원 부산피아노듀오협회(010-5044-5320)</p>	<p><b>22</b></p> <p>제32회 부산합창제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18:00 <b>대</b> 무료/부산시립합창단(607-3116)</p> <p>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58회 정기연주회 19:30 <b>중</b> 전석 1만원 부산피아노듀오협회(010-5044-5320)</p>
<p><b>27</b></p> <p>그랑발레 정기공연 '4 seasons of Busan' 17:00 <b>중</b> 그랑발레(010-8510-4784)</p> <p>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2' 17:00 <b>첼</b> 초대/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3110)</p>	<p><b>28</b></p> <p>제19회 한마음경로대잔치 10:00 <b>대</b> 부산광역시노인복지협회(502-6661)</p>	<p><b>29</b></p> <p>부산CBS 창립60주년 기념콘서트 19:30 <b>대</b> 부산CBS(636-0050)</p> <p>2019 멜로매니아 정기연주회 19:30 <b>중</b> 초대/멜로매니아(010-3570-3717)</p> <p>2019 민족통일부산광역시대회 및 제 49회 한민족 통일문제제전 시상식 13:00 <b>소</b> 무료/민족통일부산광역시협의회(010-6575-0019)</p>



WED THU FRI SAT

2

◆ (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마티네콘서트 시즌 5 '오페라 이야기 V' 11:00  
 중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3

제26회 동요사랑페스티벌 '꽃씨가 되어' 16:00  
 중 무료/한국동요사랑회(010-3864-9889)  
 가족뮤지컬 '마음에 속 드는 엄마를 원하세요?' 14:00, 16:30  
 소 전석 3만5천원/좋은사람들(070-4045-2302)

4

제15회 부산국제차어올림문화제 15:00  
 중 (사)부산차문화진흥원(809-1551)  
 2019년 부산현대음악앙상을 특별연주회 '6인의 창작실내악의 밤' 19:30  
 중 초대/부산현대음악앙상블(010-4691-4994)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2019 시민드락축제' 12:20  
 아 무료/(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2-5000)

5

◆ 2019 부산 오페라 WEEK\_온누리오페라단 오페라 '살로메' 18:00  
 대 10만원·7만원·5만원·3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19 부산대학교 관악 정기연주회 17:00  
 중 초대/부산대학교(510-1747)  
 심지현 첼로 리사이틀 18:00  
 중 전석 1만원/심지현(010-3863-3678)

9

한국동요작곡가협회 우리동요콘서트 17:00  
 중 한국동요작곡가협회(010-4125-7742)

10

제48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정기연주회 '피아노랩소디\_현대 피아노음악의 밤' 19:30  
 중 초대/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010-6563-6692)  
 서혜리 피아노 독주회 19:30  
 중 초대/윤예술기획(010-9025-2012)

11

◆ 2019 부산 오페라 WEEK\_(재)부산문화회관 오페라 '리골레토' 19:30  
 대 10만원·7만원·5만원·3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제48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정기연주회 '피아노랩소디\_듀오 콘서트' 19:30  
 중 초대/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010-6563-6692)  
 2019 부산국제춤마켓 개막식 19:30  
 소 부산국제춤마켓 조직위원회(010-6775-8867)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2019 시민드락축제' 12:20  
 아 무료/(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2-5000)

12

◆ 2019 부산 오페라 WEEK\_(재)부산문화회관 오페라 '리골레토' 18:00  
 대 10만원·7만원·5만원·3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제3회 용마코러스 정기연주회 18:00  
 중 무료/용마코러스(010-9595-9911)  
 에클라 피아노 트리오 '가을의 낭만' 17:00  
 중 초대/에클라 피아노 트리오(010-8272-5306)  
 수리수리아저씨와 함께하는 매직쇼 11:00, 14:00, 16:00  
 소 전석 3만원/(주)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16

2019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정기연주회 19:30  
 대 초대/부산대학교(510-1747)

17

2019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정기연주회 19:30  
 대 초대/부산대학교(510-1747)

18

2019 제57회 부산예술제 개막식 및 가곡과 아리아의 밤 19:00  
 대 무료/(사)부산음악협회(634-1295)  
 제22회 오륙도 평화음악회 19:30  
 중 무료/부산광역시 남구문화원(010-9287-6350)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2019 시민드락축제' 12:20  
 아 무료/(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2-5000)

19

2019 제57회 부산예술제 '전통음악 교류 한마당' 18:00  
 대 무료/(사)부산국악협회(644-5211)  
 제3회 뮤토 플룻앙상블 정기연주회 17:00  
 중 뮤토플룻앙상블(010-4599-2581)  
 월드패밀리잉글리쉬 카니발 11:00, 15:30  
 소 초대/월드패밀리잉글리쉬(1661-0952)

23

제32회 부산합창제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18:00  
 대 무료/부산시립합창단(607-3116)

24

제32회 부산합창제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18:00  
 대 무료/부산시립합창단(607-3116)  
 2019 제57회 부산예술제 '부산무용제' 19:30  
 중 무료/부산무용협회(632-5116)

25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5회 정기연주회 '부산 신사' 19:30  
 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유럽의 대표 남성현악5중주 '볼로시' 앵글공연 19:30  
 소 5만원·3만원·2만원(만4세이상 관람가)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2019 시민드락축제' 12:20  
 아 무료/(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2-5000)

26

제9회 정승찬 플루트 독주회 17:00  
 중 전석 2만원/아트락(010-5468-4658)  
 동초제 수궁가 초입과 국악 한마당 18:00  
 소 무료/동초제 판소리 연구회(010-5572-4457)

30

오페라 갈라콘서트 '푸치니가 사랑한 여인들' 19:30  
 대 5만원·4만원·3만원/부산문화(1600-1803)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합창단 119사랑 음악회 19:00  
 중 무료/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760-3053)  
 문화가 있는 날 특별콘서트 '20세기 펠즈와 탕고' 19:30  
 중 무료/(주)세실예술기획(02-543-6752)  
 제25회 홀로어르신 어울림 효 한마당 13:00  
 소 무료/(사)부산연예예술인협회 가수분과(644-3028)

31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3회 정기연주회 '공존(共存):자연 그리고 인간' 19:30  
 대 전석 1만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4)  
 제56회 향신회 작곡발표회\_윈손 피아니스트와 함께하는 '소리 너머의 소리' 19:30  
 중 초대/향신회(010-9902-3549)

**부산시민회관**

**전시실**

2019 제57회 부산예술제 '부산사진작가협회 회원전' 10월 18일(금)-10월 21일(월) 1, 2층 전시실 (사)부산사진작가협회(631-4111)  
 불우청소년 희망주기 범용스님 재능기부 자선전시회 10월 1일(화)-10월 8일(화) 1층 전시실 범용달마문화원(010-5270-0981)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전시회-한국화전공 10월 9일(수)-10월 16일(수) 1, 2층 전시실 부산대학교(010-8667-0459)

**경주 남산 마애불 사진전** 10월 22일(화)-10월 24일(목) 1층 전시실 빛누리 사진가회(010-4460-6448)  
**부산 여류 사진가회 제8회 전시회** 10월 22일(화)-10월 26일(토) 2층 전시실 부산 여류 사진가회(010-4460-6448)  
**제39회 부산미술제** 10월 28일(월)-11월 2일(토) 1, 2층 전시실 (사)부산미술협회(645-3900)

커버스토리

2019 부산오페라 WEEK  
(재)부산문화회관이 자체 제작한 첫 오페라  
**극적인 밀도감, 음악적 긴장과 조화!  
결작 오페라 '리골레토'**

장일범 음악평론가, 서울사이버대 성악과 겸임교수



◇ 10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12일-13일 토-일요일  
◇ 오후 6: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VIP석 10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607-6111~3

프랑스왕 프랑수와 1세는 미남에다 대단한 바람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는 이 프랑수와 1세를 주인공으로 한 희곡 'Le Roi s'amuse(환락의 왕)'이라는 작품을 써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작품을 흥미있게 읽었던 주세페 베르디는 오페라화 하기 위해 대본 작가 프란체스코 마리아 피아베에게 리브레토를 부탁했고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탈리아 북부를 통치하고 있었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의 검열관들은 이 작품속에 왕을 시해하려는 신화의 이야기가 대단히 불온하며 정치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이 작품의 상연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작품이 당시에 꼭 필요했으며 베네치아 라 페니체 극장에서 상연하기로 한 베르디는 결국 검열에 통과하기 위해 작품을 수정하게 되는데, 작품의 제목은 'La Maledizione(저주)'로 바꾸고 이야기의 배경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의 만토바로 바뀌었습니다. 이 작품이 저주를 주제로 한 오페라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베르디가 생각해 보니 '저주'가 오페라 이름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결국 여기에 등장하는 광대 이름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프랑스로 '장난치다'는 말의 '리골레르' 동사에서 따온 리골레토를 광대 이름이자 오페라 이름으로 바꾸기로 하고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베르디는 훗날 사람들이 "내가 이 오페라를 경찰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많이 놀랄 것이다"라고 했을 정도로 검열의 입김이 많이 들어간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의 서곡은 매우 어둡고 불길합니다. 이 작품의 분위기를 미리 충분히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마치 이후에 나올 '라 트라비아타'의 급격한 반전처럼 아주 명랑한 분위기의 음악과 퇴폐적인 분위기가 무대에 흐릅니다. 호색한인 만토바 공작이 여자들과 음란한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만토바 공작은 'Qusetta o quella(이 여자에서 저 여자로)'를 부르며 자신의 쾌락을 즐기는 짧은 아리아를 부릅니다. 만토바 공작의 첫 번째 아리아죠. 만토바 공작은 여자라면 정말 가리질 않습니다. 남의 부인이건 딸이건 말이죠. 만토바 공작의 궁정광대인 곱추 리골레토는 평소에 궁정에서 신하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곡을 찌르는 말로 즉, 세치 혀로 다른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 마음에 상처를 주어왔기



지휘 **강석희**연출 **이의주**리콜레토 **고성현**리콜레토 **박정민**리콜레토 **김종표**만토바 **이재욱**만토바 **전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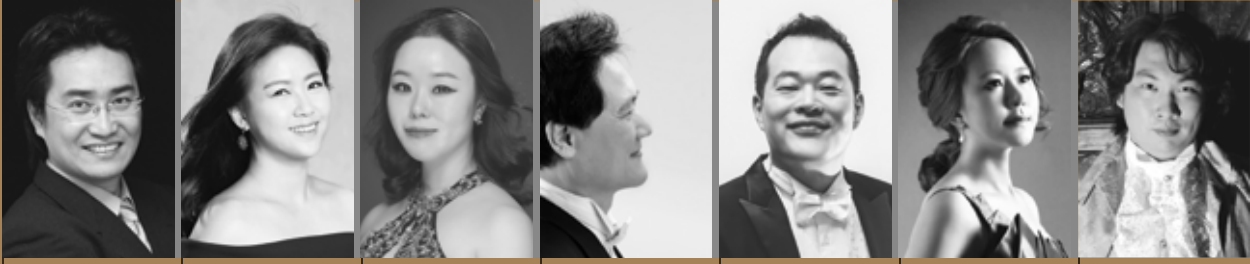
때문이지. 공작이 파티에서 체프라노 백작부인에게 접근하자 체프라노 백작이 와서 화를 냅니다. 이걸 리콜레토가 가로막죠. 파티가 한창일 때 몬테로네 공작도 딸이 공작에게 당한 것이 분해서 찾아옵니다. 역시 리콜레토가 몬테로네를 조소합니다. 공작의 명령으로 몬테로네는 체포당하는데 끌려가면서 리콜레토와 공작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일어붙고 저주를 받은 리콜레토는 충격을 받으면서 궁전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탈리아인들에게 있어서 저주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리콜레토는 좀 전에 저주 받은 일을 계속 생각하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골목에서 자신을 살인정부업자라고 소개하는 프랑스인 스파라푸칠레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내 여동생이 우리 집으로 대상자를 유혹해 내가 칼로 끝낸다”라고 말하면서 연락할 일이 있으면 하라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바리톤인 리콜레토와 베이스인 스파라푸칠레 두 사람이 함께 부르는 곡이라 무척 음침하고 느릿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복선을 깔아 놓는 설정입니다.

리콜레토는 집으로 오면서 자신의 첫 번째 아리아 ‘Pari siamo!’(우리 둘은 똑같아)를 부릅니다. “우리는 둘다 같은 신세야 난 허로 사람을 죽이고 그는 칼로 죽이지!” 이렇게 자신의 운명을 자조하고 탄식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하지만 리콜레토가 집으로 돌아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음악이 리드미컬하고 밝아집니다. 왜냐하면 리콜레토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자 사랑하는 딸 질다가 집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딸의 2중창 ‘Mia figlia, mio padre(딸아...아버지)’입니다. 사실 질다는 알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누구였는지? 아버지의 이름은 뭘지? 뭐하는 사람인

지? 질다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 외에도 리콜레토가 일요일에 성당에만 다녀오게 허락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리콜레토는 “아무것도 알 필요 없다. 난 세상에서 널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널 나의 유일한 가족이다”라고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 노래가 중단됩니다.

리콜레토가 밖에 누가 왔는지 살펴보려 나간 사이 만토바 공작이 하녀 조반나의 도움으로 이 집에 몰래 숨어들어오게 됩니다. 성당에 여자를 찾으러 갔다가 미사 시간에 기도하는 질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집까지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에게 푹 빠져버린 질다는 ‘Amor(사랑)’을 목소리 높여 이야기하게 되는데 마침 이 때 질다의 뒤에 와있던 청년, 사실은 만토바 공작이 ‘Amor’를 따라하게 됩니다. 여자를 유혹하는데 선수인 공작은 정말 질다가 듣고 싶은 말만 합니다. ‘E il sol del l'anima(사랑은 영혼의 태양이자 생명, 사랑의 소리는 우리의 심장 박동’, 이렇게 질다의 귀에 달콤한 말들을 쏟아놓으면서 사랑을 속삭이게 됩니다. 이름을 알고 싶어하는 질다에게 거짓 이름 “팔티에르 말테, 가난한 학생이요”라고 천연덕스럽게 지어낸 만토바 공작은 리콜레토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자 재빠르게 이곳을 빠져나가려고 하며 앞선 카바티나 풍의 느릿한 2중창에 이은 빠른 카발레타 ‘Addio addio speranza l'anima(내 꿈도 희망도 모두 안녕)’을 매우 급박하게 부릅니다. 너무 아쉬워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계속 ‘아디오 아디오!’를 부르는데 질다도 계속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 ‘아디오!’를 따라 부릅니다. 완전히 만토바의 마수에 착한 양이 폭 빠져 들었습니다. 만토바가 얼마나 여자들에게 매력적인 존재인지를 다시 한

## 커버스토리



만토바 김지호

질다 강혜정

질다 박현진

스파라푸칠레 김요한

스파라푸칠레 박성진

막달레나 손혜은

몬테로네 윤오건

번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제 홀로 남은 질다는 팔티에르 말테를 그리워하며 ‘Caro nome(사랑스런 그 이름)’을 부릅니다. 이 곡은 콜로라투라의 기량을 잘 발휘해야 하는 곡으로 질다가 부르는 첫 번째이자 가장 유명한 곡입니다. ‘그리운 그 이름’의 끝부분은 만토바 공작의 신하들로 구성된 합창과 맞물립니다. 왜냐하면 리골레토가 요즘 젊은 여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신하들이 리골레토를 혼내주려 여자를 납치해서 만토바 공작에게 바치는 계획을 세우고 이 집에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체프라노 백작부인을 납치하려 왔다는 신하들의 이야기만 믿고 돕다가 딸이 납치당하는 것도 모르고만 리골레토는 ‘La Maledizione(저주다)’를 외치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2막은 만토바 공작의 아리아중 카바티나 ‘Parmi veder le lagrime(그녀의 눈물이 보일 것 같다)’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랑에 빠진 만토바 공작이 질다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전체 오페라 중에서 유일하게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부하들이 선물로 리골레토의 애인을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질다인 걸로 짐작한 공작은 기쁨에 넘칩니다. 신하들의 합창과 어울려진 ‘Possente amor mi chiama(사랑이 나를 부른다)’를 신나게 소리높여 부르고는 질다가 있는 방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잠시 후 광대옷을 입은 리골레토가 궁정에 나타납니다. 광대답게 웃으려고 “라랄 라랄 라랄”하고 웃지만 이것은 웃음이 아닙니다. 폐부가 썩어들어가는 거짓 웃음일 따름입니다. 리골레토는 신하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궁정 안에 공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리골레토는 ‘Cortigiani! Vil razza dannata!(궁정가신들아!)’를 부르게 됩니다. 지금

까지의 리골레토의 모습에서 볼 수 없는 폭풍같은 화를 내는데 휘몰아치는 관현악도 폭풍을 연상케 하면서 지금 리골레토가 얼마나 화를 참아왔는지를 들려줍니다. 리골레토가 “내 딸 돌려줘!”라고 외치자 그제서야 신하들은 질다가 리골레토의 애인이 아니라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화를 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리골레토는 이제 마지막으 읊소를 합니다. “여러분 제발 내 딸을 찾아줘”, 음악이 느려지면서 리골레토는 눈물로 호소하게 되는데요. 신하들도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리골레토의 시선을 외면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곡은 음악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곡입니다. 벨칸토 오페라에서 아리아는 늘 느린 카바티나와 빠른 카발레타로 구성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베르디는 그것을 깨고 빠르고 격렬한 카발레타를 앞에 그리고 카바티나 풍의 곡을 뒤에 배치해 리골레토의 분노와 슬픔 그리고 마지막 읊소와 절망까지 담아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면서 질다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보고는 뛰어와서 눈물을 흘리며 품에 안기는데요. 아버지와 딸이 가장 마주치기 싫은 비참한 상황에서 만나게 됩니다. 질다는 아버지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몰랐는데 광대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봤고 아버지는 딸이 공작에게 당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질다는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Tutte le feste al tempio(성당에 갈 때마다)”, 성당에서 처음 청년을 만났을 때부터 납치된 것 그리고 지금 벌어진 일까지 모두 이야기합니다. 이때 감옥으로 가는 몬테로네가 공작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딸을 만토바 공작에게 빼앗긴 일을 당한 몬테로네와 같은 입장이 된 리골레토는 ‘Si vendetta(그래, 복수다!)’라면서 공작에 대한 복수

를 다짐하게 됩니다. 질다는 그를 용서해 주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토바 공작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2중창은 대단히 박진감 넘치고 명랑하고 신나는 소프라노와 바리톤의 2중창입니다. 평생 리골레토 역을 수백번 이상 부른 이탈리아 바리톤 레오 누치는 오페라 중에도 이 듀엣 곡을 꼭 두 번씩 부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3막은 만토바의 민초 강가에 있는 스파라푸칠레의 여인숙입니다. 리골레토는 아직도 만토바 공작을 사랑하고 있는 질다에게 그의 바람둥이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기 위해 이곳에 데려와서 창밖에서 그가 작업을 걸고 있는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토바 공작은 이 여인숙 1층 주점에서 단순하면서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유명한 아리아 ‘여자의 마음’을 부릅니다. 자신의 세 번째 아리아인 이 ‘La donna e mobile(여자의 마음은 움직인다)’라는 가사의 이 곡은 베르디가 성공할 것을 예감했기 때문에 리허설 할 때도 부르게 하지 않고 마지막 리허설 할 때 테너에게 이 곡을 쥐서 연습하게 했다는 유명한 일화를 갖고 있는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악보를 들고 출판되거나 발표하기 전에 사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작품이 발표되기 전에 이 곡이 퍼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오히려 이런 대표곡을 활용해서 프로모션에 이용할 텐데 말이죠. 하여튼 이 곡은 베르디의 생각대로 초연에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슬픈 결론의 비극이 끝난 뒤에도 청중들은 이 곡을 부르면서 또는 휘파람을 부르면서 극장을 빠져나가 베네치아의 거리 속으로 사라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곡은 오페라 역사상 가장 유명한 아리아 중 한 곡이 되었습니다.

만토바 공작은 막달레나가 다시 들어오자 노련하게 유혹을 합니다. ‘Bella figlia dell’amore(아름다운 사랑의 아가씨여)’는 남성 고음인 공작과 여성 저음인 막달레나가 밀고당기기를 하며 부르고 이 장면을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남성 저음인 리골레토와 여성 고음인 질다가 함께 불러 음역이 교차하는 아주 멋진 4중창이 됩니다. 오페라 사상 최고의 4중창이라고 할 수 있는 곡입니다. 자신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막달레나에게 하는 것을 보고 질다는 분노하고 실망합니다. 리골레토는 “저 녀석의 정체를 이제 네가 알았지 넌 먼저 남

장을 하고 베로나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공작은 이제 잠을 청하러 2층방으로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막달레나가 공작에게 완전히 반했습니다. “저 사람은 죽이기에 너무 아까워요, 오빠”라며 스파라푸칠레에게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만일 자정 12시까지 이곳 여인숙에 누군가가 온다면 그를 대신 찢러 죽이고 아니면 공작을 죽이기로 합니다.

바깥은 이제 천둥번개와 바람이 심하게 부는 음산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베로나로 떠나지 않고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질다는 자신이 사랑하는 공작 대신 희생하기로 마음 먹고 시계가 12시를 칠 때 여인숙의 문을 노크하고는 들어가 스파라푸칠레의 칼에 찢립니다. 스파라푸칠레는 질다의 시체를 공작의 것인양 리골레토에게 넘겨주고 나머지 절반의 돈을 받게 되는데 리골레토가 시체를 강에 버리려고 할 때 아침 일찍 일어난 공작은 기분 좋게 ‘여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이 목소리를 듣고 리골레토는 깜짝 놀랍니다. 어제 공작이 불렀던 목소리와 똑같은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리골레토는 불안해하며 포대 자루를 여는데 거기서 질다의 시체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스라치게 놀라며 슬퍼하는 리골레토. 그러나 질다는 아직 숨이 남아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죄송해하며 “그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라고 마지막 노래를 부릅니다. 질다는 하늘나라에 있는 어머니 곁에 가서 불쌍한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하면서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리골레토는 끊어오르는 슬픔에 “아! 이건 저주야!”라고 외치면서 오페라는 막을 내립니다.

결국 리골레토가 계획했던 복수극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슬픈 오페라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결국 복수를 하지 말라, 복수를 하면 더 많은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라는 주제에 집착한 것과 작품의 주인공인 리골레토의 모습은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몇 년 안되어 딸을 잃어야 했던 베르디의 아픈 마음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간 딸을 그리워하는 베르디의 모습이 바로 이 작품 ‘리골레토’ 속에 담겨 있습니다. 금년 브레겐츠 페스티벌에서의 필립 슈틸츨의 버전처럼 재미있게 만들수록 더욱 슬퍼지는 오페라가 바로 ‘리골레토’입니다.



반갑습니다

## 오페라 ‘리골레토’로 부산시민과 만나는 바리톤 고성현, 김종표



리골레토 역  
고성현

저에게 있어  
‘리골레토’는 쉬지 않고  
걸어온 자기 관리의  
산물인 듯 싶습니다. 55

**부산에서 오랜만에 갖는 오페라 무대**— 부산에서 콘서트로만 자주 인사를 드렸지만 오페라 작품으로는 3~4년만에 무대에 오르는 듯 합니다. 이번 공연에 참여하게 돼서 기쁘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늘 환영해주시는 부산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리골레토로 쉬지않고 걸어온 길**— 제가 리골레토로 무대에 선 것은 지난 1994년 국립오페라단과의 무대가 처음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은 2015년 대구국제오페라축제였죠. 리골레토는 바리톤이라면 꼭 하고 싶은 오페라 역이지만 사실 쉽지 않은 역입니다. 아무리 타고난 목소리라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벨칸토의 발성이 자연스러워지도록 노력을 해야 해낼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런만큼 저에게 있어 ‘리골레토’는 쉬지 않고 걸어온 자기 관리의 산물인 듯 싶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거라면 세월이 지나 나이가 들었다는 거지요. 좀 더 ‘아버지’스러워지니 연기하는 것도 편하고, 제 목소리에서 나른 대중들이 리골레토의 심정을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최고의 무대**— 2002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렸던 야외 오페라 ‘나부코’는 제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

(재)부산문화회관이 자체 제작하는 첫 오페라 ‘리골레토’가 10월 11일부터 사흘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베르디의 중기시대를 여는 걸작 오페라인 ‘리골레토’는 한 인간의 처절한 비극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특히 이번 무대를 위해 각 분야 최고의 실력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리골레토’의 화신이라 불리는 한국 최고의 바리톤 고성현 씨, 고향인 부산에서 오페라가수로 첫 데뷔무대를 갖는 바리톤 김종표 씨를 공연에 앞서 서면인터뷰를 통해 만나보았다.

이자 다시 한번 서고 싶은 무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국립극장에서 8회 예정으로 4회째 공연을 하고 있을 때인데, 런던 코벤트 가든에서 플라시도 도밍고와 함께 설 수 있는 오페라 무대 제안이 급하게 왔습니다. 텔아비브에서의 공연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민을 거듭한 끝에 결국 거절을 했는데, 신의를 버리지 않은 음악인으로 소문이 퍼지면서 극장장이 야외에서의 추가 공연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그 야외극장에 15만명이 모였고,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나오는 부분에서 관객 모두가 촛불을 켜는데 정말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니’라는 성경의 구절을 보는 듯한 황홀한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공연이 이스라엘 TV에 생중계 되면서 ‘한국에서 온 모세’라는 찬사와 함께 환호를 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대중의 마음을 노래하는 가수**— 오페라 가수로서 30여년간, 어찌면 클래식에 국한되어 대중들과 만나왔습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우리 시 우리 노래로 우리 세대인 50, 60대들과 마음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저 특별한 욕심은 없고 멀게만 느껴지는 오페라 가수에서 관객들에게 더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노래하는 가수이고 싶었습니다.

**음악을 애인처럼 사랑하기**— 성악 공부는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결코 쉽지 않은 공부입니다. 제가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꾸준히,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애인처럼 사랑할 것, 그러려면 자신의 몸을 아껴야 하고 굉장한 절제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후배 성악가들이 국내에서도 음악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의 마지막 남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리골레토 役  
김중표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된 음악가였다는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이 저의 간절한 꿈입니다. 55

**오페라가수로서는 처음 서는 부산무대—** 고향인 부산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출연진들과 함께 무대에 서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콘서트나 갈라콘서트로 부산 무대에 선 적이 있지만 오페라 가수로서는 처음이라 부산관객들에게는 첫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땀 흘리고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리골레토로 처음 서는 무대—** 리골레토는 사실 바리톤 레파토리 중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주 원숙함을 요구하기에 계속 미뤄 왔던 레파토리로, 이번에도 부산에서 출연 제의가 들어왔을 때 많이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가벼운 오페라 위주로 공연 해오다 올해부터 ‘윌리엄 텔’도 그렇고 무거운 오페라로 조금씩 넓혀 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이른감이 없지 않아 고민하다 이의 주 연출가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확신을 갖게 되어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늘 새로운 오페라를 공부할 때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밤 늦게까지 대본을 분석하며 암기하고, 발성이나 호흡 등을 체크하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리골레토를 잘 연기할 수 있을지 준비하는 기간 내내 고민하고 있으니 아마 이 고민의 흔적들이 작품 속에 잘 녹아 들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들어선 배움의 길—** 대학교를 졸업하고 들어갔던 울산시립 합창단 생활은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합창단에서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을 무대에 올렸는데 그 때 주인공인 다닐로 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때 제 노래 실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에 레슨을 받기 시작했는데 레슨을 받을수록 실력이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아무래도 목표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아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지원했는데 덜컥 합격하고 말았습니다.

**내 인생의 전환이 된 ‘유쾌한 미망인’—** 2013년 예술의전당에서 ‘피가로의 결혼’으로 데뷔한 후 많은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작년 국립오페라단에서 올린 ‘유쾌한 미망인’입니다. 바로 10년 전 저를 공부하게 만들었던 그 작품이죠. 주인공인 다닐로 역은 고음이 많아 무거운 테너들이 하기도 하는 역할인데 과거 합창단 시절에는 고음이 나지 않아 아리아를 이조하여 키를 낮춰 부르고 고음 나오는 부분은 다 내려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작년 무대에서는 악보대로 다 불렀고 연기도 다닐로 그 차체라는 최고의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시 서보고 싶은 무대는 올해 초, 국내 초연한 ‘윌리엄 텔’입니다. 워낙 큰 스케일의 오페라라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석달 넘게 준비하여 한차례 공연했던 작품이라 너무 아쉽습니다.

**뛰어난 연기력으로 주목—** 연기는 좋은 연출선생님들을 많이 만나 자연스럽게 트레이닝된 것도 있고 또 연기에 관심이 많아 영화, 드라마 등을 자주 보거나 카페에 앉아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기도 합니다. 주위에서는 약간 타고 났다고도 하지만 연기도 소리만큼이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삶까지도 본받을 수 있는 스승—** 올해부터 모교인 경성대학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저의 스승인 김영미 선생님으로부터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듯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도 노래뿐만 아니라 삶까지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스승이 되고 싶습니다. 특히 노래에서는 호흡에 대해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호흡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좀더 사랑하라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 더 알고 싶어지니까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음악가—** 올해는 정말 심 없이 달려왔습니다. 남아 있는 공연이 대전에서 열리는 ‘투란도트’, 그리고 ‘세빌리아의 이발사’ 전국투어 공연인데요, 건강하게 잘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외국 무대에 서보고 싶은 꿈이 있긴 하지만 굳이 외국이 아니더라도 어디에 있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된 음악가였다는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이 저의 간절한 꿈입니다.

시인, 본지 편집위원장 **동길산**

✉ dgs1116@hanmail.net

## 눈이 부셔서 마음이 시려서

햇빛은 몸을 태우지만 달빛은 마음을 뺏니다.  
 그런 달빛이 두려워 내 방 가장 깊은 곳에  
 마음을 숨깁니다.  
 달빛이 방에 들어오려면 감나무와 마루를 지나야 합니다.  
 감나무는 몸집은 커도 막무가내로 덤벼드는 달빛을  
 매번 막아내지 못합니다.  
 마루는 삐걱거리려도 한 번도 달빛을 빠뜨리지 못합니다.  
 보름달이 뜬 어젯밤에도 마음이 베였습니다.  
 모가 없이 둥글기만 한 달인데도 달빛은  
 왜 그리 예리하고 섬뜩한지요.  
 야속했습니다.  
 보름 다음 날 뜨는 달이 사실은 더 둥글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이네요.  
 보름달보다 더 둥근 달이 보내는 빛은 더 예리하고  
 더 섬뜩하겠지요.  
 그래서 더 야속하겠지요.  
 어찌겠습니까. 감나무도 치우고 마루판도 걷어내고  
 달빛 아래 무작정 서 보는 수밖에요.  
 아파하지 않으려고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을 달빛에  
 그냥 내맡겨 보는 수밖에요.  
 어찌 알겠습니까. 달빛에 이리 베이고 저리 베어 내 마음,  
 보름달보다 더 둥글게 탕탕해질는지.

동길산 詩 '달빛'



66

달은 은쟁반처럼 환하고  
달빛은 은장도처럼 예리해  
눈부셔 마음 시려 오래 못 봐

99

지금은 자정이 지난 밤. 깊은 밤인데도 산골 마당은 밝다. 보이는 건 죄다 선명하게 보인다. 마당 이쪽 감나무와 저쪽 감나무에 친 빨랫줄도 선명하게 보이고 빨랫줄을 받친 대나무 바지랑 대도 선명하게 보인다.

마당은 한 쪽의 수목화다. 감나무 그림자가 수목화 한가운데 일필휘지 내달고 가장자리는 꽃을 피웠거나 피우는 화초 그림자가 간들거린다. 감나무 그림자와 화초 그림자 사이는 여백. 여백은 달빛이 은은하다.

오늘은 보름 다음 날. 보름날 한껏 부풀었던 달이 오늘은 미어터질 듯하다. 달이 미어터지니 달빛 역시 미어터진다. 은쟁반 같은 달에서 금방이라도 통겨져 사방팔방 튀어나갈 것만 같다.

산골 마당은 옥구슬이 튀는 소리를 낸다. 사방팔방 튀어나간 달빛이 마당에 닿으면서 내는 소

리다. 어떤 날은 달빛이 하도 밝아 잠에서 깨지만 어떤 날은 달빛이 마당에 닿는 소리에 깬다. 보름 다음 날이 그런 날이다.

지금 있는 곳은 마루. 누워서 하늘의 달을 보기도 하고 앉아서 마당의 달빛을 보기도 한다. 달은 은쟁반처럼 환하고 달빛은 은장도처럼 예리하다. 은쟁반 달은 눈이 부셔서 오래 보지 못하고 은장도 달빛은 마음이 시려서 오래 보지 못한다.

사랑도 그랬으면 좋겠다. 늘 봐서 익숙한 사랑이라도 눈이 부셔서 오래 보지 못하고 마음이 시려서 오래 보지 못하는 사랑. 길고 더디고 막막한 밤일수록 더 부시고 더 시린 그런 사랑이 있으면 좋겠다.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 종표씨, 그 공연 취소하고 나랑 리골레토 합시다

이의주 오페라 연출가

### 이의주의 100자 스토리 ‘리골레토’

피에로 리골레토는 수많은 여자들을 자신의 주인 만토바 공작에게 공급하며 살아간다. 리골레토에 원한이 있는 가신들이 그의 딸 질다를 애인이라 생각하고 납치해서 공작에게 바친다. 바로 버림받은 질다의 모습에서 복수를 결심하고 청부살인을 계획하나 이를 알게 된 질다가 대신 킬러의 칼에 숨을 거두고, “저주가 내게 임했네!”하며 리골레토의 절규 속에 막이 내린다.

바리톤 김종표가 타이틀 롤을 맡아 열연한 국립오페라단 ‘윌리엄 텔’



지난 <예술로의 초대> 8월호에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나는 올해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오페라 워크’의 폐막작이자 (재)부산문화회관 자체 제작 오페라인 ‘리골레토’로 다시금 멋진 부산 입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 작품에는 세계 최고 테너인 호세 쿠라를 잠재우며 프랑스 오랑주 야외극장의 히어로가 된, 더 이상 수식이 필요 없는 바리톤 고성현 한양대학교 교수,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성악가들로 여주인공 질다에 소프라노 강혜정 계명대학교 교수, 만토바 역할에 힘찬 고음이 일품인 테너 이재욱, 또 내가 너무나 존경하는 그야말로 사자후의 음성을 보유한 베이스 김요한 명지대학교 교수 등 성악계 어벤져스와 부산을 이끌어가는 성악가 김종표, 김지호, 전병호, 박현진, 손혜은, 박상진, 윤오건, 그리고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에 섬세한 터치와 유려한 오케스트레이션의 마에스트로 강석희 경희대학교 교수, 음악코치 이은정, 합창지휘에 심정보, 안무에 이태상 신라대학교 교수, 그리고 무대 김종석, 의상 한승수, 조명 김민재, 분장 구유진, 영상 김장연 등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야말로 각 분야의 최고의 디자이너와 제작진들로 무대를 만들게 되었다.

이탈리아 국제성악콩쿠르 심사를 포기하고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3년 전에 (재)부산문화회관의 의뢰를 거절한 터라 특히 간곡한 이번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고, 나 자신의 명예와 커리어보다 앞으로 오페라의 메카로 자리잡을 부산에서 이번 기회에 나의 스태프들이 참여하는 계기를 삼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분명 맞았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것은 또한 최고의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나의 다짐이기도 하다.

작품 의뢰를 받으면 제일 먼저 휴대전화의 연락처에서 크리에이티브팀인 디자이너 그룹과 연출부 스태프들의 스케줄부터 확인을 한다. 그것이 첫 업무이다. 여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의도하고 생각한 사람이 어긋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각각에게 전화 연락을 직접 한다. 이번에는 더더욱 그랬던 것이 부산에서 공연을 하기에 오랜시간 부산에 체류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 한다. 지역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지역 출신의 예술인들과 스태프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와 분위기를 만들

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에는 부산 출신 성악가들의 캐스팅에 많은 초점을 두고 한국을 대표하는 베이스 김요한 교수-그도 부산출신-부터 귀국한지 얼마 안 되는 메조소프라노 손혜은까지 골고루 각 역할에 한 사람 한 사람 매칭해보며 출연 여부를 타진해 보았다. 또한 무대 제작소를 비롯해 연출부 스태프들도 부산 팀으로 많이 투입시키기로 했다.

내가 작품을 맡기 전 이미 캐스팅된 고성현, 강혜정 외에 가장 먼저 부산 출신이면서 얼마 전 국립오페라단의 '윌리엄 텔'의 타이틀 롤을 맡아 열연한 바리톤 김종표를 이 작품의 타이틀 롤인 리골레토로 생각했다. 그와의 처음 인연은 2014년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한 로시니 '세빌리아의 이발사'의 피가로 역할이었다. 그는 경성대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전문사과정을 거치고 해외 유학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페라에 데뷔한 국산파 바리톤이다. 엄청나게 많은 활동과 연주로 그야말로 잘 나가는 바리톤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사실 그는 현재 리골레토에 완벽하게 맞는 음색이라기 보다 벨칸토 레퍼토리, 즉 로시니, 도니제티, 벨리니의 작품에 적합한 음색을 가지고 있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바리톤은 베르디 작품을 노래하고 싶어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굳이 격투기를 예를 들어 비교하자면 미들급 또는 라이트 헤비급-벨칸토 레퍼토리-에서 헤비급-베르디 작품-으로 체급을 올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그의 실력과 성실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새로운 레퍼토리의 도전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다.

바리톤 김종표는 최근에 나와 '세빌리아 이발사'로 전국 방방곡곡 투어도 하고 있던 차라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리골레토 하자고'. 완전히 깜짝 놀라며 반신반의했다. 내가 자신 없냐고 하니, 그것보다 너무나 욕심나는 역할이지만 먼저 선약이 있는 작품이 있어서 생각 자체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내가 어디서 하냐고 하니 제주도에서 한단다. 완전 접치지는 않지만 두 작품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음이 분명했다. 음……. 캐스팅 결정에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그쪽과 잘 얘기해서 이 작품에 전념하고 싶다고 하며 그쪽을 잘 정리하라고 완곡하게 표현했다. 사실 다른 작품이 하기도 쉽



오페라 '리골레토'의 의상 디자인

고 조건이 어찌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오래 전부터 김종표가 부산에서 멋지게 금의환향하기를 바랐던 사람으로 이번 기회는 평생 다시 오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것도 상대 리골레토가 바리톤의 지존 고성현 선생님이 아닌가! 아울러 악보를 보고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했다. 일주일 지나고 그로부터 전화가 왔다.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음……. 나는 오페라 공연을 하면서 다른 작품에 출연하기로 한 성악가나 스태프를 남치(?) 해 본적이 없었다. 그건 상도덕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그런데 난 상대편 프로덕션에서도 분명 김종표의 이번 도전을 위해 양보해줄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고 그들에게도 다른 캐스팅 선택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나는 강력하게 다시금 그를 집요하게 설득하였다. 베르디의 초기 작품 '리골레토'는 로시니 '세빌리아의 이발사'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기에 피가로를 할 수 있다면 리골레토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통 이탈리아 업계인들의 생각이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배우는 자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분명 필요하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의 이틀 전인 연습 첫날, 조금은 긴장되면서도 상기된 모습과 굳은 의지의 리골레토로 변하여 돌아온 그를 바라보며 이번 스테이지에서 그가 잘 해낼 것이라는 믿음과 동시에 나는 그를 위해 연출가로서 최선의 노력과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보고자 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번 가을, 리골레토의 처절한 비극을 유니크한 연출로 모던하게 재해석한 무대로 우린 멋지게 부산에 상륙할 것이다.



# MUSEUM OF EUROPE

유럽 박물관 기행



## 이탈리아 바로크를 보려면 꼭 방문해야 되는 곳 로마 보르게세 박물관

글·사진 김성민 부산대학교 외래교수, 유로자전거나라 교육팀장

1 보르게세 공원에 있는 아스클레피우스 신전

2 보르게세 박물관

### 바로크 시대

한 시대를 지배하던 예술의 전반적인 스타일과 사상은 결국 시간이 흐르면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예술이 등장하는데 주로 이전시대의 반동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르네상스 시대, 바로크 시대로 이어지는 흐름을 살펴보자. 르네상스(재생)라는 정신은 신과 종교 중심의 중세 시대 이전 고대 그리스 예술의 재현을 추구했고(중세 시대에 보기 힘들었던) 이성적인 수적 비례감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된다. 특히 르네상스 예술은 이탈리아 피렌체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런 르네상스 시대도 1564년 미켈란젤로의 죽음으로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이후 바로크 시대가 찾아오는데 로마 바티칸교회(이후 바티





1

칸으로 표기)의 개혁과 절대왕정의 힘이 핵심 키워드가 된다. 북유럽의 종교개혁자들이 화려한 성당건물과 미사예식을 비판하자 바티칸은 오히려 크고 화려한 건물들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며 새로 건축하는 성당들을 이전보다 더 화려하고 거대하게 만들었다. 이런 점은 절대 권력을 누리던 절대왕정의 취향과도 맞아떨어져 바로크 시대는 이전 르네상스 시대보다 예술작품들이 훨씬 화려하고 거대하며, 전쟁이 빈번했던 시대답게 보다 격정적이며 이성보다 감성에 호소하는 작품들이 많다.

한편 이탈리아 바로크 시대는 교황의 절대적인 힘이 작용하는 로마가 중심이 되었는데, 이론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대중적이지 못했던 르네상스 후기 양식의 반동으로 그림과 음악은 주제 의식이 뚜렷하며 알기 쉬운 예술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감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작품이어야 했는데, 잔 로렌초 베르니니(Gian Lorenzo Bernini, 1598~1680)는 그런 시대정신에 가장 부합한 인물이었다.



2



3 베르니니 '아폴론과 다프네'

4 보르게세 박물관은 철저한 예약제로 운영되며 입장 전 지하 1층에서 티켓을 받고 개인짐을 맡겨야한다



### 보르게세 가문과 박물관의 설립

보르게세 가문은 원래 14세기 이탈리아 중부지역인 토스카나의 시에나(Siena)에서 활동했던 가문이다. 이후 가문의 수장이었던 마르칸토니오(Marcantonio, 1504~1574)는 시에나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터지자 교황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1541년 전격적으로 로마로 이주하게 된다. 마르칸토니오는 가문을 위해 법을 공부했던 아들 카밀로를 성직자로 만들었고 결국 시간이 흘러 그는 바오로 5세 교황으로 선출되게 된다. 바오로 5세는 나뮴 교회개혁을 위해 의미있는 행동을 펼치지만 역대 교황들처럼 족벌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자신의 친인척들을 힘 있는 자리에 앉히게 되는데 특히 여동생의 아들이었던 조카 시피오네 보르게세(Scipione Borghese 1577~1633)를 자신의 비서이자 바티칸의 추기경으로 만들었고 삼촌의 비호 아래 시피오네 추기경은 특히 로마의 바로크 예술을 이끌게 된다.

예전 이탈리아 그랜드 투어를 왔던 여행자들이 로마에서 만남의 장소로 사용되었던 스페인 계단을 따라 위로 올라가면 지금은 프랑스 아카데미로 사용되는 메디치 가문의 빌라가 있다. 거기서 조금 더 북쪽으로 이동하면 80헥타르의 거대한 공원이 등장하는데, 1605년 시피오네 추기경이 포도밭이었던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했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의 예술작품들을 전시할 건물을 만들었는데 그곳이 오늘 소개하는 보르게세 박물관이다. 2층으로 구성된 이곳은 철저한 예약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미술관 내부관람은 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박물관에 비하면 굉장히 쾌적한 감상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8년 가을부터 보르게세 미술관에서는 한국어 오디오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기존의 이탈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에 이어 6번째이자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의 오디오가이드이다. 최근에 만들어진 오디오가이드답게 딱딱한 해설이 아닌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최근 여행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로마 바로크의 거장 잔 로렌초 베르니니

박물관은 크게 1층 조각관, 2층 회화관으로 나눌 수 있다. 회화관에는 베네치아의 거장 티치아노의 <천상과 세속의 사랑>과 흔히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완성자'로 불리는 라파엘로의 작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박물관 1층에도 시피오네 추기경의 후원을 받았던 바로크의 화가 카라바조의 방이 있다. 특히 카라바조의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진 <다윗과 골리앗, 1610>은 카라바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감상해야 되는 작품이다. 한편 보르게세 박물관 1층은 어린 시절부터 신동으로 불렸으며 건축, 문학, 회화, 조각 등 다재다능함으로 이탈리아 로마 바로크를 이끌었던 잔 로렌초 베르니니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강자가 약자를 제압하는 전쟁의 시기와 절대권능을 가진 권력자가 좋아하는 고대 그리스의 신화. 그리고 보는 즉시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단순함과 그 속에 들어있는 찰나의 역동적인 모습에 이르기까지 베르니니의 작품을 보면 바로크 시대의 모든 특징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베르니니는 평소 연극과 문학에도 탁월한 능력을 보였는데 이런 그의 재능은 단 하나의 순간만을 표현해야 되는 조각에서 압도적인 찬사를 얻게 만들었다. 예를 들면 보르게세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는 <아폴론과 다프네>는 일부러 감상자가 들어오는 방향으로 아폴론의 등이 향하게 전시했다고 한다. 뒤에서 바라보면 그저 평면적인 한 남성의 뒷모습이지만 앞으로 이동하게 되면 아폴론 앞에 서있는 다프네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작품은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으로 통해 감상자들의 반응을 극대화시켰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연극의 연출적인 재능을 잘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베르니니의 조각 작품들은 워낙 명확하게 작품의 주제를 잘 표현하면서 고대의 비레미와 세밀하고 정교한, 당시 기술력까지 보여주고 있어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감상자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원자에게도 이런 연극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박물관 2층에 나란히 전시되고 있는 베르니니의 후원자 시피오네 추기경의 대리석 흉상 2개를 보자. 두 작품은 거의 같은 모습인데 첫 번째 조각을 자세히 보면 이마에 작은 균열이 있다. 베르니니는 작업 초기부터 이런 돌의 심각한 결함을 알았지만 계속 작품을 이어갔고 비밀스럽게 시피오네 추기경의 흉상을 하나 더 만들었다고 한다. 이후 베르니니는 첫 번째 작품을 완성하고 추기경에게 작품은 완성했으나 이마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고 보고하자 추기경은 무척 실망했다고 한다. 그 때 베르니니는 추기경을 위해 새로운 작품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시 드리겠다고 했고 조금 시간이 흐른 후 이미 완성해 두었던 두 번째 흉상을 바쳤다고 한다. 이런 행위를 통해 베르니니는 자신의 후원자를 더 기쁘게 만들면서 또 이미 만들어놓은 두 번째 흉상을 마치 그 짧은 시간에 완성한 것처럼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천재 조각가 베르니니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는 마케팅 효과도 누렸다고 한다.

## 대중을 위한 예술가

얼마 전 꽤 유명한 축제에 공연해설자로 참여했다가 그 지역의 정치인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클래식 공연자에게 아쉬웠던 점은 기존의 클래식 공연이 감상자에게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공연 가운데 친절한 안내도 없으니 일반 다수의 대중들에게 클래식 공연의 문턱이 너무 높았다는 것이다. 물론 소수의 교육받은 사람들을 위해 공연행위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일반사람들도 공연을 통해 클래식 음악을 이해하고 싶는데 그런 의미에서 연주자들이 조금만 눈높이를 낮추고 감상자들에게 다가와주면 참 좋겠다는 이야기였다. 베르니니가 활동했던 바로크 시대에도 여전히 예술의 주요 고객은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었다. 하지만 베르니니의 작품들은 그런 엘리트들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 성당을 방문하는 일반 대중에게도 큰 감동을 선사했었다. 쉽게 이해되는 예술이 결코 격이 떨어지는 예술이 아님을 베르니니를 통해 알게 된다. 가끔 부산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만나면 부산은 문화의 불모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 혹시 오늘 소개하는 베르니니의 이야기가 다수의 유료관객을 그리워하는 예술가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쉽게 이해되는 예술, 모든 계층이 감동받는 예술, 부산에서 이런 공연이 많아지길 바란다.

5 베르니니 '프로세포네의 남치'. 돌을 종이처럼 다루었다는 베르니니는 딱딱한 돌을 말랑말랑한 사람으로 바꾸었다



테마가 있는 여행

## 찬란한 대가야문화가 숨쉬는 역사의 고장 고령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秋分)을  
사흘 앞두고 어느새 가을빛이 완연해진 지난 9월 20일,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1 가야지대 최대 규모의 고분군인 지산동고분군

2·3 가야금을 테마로 한 체험학습마을인  
가얏고마을에서 가진 가야금연주 체험

원래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9월 6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마침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지나가면서 여행일이 9월 20일로 늦춰졌다. 여행 당일인 9월 20일,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진 바람을 맞으며 이른 아침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은 테마여행을 떠나는 회원들로 생기가 넘쳤다.

10월의 테마여행지는 찬란한 가야문화가 숨쉬는 역사의 고장 고령. 어느새 가을맛이를 시작한 산자락을 차창 밖으로 내다보며 함께한 가족, 친구들과 정담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고령이다. 이번 고령여행의 첫 목적지는 대가야의 옛도읍지 고령군에 설립된 대가야 전문 박물관인 ‘대가야박물관’. 지난 1980년 대가야유물전시관으로 개관한 대가야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로 확인된 최대 규모의 대가야시대 순장무







덤인 지산리 44호 무덤을 복원하면서 개관한 대가야왕릉전시관과 이후 2005년, 대가야를 중심으로 고령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전시한 대가야역사관을 개관하면서 지금의 박물관으로 발전했다. 또, 이듬해인 2006년에는 우륵과 가야금을 체계적으로 재조명한 우륵박물관이 개관되기도 했다. 특히 대가야왕릉전시관은 지산리 44호 무덤을 실물크기 그대로 재현해놓으면서 관람객들이 직접 들어가서 무덤의 구조와 축조방식, 순장자들의 구체적인 매장모습 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가야박물관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문화유산해설사 회원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아쉽게도 대가야역사관은 전시시설 개편사업으로 인해 내년 4월초까지 휴관이라 해설사와 함께 대가야왕릉전시관을 둘러봤다. 대가야왕릉전시관은 무덤의 모양처럼 직경 37m, 높이 16m 규모의 초대형 돔형식 구조로 지어져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다. 전시관 내부 중앙에는 발굴 당시의 돌방구조를 그대로 둔 채 발굴 보고서를 토대로 출토 유물과 남아있는 인골 등을 복제해 전시해놓고 있다.

대가야왕릉전시관을 모두 둘러본 후에는 박물관 뒤편 산기

슌에 줄지어선 지산동고분군으로 발길을 옮겼다. 지산리고분군은 구릉의 능선을 따라 조성된 수십기의 대형분과 경사면에 축조된 수백기의 중·소형분으로 구성된 가야지역 최대 규모의 고분군이다. 지산동고분군은 현재 사적 제7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최종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되어 2021년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의 등재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오전 일정의 마지막 장소는 대가야박물관의 마지막 장소인 우륵박물관. 가야금과 그 가야금을 창제한 악성 우륵을 주제로 한 이색 테마박물관인 '우륵박물관'은 가야금과 우륵에 얽힌 역사적인 사실에서부터 가야금의 발전사, 가야금 명인 등 다양한 자료와 유물이 전시되고 있다. 우륵은 가야국 가실왕(嘉實王) 때 악사로 활약한 가야금의 명인이자 시조로, 가실왕의 부름을 받아 대가야(고령)로 옮겨 궁중 악사로서 가야의 음악과 춤, 노래 등을 통합 발전시켰다. 우륵박물관이 있는 이곳 쾌빈리(금곡)에는 우륵이 가실왕의 명을 받아 가야금을 가지고 12곡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우륵의 가야금 연주소리가 '정정하는 웅장한 소리가 났다고 해서 마을 이름도 현재 '정정골'이라 불린다.



테마가 있는 여행



4 지산리 44호 무덤을 실물크기로 재현한 대가야왕릉전시관

5-6 꽃산병 만들기 체험을 하는 정기회원들

7 우륵과 가야금을 테마로 한 우륵박물관



우륵박물관까지 모두 둘러본 회원들은 오후 일정을 위해 우륵박물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가얏고마을로 향했다. 지난 2007년 행정안전부 주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 지정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지금의 이름이 붙여진 ‘가얏고마을’은 대가야 문화를 대표하는 가야금과 악성 우륵의 뜻을 널리 알리고자 우륵 생가를 복원하고 가야금 공방과 체험관, 우륵기념탑, 우륵산책로 등을 조성하면서 가야금을 테마로 한 체험학습마을로 자리매김했다.

우선 주민들이 정성스럽게 직접 준비한 한정식으로 점심 식사를 마친 회원들은 가얏고마을의 대표적인 체험프로그램인 가야금연주 체험을 시작했다.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가야금을 익히고 배우면서 이제는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직접 가야금을 가르칠 정도로 수준급 실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가야금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들을 위해 가야금에는 줄마다 음계와 함께 번호를 적어놓아 음계를 잘 모르더라도 악보에 적힌 번호에 따라 가야금 줄을 뜯으면 연주가 가능하다. 가야금연주자의 친절한 설명에 한 줄 한 줄 천천히 가야금 줄을 뜯자 거짓말처럼 ‘아리랑’ 선율이 흘러나온다. 가야금 연주를 한다는 사실이 마냥 신기해 손 끝이 아프도록 가야금 줄을 뜯다보니 한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회원들은 가야금 연주 체험에 이어 ‘꽃산병’ 만들기에 도전했다. 꽃산병은 이름그대로 떡 위에 꽃을 얹은 것 같이 모양이 예쁜 떡으로, 양금을 넣은 떡을 떡살로 눌러 문양을 찍어준 후 그 위에 색을 들인 절편으로 꽃장식을 해준다. 백련초가루, 단호박가루, 쑥가루 등 천연가루로 예쁘게 색을 낸 떡을 한가운데 두고 저마다 팔을 걷어붙이고 솜씨를 뽐낸다. 점심을 먹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고소한 참기름 냄새에 회원들은 만들면서도 자꾸 입으로 손이 간다.

가얏고마을에서의 체험일정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여느 때보다 여유롭게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 조금씩 물들어가는 가을빛 속에 자연과 문화가 함께했던 고령 여행은 천년을 이어온 가야금의 정정한 소리만큼이나 오랫동안 회원들의 가슴에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11.8 **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합천 해인사 소리길 탐방**

해인사에서 홍류동 계곡 약 6km 길이에 달하는 문화생태탐방 명소 '소리길'과 소리길을 품고 있는 해인사의 역사탐방을 통해 역사와 자연의 소중함을 느껴본다.

**일정**

- 07:3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10:00 해인사 도착, 탐방
- 12:00 중식
- 13:00 소리길 탐방
- 15:00 대장경테마파크 탐방
- 16:00 부산으로 출발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들은 신청엽서를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 팀으로 보내주시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 회원 부담)

**| 신청방법 |** 엽서 · 전화 · 홈페이지  
**|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607-6073, 6076

**10 월 테마여행 당첨자**

**신규 회원**

- |               |                |              |
|---------------|----------------|--------------|
| 김은정(기장군 정관2로) | 이영래(수영구 광안해변로) | 정혜선(남구 분포로)  |
| 신혜주(해운대구 대천로) | 이혜나(동구 중앙대로)   | 천우태(영도구 종리로) |
| 이미혜(동래구 쇠미로)  | 이효숙(수영구 수영로)   |              |
| 이아람(수영구 황령대로) | 정유진(동래구 명륜로)   |              |

**기존 회원**

- |                 |                |               |
|-----------------|----------------|---------------|
| 권호경(동래구 명륜로)    | 박정민(동래구 금강공원로) | 주유미(기장군 기장읍)  |
| 김인숙(연제구 법원북로)   | 송만오(남구 석포로)    | 황광주(수영구 좌수영로) |
| 김현영(연제구 중앙대로)   | 안영수(금정구 중앙대로)  |               |
| 문혜경(부산진구 시민공원로) | 조덕래(해운대구 청사포로) |               |



유네스코가  
'꼭 한번 방문해야 하는  
세계 음악 마켓'이라고 평가한  
워멕스, 2017년 개막작

유럽의 대표 남성현악 5중주

[ 볼로시 ]  
[ VOLOSI\_폴란드 ]

부산 **앵콜** 공연

비올라 Jan Kaczmarzyk 바이올린 Krzysztof Lasoń  
더블베이스 Robert Waszut 첼로 Stanisław Lasoń  
바이올린 Zbigniew Michałek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2019.10.25 (금) 19:30

문의 및 예매 : 051)630-5200 [www.bscc.or.kr](http://www.bscc.or.kr)

입장료 V 50,000 / R 30,000 / S 20,000 (만4세 이상 관람가)



# Invitation

가온아트홀	1600-1601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51
동래문화회관	550-6611
레몬트리소극장	626-0116
무대공감 전용극장	623-0678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309-46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성원아트홀	1899-5435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950-6500
소극장 6번출구	625-2117
소민아트센터	991-2200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움	557-3369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포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소극장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축제 소극장	070-4211-8879
한결아트홀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AN아트홀 서면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KBS부산홀	620-7181
MBC롯데아트홀	760-1177
SM아트홀	1600-1602

to the Arts

프리뷰

Preview

1



**일시**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5회 정기연주회 부산 신사

깊어가는 가을의 서정을 들려줄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5회 정기연주회 ‘부산 신사’가 10월 2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최수열 예술감독이 지휘하고 독일 뒤셀도르프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으로 있는 첼리스트 김두민의 협연으로, 아름다운 선율 속에 낭만성과 서정성이 가득 담긴 엘가의 ‘첼로 협주곡’과 가을의 서정과 잘 어울리는 낭만주의 작곡가 브람스의 ‘교향곡 제1번’을 들려준다.

첫 곡인 엘가의 ‘첼로 협주곡’은 마치 실내악과 같은 단아한 품격을 갖추고 있는 곡으로, 바그너와 같은 화성적 색채감은 물론, 슈만이나 브람스와 같은 내면적 감성을 두루 표현하고 있는 첼로의 명곡이다. 이번 곡의 협연을 맡은 첼리스트 김두민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후 독일로 유학, 하노버 국립음대에서 디플롬과

정을, 쾰른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수료했다. 국내에서 이미 동아일보 콩쿠르, 안익태 첼로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두각을 나타낸 김두민은 아스펜 국제콩쿠르 우승, 파울로 국제첼로콩쿠르 상위입상으로 세계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으며, 특히 베르비에 음악페스티벌에서 Prix Apcav상을, 유럽문화재단에서 차세대 예술가상을 수상하며 예술가적 능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 2000년부터 안네소피무터 재단의 후원을 받아 이듬해인 2011년부터 Mutter’s Virtuosi 앙상블의 멤버로 유럽 및 중국, 대만, 한국에서 성공적인 순회공연을 마친 바 있다.

이어지는 곡은 브람스 ‘교향곡 제1번’으로, 브람스가 초고부터 완성까지 20여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그의 첫 번째 교향곡이다. 당시 독일에는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적 장르인 표제적 교향곡 등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고전주의의 대표적 장르인 교향곡으로 전통의 맥을 이은 것이 브람스였다. 그의 교향곡 제1번은 베토벤의 아홉 개 교향곡으로 시작된 독일 교향곡 전통에 매우 충실한 작품으로, 당대의 유명한 지휘자였던 한스 폰 뷔로는 이 작품을 두고 ‘우리에게 드디어 10번째 교향곡이 생겼다’며 감격했다고 한다. 그만큼 이 작품에서는 베토벤의 인상이 강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브람스적인 장중함과 엄숙함은 물론, 건축적인 형식미와 논리적 전개에 더해진 브람스 특유의 우수에 젖은 분위기를 보여준다. 


##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유럽의 대표 남성현악5중주 ‘볼로시’ 앵콜공연

유럽을 대표하는 남성현악 5중주 ‘볼로시(Volosi)’가 1년만에 다시 부산을 찾는다.

특히 지난해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린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을 통해 부산시민과 첫 만남을 가진 ‘볼로시’는 그 당시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관객들로부터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아 올해 다시 부산을 찾게 되었다.

‘볼로시’는 비올리스트 Jan Kaczmarzyk, 바이올리니스트 Krzysztof Lasoń, Zbigniew Michałek, 베이스리스트 Robert Waszut, 첼리스트 Stanisław Lasoń 등 폴란드 출신의 남성 연주자들로 결성됐으며, 지난 2010년 ‘뉴 트래디션 페스티벌(New Tradition Festival)’로 데뷔한 후 유럽 전역에서 평단의 지지와 대중의 사랑을 동시에 받아왔다. 데뷔 이듬해인 2011년에는 유럽

방송연합에서 개최하는 ‘그랑프리 스베토자르 스트라치나(Grand Prix Svetozar Stracina)’에서 ‘월드 뮤직’ 부문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2012년에는 그들의 첫 앨범인 ‘Volosi(2011)’가 월드차트 유럽 상위 20위권에 진입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특히 2016년에는 ‘컬러즈 오브 오스트라바 페스티벌(Colours of Ostrava Festival)’에서 ‘그랑프리 체코 뮤직 크로스로드 어워드(Grand Prix Czech Music Crossroads Award)’를 수상했으며, 이듬해인 2017년에는 세계적인 마켓 워믹스(World Music EXPO)의 개막식 무대에 서기도 했다.

영국 BBC방송으로부터 ‘볼로시’는 새로운 발견이다. 압도적인 퍼포먼스의 에너지가 음악적, 지리적 경계를 뛰어넘어 완전히 거부할 수 없는 결합을 일으키는 느낌이 든다. 감히 단언컨대 그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라는 호평을 받은 ‘볼로시’는 그동안 우리가 흔히 갖는 현악5중주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집는 무대로 관객들을 만나왔다. 클래식은 물론 재즈와 록, 팝, 집시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음악적 어법을 활용하여 듣는 이의 감성을 자극해왔으며, 5인의 남성 현악연주자들이 펼치는 파워풀하면서도 다이내믹한 연주와 5개의 현악기가 표현하는 폭넓은 음역과 현악기 특유의 애절함, 때로는 넘치는 박진감과 당당함은 상반된 매력으로 관객을 사로잡아왔다. 



**일시**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VIP석 5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만 4세 이상 입장,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Preview

2



프리뷰

Preview

3



**일시** 10월 31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3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선정 공연시리즈 2 공존(共存):자연 그리고 인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선정을 위한 특별한 무대  
 ‘거장들의 다채로운 무대 프로젝트’ 두 번째 무대가 10월 3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 8월 지휘자 김종욱에 이어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감독 추천 위원회가 선정한 두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전 중앙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를 역임한 박상후 지휘자. 국악계 차세대 지휘자로 주목 받고 있는 박상후는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창작음악과에서 지휘를 전공한 후 독일로 유학, 함부르크 브람스 음악원에서 오케스트라 지휘를 전공했다.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중앙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를 역임한 박상후는 2014 인천아시아게임 기념공연 ‘한-아세안 전통 오케스트라’, 2014 국립극장 레퍼토리 시즌 국가 브랜드 공연 ‘단테의 신곡’, 2016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

악회’, 2018 서울시청소년국악단 온쉼표 ‘낭만국악’, 2019 전주시립국악단 ‘신년음악회’, 2019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를 지휘한 바 있다.

‘공존(共存):자연 그리고 인간’이라는 테마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나라의 산과 바다, 그리고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는 작곡가 김성국, 김창환, 김성경, 임희선의 작품을 들려준다. 첫 곡인 작곡가 김성국의 ‘춤추는 바다’는 부산의 대표적인 자연인 바다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 아름다움 안에 숨겨진 자연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보여주는 곡으로,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제 제23호 부산 기장 오구굿 음악을 소재로 독특한 매력을 표현한 곡이다. 이어지는 곡은 김창환 곡 ‘항해의 노래’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뱃사람들의 강인한 삶을 그린 작품으로,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작곡가의 젊은 감각과 국악관현악의 세련된 음색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새롭게 편곡했다.

김성경 곡 ‘풍류 수제천’은 원곡이 주는 미감과 품격을 손상시키지 않고 합악으로의 그 장중함을 더하도록 재탄생시킨 곡이며 이번 무대의 마지막 곡인 작곡가 임희선의 ‘북한산’은 자연의 위엄을 보여주는 거대한 산에 관한 이야기로, 북한산을 통해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자연의 오묘함을 음악으로 표현했다. 

##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의 명작 연극

### NT-Live

강선옥 (재)부산문화회관 공연기획팀장

#### 프랑켄슈타인

2019.10.6(일) 2:00pm, 6:00pm

####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2019.11.10(일) 2:00pm, 6:00pm

#### 헤다 가블러

2020.2.15(토) 2:00pm, 6:00pm

####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텐은 죽었다

2020.2.29(토) 2:00pm, 6:00pm

- 주 최 || 부산문화회관, 영국국립극장
- 제 작 || 영국국립극장
- 장 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입장료 || 전석 20,000원((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할인)



프랑켄슈타인

2009년 6월 25일 밤, 영국 전역의 73개 영화관과 전 세계 200여 개 상영관에서 5만 여명의 관객들이 모여들었다. 런던의 영국 국립극장 내셔널 시어터(National Theatre, 이하 내셔널 시어터)에서 상연되는 라신느(J. Racine)의 <페드라(Phaedra)> 공연실황 생중계를 관람하기 위해서였다. 누군가는 런던까지 갈 수 없어서, 누군가는 공연티켓보다 저렴한 관람료 때문에, 누군가는 공연실황 생중계가 가능할까 의심하면서 영화관으로 향했을 것이다. NT-Live가 처음으로 상영된 이날, 과연 영화관에서의 공연실황 관람이 실제 관극 경험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었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커튼콜 때 모든 관객들이 일어나, 마치 실제 내셔널 시어터에 있는 것처럼 박수와 환호를 보냈던 것이다. 1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의 2,000여 개 이상의 극장에서 550만 명 이상의 관객들을 스크린을 통해 만나고 있다.

#### NT-Live: 문화계 히트 상품

NT-Live는 내셔널 시어터가 영국 연극계의 화제작을 라이브로 촬영해 다른 지역의 상영관에서 생중계, 혹은 녹화로 상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유사한 공연실황 상영 프로그램들 중 단연 눈에 띄는 NT-Live의 성공 비결은 완성도 높은 공연 작품과 실제 공연의 '라이브성'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정교한 촬영과 편집이다. 이를 위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출가와 배우들이 작업하며, 작품에 따라 촬영 연출자도 따로 섭외된다. 5-8대의 카메라가 다양한 앵글과 카메라 샷으로 배우들의 섬세한 표정과 연기를 실제 공연보다 더 가까이 전달한다. 저렴한 티켓 가격과 극장 어느 객석에서나 VIP 석 같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이다. 상영되는 지역의 언어로 자막이 제공된다는 점도 국경을 넘어 관객들의 작품에 대한 이해와 관극 경험을 극대화시킨다. 때문에 NT-Live는 세계 65개국 이상에서 상영되는 문화계 히트 상품으로 자리 잡았고, 2014년 국립극장에 의해 국내에 소개된 이후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 부산문화회관의 NT-Live

올해 처음으로 NT-Live를 시도하는 부산문화회관은 2019-20 시즌을 통해 총 4편의 NT-Live를 소개한다. 근대 연극과 현대 연극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과 연극 특유의 각색과 재해석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작품들로 라인업을 구성했다. 연극사에 길이 남을

문화가화제

고전과 현대극을 통해 세계 연극계의 흐름을 일별할 수 있으며, 고전에 대한 창조적 재해석이 주는 연극적 묘미와 동시대적 의미망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연극 초심자라면 <프랑켄슈타인>과 <육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연극 매니아라면 <헤다 가블러>과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텐은 죽었다>를 눈여겨 볼 만 하다.

**헨리크 입센에서부터 테네시 윌리엄스까지**

리크 입센이 <인형의 집>, <민중의 적>, <페르귄트> 등을 통해 근대 사실주의 연극의 포문을 열었다면, 테네시 윌리엄스는 <유리동물원>,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를 통해 2차 대전 이후의 산업화, 상업화된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폐를 다루고 있다. 이번 NT-라이브에서 상영되는 <헤다 가블러>와 <육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이들의 작품 세계를 반영하는 대표작으로 근대 유럽사회의 변화하는 정신과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는 현대의 인간상을 각각 담고 있다. 일명 '고뇌하는 여성 햄릿'으로 불리우는 '헤다(Hedda)'와 몰락한 미국 남부 귀족의 딸 '블랑

쉬(Blanche)'를 통해 근대에서 현대에서 이어지는 여성들의 삶과 인간 조건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다.

**고전에 대한 창조적 각색과 재해석**

<프랑켄슈타인>은 메리 셸리의 원작소설을 연극으로 각색한 작품이며,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텐은 죽었다>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재해석한 작품이다. 대부분의 연극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을 창조한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반면, 이번 NT-라이브에서 상영되는 <프랑켄슈타인>은 피조물인 괴물의 입장에서 전개되며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해석을 더한다. 또한,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텐은 죽었다>은 <햄릿>에서 단역으로 등장했던 햄릿의 친구인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텐의 관점에서 재해석된 작품으로, 부조리한 인간 실존에 대한 철학적 주제를 유머가 넘치는 대사와 상황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사무엘 베케트(Samuel Beckett)의 <고도를 기다리며>적 배움을 감지할 수 있다.

**프랑켄슈타인 Frankenstein**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한 문학적 알레고리**

올해 처음 NT-라이브를 시도하는 부산문화회관의 첫 상영작은 NT-라이브 최고의 흥행작이자, 연극계 역사상 가장 완벽한 '프랑켄슈타인'으로 전 세계의 관객과 평단을 매료시킨 내셔널 시어터의 화제작 <프랑켄슈타인>이다. 영국 BBC의 화제작 '셜록' 시리즈로 유명한 베네딕트 컴버배치와 미국 드라마 <엘리멘트리>의 조니 리 밀러가 출연해, 프랑켄슈타인과 그의 피조물인 괴물 역을 번갈아 맡으며 숨 막히는 연기 대결을 펼친다. 특히 피조물이 탄생하는 순간, 9분 30초 동안 아무런 대사 없이 오직 몸과 표정만으로 생명 창조의 순간을 표현하는 이들의 연기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 <트레인스포팅> 등으로 유명한 대니 보일(Danny Boyle)의 상상력 넘치는 무대미학과 영화적 미장센도 또 하나의 관람 포인트가 될 것이다. 국내 첫 상영시, 티켓 오픈 당일 국립극장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일으켰으며, 2년 연속 전석 매진을 기록한 작품이다.

- 연출 || 대니 보일(Danny Boyle)
- 원작 || 메리 셸리(Mary Shelley)
- 출연 || 베네딕트 컴버배치(Benedict Cumberbatch), 조니 리 밀러(Jonny Lee Miller) 외





제작 || 내셔널 시어터  
 러닝타임 || 130분 관람연령 || 15세 이상(중학생)

##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A Streetcar Named Desire

### 이성과 욕망, 환상과 현실 속을 부유하는 현대인들의 자화상

20세기를 대표하는 현대 연극의 거장 테네시 윌리엄스의 플리처 상 수상작을, 시각적이고 상징적인 무대로 호평 받는 연극·오페라 연출가 베니딕트 앤드류스가 연출한 작품이다. 드라마 <엑스파일>의 ‘스컬리’ 역으로 유명한 배우 질리언 앤더슨이 몰락한 명문가의 딸 ‘블랑쉬’ 역을 맡아, 잔인한 현실과 도피적 환상의 세계를 오가는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연기로 생애 최고의 열연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속적으로 360도로 회전하는 무대, 원작의 음악적 요소를 완벽히 구현한 사운드 디자인, 3시간이 넘는 러닝타임 동안 계속해서 관객을 몰입시키는 연출력과 배우들의 열연은 영국 현지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연극 팬들을 사로잡았다.

연출 || 베니딕트 앤드루스(Benedict Andrews)  
 원작 || 테네시 윌리엄스(Tennessee Williams)  
 출연 || 질리언 앤더슨(Gillian Anderson), 벤 포스터(Ben Foster) 외  
 제작 || 내셔널 시어터, 영 빅 시어터(Young Vic Theatre)  
 러닝타임 || 200분 관람연령 || 19세 이상

## 헤다가블러 Hedda Gabler

### 페미니스트, 팜프 파탈, 이상주의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그녀

헨리크 입센의 1890년 작인 <헤다가블러>는 그의 1879년 작 <인형의 집>에 이어 결혼으로 불행해진 페미니스트의 아이콘을 다루고 있으며, 주인공 헤다(Hedda)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팜프 파탈, 여전사, 이상주의자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 세계 연극계의 슈퍼스타이자 ‘맥시멀 미니멀리스트(Maximal Minimalist)’로 평가받는 이보 반 호프가 연출한 이번 작품은 실존적 공허감에 시달리는 자기파괴적인 인물로서의 헤다를 부각시키고 있다. 2014년 골든 글로브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루스 윌슨의 압도적인 연기는 모호하면서도 다층적인 헤다의 캐릭터적 매력을 완벽하게 구현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연출 || 이보 반 호프(Ivo van Hove)  
 원작 || 헨리크 입센(Henrik Ibsen)  
 출연 || 루스 윌슨(Ruth Wilson), 라프 스펀(Rafe Spall) 외  
 제작 || 내셔널 시어터  
 러닝타임 || 180분 관람연령 || 15세 이상(중학생)

##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은 죽었다

### Rosencrantz and Guildenstern Are Dead

### 인간 실존에 대한 철학적 유머와 위트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은 죽었다>는 영국의 대표적인 현대 극작가 톰 스토포드를 거장의 반열에 올린 초기작으로, 초연 당시 토니상, 뉴욕 연극평론가상, 이브닝 스탠다드상 등을 수상한 명작이다. 이번 작품에서는 ‘해리 포터’의 주인공 다니엘 래드클리프가 로젠크란츠 역을 맡아 파격적인 연기 변신으로 화제를 모았으며, 길덴스턴 역의 조슈아 맥과이어와 함께 환상적인 코믹 연기를 선보인다. 부조리극 특유의 풍자적 유머와 철학적 진지함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햄릿>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과 ‘곤자고의 살인(Murder of Gonzago)’ 등의 주요 장면들을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각별한 재미를 선사한다.

연출 || 데이비드 르보(David Leveaux)  
 원작 || 톰 스토포드(Tom Stoppard)  
 출연 || 다니엘 래드클리프(Daniel Radcliffe),  
 조슈아 맥과이어(Joshua McGuire) 외  
 제작 || 내셔널 시어터, 올드 빅 시어터(Old Vic Theatre)  
 러닝타임 || 180분 관람연령 || 12세 이상

## 4만원으로 떠나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투어!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하늘은 높고 청명한데, 마음 한 구석엔 산한 바람이 부는가? 그렇다면 일상에서 작은 여행을 떠나 보자. 블랑쉬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엘리시안 필즈(낙원)’에 도착한 것처럼, ‘NT-Live’라는 비행기를 타고 영국 런던으로 떠나 보자. 템스 강변 남쪽의 내셔널 시어터, 윌털루 역 근처의 200년 전통의 올드 빅 시어터, 사우스뱅크 지역의 젊고 트렌디한 분위기의 영 빅 시어터! 몸은 당장 떠날 수 없어도, 이 극장들의 공연 속으로는 떠날 수 있다. 프랑켄슈타인과 헤다가블러도 만날 수 있고,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NT-Live로 떠나는 영국 연극계 최고의 화제작 투어, 4만원이면 충분하다.

### NT-Live 패키지 할인

- 4편 동시 구매(50% 할인) -80,000원 > 40,000원
- 2편 이상 동시 구매(20% 할인) -40,000원 > 32,000원

# 제15회 부산국제합창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합창제로 성장한  
부산국제합창제 2019년 무대가 10월 15일  
전야음악회를 시작으로 화려한 축제의 장을 연다.

10. 15<sup>①</sup> - 19<sup>②</sup>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무료(개막공연 '라야톤' R석 3만원, S석 2만원/  
갈라콘서트 '리가오 국립 고등학교 보이스 합창단'  
R석 2만원, S석 1만원)  
(재)한국합창조직원회  
070-4172-0682, www.busanchoral.org



◎ 개막공연 핀란드 아카펠라 그룹 라야톤



◎ 갈라콘서트 2 민속부부 공연팀

부산국제합창제는 지난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를 기념해 열렸던 부산 APEC 국제합창경연대회를 전신으로, 올해로 15회를 맞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권위있는 합창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부산국제합창제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10개국 44개팀 1,600여명이 넘는 합창단원들이 부산을 찾아 합창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펼친다. 축제의 시작에 앞서 10월 15일에는 제15회 부산국제합창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부산지역의 11개 합창단이 참여하는 '전야대음악회'가 오후 8시부터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열린다. 본격적인 경연은 10월 16일부터 사흘간 영화의전당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국내 9개팀을 비롯해 총 28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16일 청소년 부문을 시작으로 17일 팝&아카펠라, 클래식 동성&혼성 부문, 18일 민속 부문 순서로 개최된다. 경연과 더불어 이번 부산국제합창제에서는 10월 16일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사흘동안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에서 세계 정상급 합창단들의 무대를 만날 수 있다. 부산국제합창제를 화려하게 빛내줄 그 첫 번째 주인공은 핀란드의 세계적인 아카펠라 그룹 '라



◎ 갈라콘서트 1 필리핀 리가오 국립고등학교 보이싱 합창단

야톤(Rajaton). 핀란드어로 ‘무한한, 경계가 없는’이라는 뜻을 지닌 ‘라야톤’은 지난 1997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결성된 후 그 이름처럼 보컬뮤직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롭고 완벽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다. 자국인 핀란드에서 엄청난 팝 열풍을 일으키며 흔히 말하는 클래식과 대중음악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메우는 데 성공한 ‘라야톤’은 지금까지 총 16장의 앨범을 발매한 바 있다. 이번 개막공연에서는 북유럽의 빼어난 자연처럼 신비로운 하모니를 바탕으로 핀란드 민속음악을 비롯해 관객들이 좋아하는 팝음악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둘째날인 17일에는 갈라콘서트 첫 무대로, 2016년 부산국제합창제 대상에 빛나는 필리핀 리가오 국립고등학교 보이싱 합창단의 무대가 펼쳐진다. 2007년 설립된 리가오 국립 고등학교의 소속 합창단인 보이싱 합창단은 2014 National Music Competitions for Young Artists 혼성 부문 전국 챔피언 등극을 시작으로, 2015년 제4회 발리국제합창대회 대상에 이어 2016년 부산국제합창제 대상까지 석권했다. 이듬해인 2017년에는 부산국제합창제에서 다시 청소년부문 금상, 민속부문 은상, 연출상까지 휩쓸며 3

관왕에 올랐으며, 올해 7월 스페인 토레비에하에서 열린 제65회 International Choral Contest Habaneras and Polyphony에서는 Habaneras와 Polyphony 두 부문에서 1등상을 거머쥐는 등 세계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10월 18일 열리는 갈라콘서트 두 번째 무대는 민속 갈라무대로, 부산국제합창제에서 가장 볼거리도 많고 화려한 민속부문 경연팀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무대로, 각 나라 고유의 문화를 합창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10월 19일 오후 4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로비에서는 폐막을 앞두고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을 위한 로비음악회를 펼친다. 오후 5시부터는 올해 부산국제합창제 마지막 순서이자 합창제 하이라이트인 그랑프리 파이널과 시상식이 진행된다. 이어서는 전 세계 29개국, 56명의 작곡가들이 응모했던 2019 부산국제합창제 창작합창작품 공모에서 영예의 1위를 차지한 필리핀의 젊은 작곡가 Mark Raeniel Agpasa의 ‘Jubilate Deo’이 리가오 국립 고등학교 보이싱 합창단의 연주로 열리며, 부산국제합창제를 찾은 세계의 모든 합창단들이 하나의 합창단이 되어 노래하는 축제합창단의 무대가 펼쳐진다.



## 해외자매(우호)도시와 함께하는 제57회 부산예술제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문학,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과 문화를 선보이는 종합예술의 대향연 제57회 부산예술제가 10월 17일 그 화려한 막을 연다.

부산예술제는 지난 1963년 부산시의 직할시 승격을 경축하기 위해 시작된 부산 유일의 종합예술축제로, 1966년 부산종합예술제를 거쳐 1978년 부산예술제, 1980년 부산무대예술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0년부터 다시 부산예술제로 운영해오고 있다. 2009년부터는 부산시의 해외자매(우호)도시와 함께하는 국제교류행사로 발돋움하면서 올해 예술제에서도 일본 후쿠오카와 시모노세키, 몽골 울란바토르 예술가들이 부산을 찾아 시민들과 만난다.

2019 부산예술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10월 18일 오후 7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개막공연인 ‘가곡과 아리아의 밤’에서는 지휘자 오충근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소프라노 김유섬, 조윤정, 테너 양승엽, 김지호, 바리톤 나현규 등 부산을 대표하는 성악가들이 국내외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부산연극협회가 마련한 ‘秀秀한 연극초청전’에서는 극단 배우창고의 ‘단편소설집(10월 18일-19일)’과 극단 누리예의 ‘파 한 단, 두부 한 모(10월 23일-24일)’ 등 두 작품이 부산예술회관 무대에 오른다.

부산국악협회가 마련하는 ‘전통음악교류한마당’은 10월 19일 오후 6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국악협회 회원들이

◎ 전통음악교류한마당 일본 비파연주



◎ 부산무용예술제 울란바토르양상블



들려주는 가야금병창과 남도민요 등 신명넘치는 우리소리와 더불어 비파 연주(후쿠오카), 사미센 연주(시모노세키) 등 일본 전통음악 연주자들의 무대가 마련된다. 10월 24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는 부산무용협회가 마련하는 ‘부산무용예술제’가 열린다. ‘녹양지무(錄楊之舞, 버드나무의 가지처럼 흔들리듯 춤추다)’라는 타이틀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과 몽골 울란바토르 무용가들의 춤판이 펼쳐진다. 부산에서는 윤여숙무용단 ‘태극무’, 박헌주 부산시티발레단 ‘무도회 왈츠’, 엠댄스씨어터 ‘숨-검은 숨소리’ 등 전통무용에서 발레, 현대무용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이며, 울란바토르를 대표하는 울란바토르양상블은 말의 모습을 무용으로 형상화한 ‘잘람하르’, 몽골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복장을 보여주는 ‘코슈트 몽고’, 전통에 현대적 비트를 엮은 ‘우알다크 우치르’ 등 3개 작품을 선보인다.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제인 ‘부산영화제’는 10월 26일 오후 2시부터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부산영화인협회 회원들이 기획·제작하고 시나리오부터 편집까지 함께한 단편영화 ‘미희’를 상영한 후 관객과의 대화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단편영화 ‘미희’는 고령화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재조명하는 작품으로,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나이 칠십의 주



● 秀秀한 연극초청전 극단 누리에 ‘파 한 단 두부 한 모’

인공 인덕이 첫사랑 미희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영화에 담았다. 같은 날 오후 2시 부산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는 부산문화진흥원이 준비한 ‘세계음다풍속’ 행사가 마련된다. 한국, 중국, 일본, 영국 등 각기 다른 국가의茶文化을 시연하며 한 잔의 차를 음미할 수 있다. 예선을 통과한 65세 이상의 실버 세대 16명이 펼치는 ‘부산실버가요제’는 10월 27일 오후 2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예술제 기간에는 공연 외에도 다양한 전시가 관객들을 기다린다.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부산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리는 ‘국제건축도시미디어전’은 도시의 남겨진 기억의 모습과 친숙한 환경의 파괴를 통해 혼돈의 시대를 살아야하는 현대인들의 기억과 망각의 시간/공간을 담은 작품들이 전시된다. 또, 부산을 비롯한 몽골 울란바토르, 일본 후쿠오카, 중국 위해 등 4개국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해외자매도시 미술교류전’은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부산광역시청 전시실에서 펼쳐진다. 이밖에 부산사진작가협회 회원들이 1년간 카메라에 담은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낸 ‘부산사진작가협회 회원전’은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부산시민회관 전시실에서, 꽃향기 가득한 꽃예술 설치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꽃예술전’은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전시실에서, 부산과 타 지역 작가들의 시화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제6회 지역문학작품교류전’은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부산예술회관 전시실에서 펼쳐진다.

10.17<sup>목</sup> - 27<sup>일</sup>

부산예술회관,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미술관, 부산시청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631-1377  
[www.artpusan.or.kr](http://www.artpusan.or.kr)



## 청중을 열광시킨 발칙한 놈놈들

### 이희문 컴퍼니 경기소리프로젝트 ‘거침없이 얼씨구’



◆ .....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 Ph.D. 정영진

오늘날 문화는 대중 지향적이다. 즉, 대중 곁에 존재하는 문화여야 그 존립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그 경계도 허물어 졌다. 다시 말해 대중과 다른 별개의 엘리트가 존재하거나 대중과 구분되는 별다른 계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평적 사회가 구현되지 오래다. 그것은 문화예술의 각각 장르에도 그렇고 또한 국악에도 예외는 없다고 생각된다.

지난 9월 6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 이희문의 경기소리 프로젝트 <거침없이 얼씨구>는 철저히 대중성을 지향한 무대였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전통음악의 대중음악 중에서도 대중음악이었다. 물론 경기소리가 가지는 기본적인 대중의 보편성도 있었지만 이날의 공연은 그 대중성에도 전통의 변용이라는 새로운 모습의 무대를 연출하였다. 우리가 전통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목적성을 이 무대 하나로 다 설명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혹 우리는 전통에 대하여 고정된 실체만을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전통이란 시대의 산물이다. 시대란 시간적 징검다리의 연속성에 바탕 한다. 그러므로 시간적 흐름에 따라 그 전개 양상은 제각각 달리 나타나며 때로는 새로운 형태의 전통이 조합을 이루게 된다. 즉, 전통의 보존은 새로운 전통을 길러내는 자양분

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전통의 변용에서 출발한다. 기존의 경기소리였다 무대연출과 구성만 바꾸어서 이 시대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음악이 탄생한 것이다. 특히 이날 두 번째 무대인 속시스터스의 출연은 객석 청중을 충분히 열광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복고풍 의상과 그리고 조금은 엉성해 보이는 몸동작 즉, 발림(춤사위)은 충분히 내 이웃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바로 나의 모습을 무대에 투영시키고 있었다. 잘 부르는 노래이기 보다는 재미있게 부르는 노래가 더 청중에게 다가왔던 것이다. 그것은 충분히 대리만족의 시간이며 좀 더 내가 적극적으로 무대와 호흡하며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연출이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대중적이다’라고 할 때 이런 것이 바로 순수한 대중성이라고 생각한다. 조금은 격식이 무너져도 조금은 어설퍼도 조금은 덜 세련되어도 좋다. 내가 무대에 빠질 수 있는 적당한 틈을 보여준 것이야말로 우리를 기쁘게 하였고 즐겁게 만들었다. 물론 이들이 의도적이었던 아니면 진짜로 실력이 없어 그랬던 간에 그들이 불렀던 ‘강원도 아리랑’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리아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를 되뇌었을 것이다. 우리가 공연장을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무대와 객석



이 하나의 연출로 서로 교감과 소통을 맛보기 위함이다. 흔히 성공적인 무대 혹은 좋은 무대는 바로 청중과 소통한 무대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이날의 무대도 매우 성공적인 무대라고 평하고 싶다.

특히, 이희문이 무대에서 보여준 익살은 충분히 청중과 소통하고 싶은 욕망을 잘 드러내고 있었다. 또한 전통의 변용 모습은 오늘날 대중예술이 어떻게 전통을 변용하여야 하는지를 잘 대변하였다고 본다. 그리고 청중이 원하는 바를 잘 계산된 연출로 무대를 이끌어 가는 점도 특출하였다. 일찍이 그는 씽씽밴드의 일원으로 파격적인 경기소리를 우리들에게 선보인 바 있다. 씽씽밴드가 출연하였던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의 간판 프로그램인 Tiny Desk Concert의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100만을 훌쩍 넘겼다. 1970년대 영국에서 등장한 글램 록(glam rock)의 형식에 우리민요를 입힌 파격적인 조합은 일시에 세계가 그들을 주목하게 만들었다.

그는 발칙하고 특이한 민요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한편에서는 죽어가고 있던 우리 전통음악에 새로운 옷을 입혀 살려낸 일등 공신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즉, 전통의 변용을 통해 이 시대가 지향하는 문화의 대중성에 가장 가깝게 그리고 가장 호소력 있게 이 시대의 전통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날의 무대에서도 씽씽밴드의 같은 일원인 신승태와 또 남자소리꾼 조원석이 이희문과 함께 노는 남자프로젝트 그룹 농놈이 출연하였다. 그들의 간드러진 목소리와 그리고 발칙한 발림은 우리를 또 한 번 박장대소하게 만들었다. 무대는 점입가경으로 더 재미있어졌다. 여기저기서 흥이 올라 얼씨구 절씨구 추임새가 절로 터져 나온다. 이때를 놓칠 손가, 다시 숙시스터스가 등장한다. 의상은 요조숙녀의 복장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노는 것은 요조숙녀가 아니었다. 한때 잘 나갔던 껌 좀 씹었던 언니들이다. 반전이였다. 그들의 노랫가락 차차차는 또 다시 우리를 열광하게 한다. 그녀들의 무대 매너는 어느 걸 그룹 못지않다.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화란춘성 만화방창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여기저기서 ‘차차차’가 반복된

다. 흥이 오를 대로 올랐다. 이런 분위기가 어색했던 나는 미처 함께할 마음에 준비를 못해 멀뚱거리다 얼렁뚱땅 엇박자로 ‘차차차’를 외쳤다.

농놈과 그녀들의 다음 곡은 무대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음을 말하고 있었다. 바로 ‘이팔청춘가’이다. 우리나라의 중장년 그리고 복고풍의 노래를 좋아하는 젊은이들도 이 노래 한번쯤을 흥얼거렸을 것이며 발바닥도 한번쯤 비벼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쉬 가지지 않는 이 공연의 마지막 무대는 대표적인 경기민요 ‘양산도’와 ‘태평가’로 마무리된다. 특히 ‘태평가’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고 천재 국악소녀 송소희가 불러 더 잘 알려진 곡이다. 특히 다음의 후렴구 때문에 더욱 우리에게 친숙하다. “니나노 날리리야 날리리야 니나노 얼싸 좋아 얼씨구 좋다 벌 나비는 이리 저리 펄펄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1970-80년대 선술집에서도 간혹 흘러 나왔던 후렴구이다. 그래서 더 친숙하고 대중적이다. 여기에다가 그 농놈들과 숙시스터스들의 익살기가 더해져 청중들의 흥은 배가되어 극장 천정을 찌른다. 이젠 청중 모두가 떼창으로 ‘니나노’를 노래한다.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다. 누가 출연자고 누가 객석의 청중인지 구분이 안 된다. “나 참 이런 공연은 처음 본다”라고 내 옆의 대머리 아저씨가 혼자말로 여러 번 되뇌인다. 물론 나도 그랬다.

이날의 공연은 전통의 변용을 통한 대중성을 유감없이 보여준 무대였으며 청중과 소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첩경을 우리에게 잘 일러준 무대였다. 무대의 조명이 꺼지고 막도 내려졌다. 하지만 흐릿한 객석의 조명아래 한 무리의 청중들은 앵콜곡으로 부른 ‘뱃노래’를 연신 불러댄다. 신명을 덜 쏜 내 옆의 대머리 아저씨도 그리고 양 사방으로 흩을 빠져나가던 이런저런 분들도 ‘어기야 디여차’를 외치며 흥을 풀어낸다. 이젠 점점 확산되어 빠져 나가던 청중 대부분이 ‘어기야차 뱃놀이 가잔다’를 부르며 퇴장한다. 무대 밖의 또 다른 무대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이날 민요 몇 곡만으로 제대로 된 신명을 맛보았고 그리고 우리 속에 내재된 흥을 맘껏 표출할 수 있는 열광의 시간을 가졌다. “신명 한번 잘 풀었다”

## 연출가의 의도를 다 형상화하지 못한, ‘율리우스 카이사르’

연극 ‘율리우스 카이사르’(w. 셰익스피어 작, 김지용 재구성·연출)



◆ ..... 경성대학교 창의인재대 교양학부 교수, 연극평론가 **김영희**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재)부산문화회관이 자체적으로 기획 제작한 첫 연극이다. 부산 연극계를 오래 지켜온 유상홀을 중심으로 한 중견배우와 공개오디션을 통해 캐스팅된 지역 신인 배우가 힘을 모으고 부산시립극단 상임연출가 김지용이 연출을 맡아 의욕적인 무대를 만들고자 했다. 가을이 짙어가는 시간, 시간을 견딘 텍스트 고전은 죽지 않고 우리 곁에 숨 쉬며 앞만 보며 달려가는 우리 삶을 잠시 멈춰 서게 한다.

### 개방된 무대와 산만한 극적 공간

관객이 극장에 입장해서 처음 만나게 되는 연극 얼굴은 ‘무대’이다. 무대를 보면서 관객은 곧 만나게 될 연극을 상상하는 것으로 연극은 이미 시작되는지도 모르겠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문화회관 중극장에 들어서 처음 무대를 보는 순간 무대가 상당히 넓다는 느낌을 받는다. 무대 전체는 푸른색 조명 아래 신비하게 싸여 있다. 천장에서 떨어진 기둥들은 수직적인 이미지로 무대 전체를 역동적으로 만든다. 무엇보다 눈길이가 가는 곳은 무대 뒤편이다. 무대 뒤편이 완전히 개방돼 있다. 전통적으로 무대 뒤편은 배우들의 이동 통로로서 관객석에서 봤을 때 숨겨져 있다. 무대가 극적 환상을 만

드는 공간으로 온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대 밖의 그 같은 현실적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연극에서 제약된 무대공간을 극복하는 익숙한 연출 방식이 무대와 객석 사이 제4의 벽을 없애고 객석을 극적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면 이번 공연에서는 무대 뒤편의 벽을 없애버림으로써 무대 전체를 극의 공간으로 확산시킨다. 신선한 발상이고 도전인 만큼 위험하기도 하다. 배우들의 등, 퇴장로가 사라지면서 연출가가 염려한 대로 무대 동선이 산만해져 버렸다. 가장 문제점은 무대 뒤편으로 공간이 물러가면서 배우와 관객의 거리가 더욱 멀어져 배우들의 대사가 객석으로 잘 전달이 안 된다는 점이다. 평소 연극 무대로서 적절하지 않은 중극장을 생각하면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는 시도이다. 특히 전(前)막은 극의 기본 정보를 알려주는 부분으로 카이사르의 황제 욕망과 관련된 주변 인물이나 세력들의 갈등 구도가 잘 전달되어야 했음에도 관객들은 쉽게 극에 몰입하기 어려웠다.

한편, 배경으로 북소리가 깔렸다. 권력을 둘러싼 인간의 마음을 단순하지만 반복된 북소리로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타악기인 북은 인간의 심장이 고동치는 듯, 원초적인 소리를 낸다. 연극에서 북소리는 극적 사건 속에 흡수되어 잘 들리

지 않다. 문득 관객이 북소리를 인지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배경음악이다. 결코 북소리가 주인공이 되어선 안 된다. 허나 전막 내내 북소리가 귀에 들어와 극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북소리가 불편하게 들렸다면 그것은 북소리 가 커서가 아니라 쉽게 극적 사건에 몰입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고 그 상황은 배우들의 대사전달 부족 때문이다. 결국 확장된 무대는 극이 펼쳐지는 공간을 풍부하게 했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배우들의 동선이 산만해지면서 대사 전달이 잘 안 돼서 관객을 충분히 극에 몰입할 수 없도록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 인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연출가의 의식 과잉

고전은 개인과 시대에 따라 재해석되는 열린 텍스트라고 말하지만 연출가 김지용만큼 고전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것을 즐기는 연출가는 드물 것이다. 원작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는 시저가 폼페이 잔당을 물리치고 개선하는 기원전 45년부터 안토니가 필리피 전투에서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 일당을 물리친 기원전 42년까지의 로마역사극을 다룬 정치극이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줄리어스 시저>에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를 잇고 거의 다시 쓰는 정도로 원작을 재구성했다.

우선, 카이사르 인물에 대한 해석이다. 원작에서 시저는 뜻밖에 겁 많고 동시에 오만하다. 권력에 대한 욕망을 숨기지 못하면서도 간질병을 앓고 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이번 공연에서 카이사르는 지적이며 단호하며 동시에 유연하고 따뜻한 인간미를 가진 인물로 등장한다. 원작과 달리 비중도 상당히 있다. 전막에서 죽은 카이사르가 후막에서도 계속 무대 위에 머물면서 인물을 바라보기도 하고 인물 사이를 걷기도 하고 다른 인물로 하여금 환각을 보도록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산 사람과 대화를 하기도 한다. 이는 카이사르의 존재감을 육체라는 물질성을 넘어 죽어서도 남은 자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또 이 작품은 원작에서 충직한 신하였던 브루투스를 총애를 받는 양자로 설정해 두고 옥타비아누스를 제 1상속자이면서

도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하고 브루투스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자식으로 설정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브루투스와 옥타비아누스를 갈등관계에 놓이게 한다. 아버지 사랑을 두고 양자의 질투와 대결 스토리는 상당히 고전적인 접근이다. 어디 그뿐일까. 셰익스피어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에서 인물 설정을 가져와서 카이사르의 정부였던 클레오파트라를 안토니우스와 사랑에 빠지게 하면서 이어지는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를 예고하도록 극의 결말을 맺고 있다는 점도 달라진 점으로 연출가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질투, 시기, 번민, 방황, 불륜, 오해, 속임수 등 대중적인 코드는 극의 스토리를 친숙하고도 풍부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극 전체를 산만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극의 마지막 장면에서 클레오파트라의 등장은 사족처럼 느껴질 정도였으니 말이다.

마지막 브루투스가 죽으면서 하는 독백은 작위적이다. 그는 시지프스와 프로메테우스의 신화 그리고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실존철학의 유명한 문장을 작심한 듯 말한다. 물론 원작에 없는 말들이다. 죽음 앞에 놓인 이가 하는 말이니 실존적인 발언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체 극에서 브루투스의 이런 말들은 개연성이 떨어진다. 이는 연출가의 의식이 과잉된 것으로 연출가의 의도가 충분히 형상화되지 못한 것으로 비쳐진다.

희곡이 시적인 이유는 운율이 느껴지는 대사 때문만이 아니다. 희곡 속 사건들은 배우들의 형상화된 연기와 구성을 통해 응집되어 있다. 무대에서 느껴지는 강렬함은 연극 장르적 특수성 때문이기도 하다. 연극은 말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많은 것들을 되려 감추고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적이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너무 많은 것들을 담아내려고 함으로써 오히려 극적으로 전달해야 할 것을 놓쳐버린 것은 아닐까.



## 우리 춤판에 새 숨결을 불어넣을 리플래시 Dance Project EGERO 레퍼토리 기획공연 ‘REFRESH’



◆ .... 춤비평가 이상현

지난 9월 6일부터 9일까지 민주공원 소극장에서 민주공원 상주단체인 Dance Project EGERO(아래 ‘에게로’)의 레퍼토리 기획공연 ‘REFRESH’(아래 ‘리프레시’)가 열렸다. 부산, 대구, 서울에서 아홉 개 단체의 아홉 작품이 참가했다. 참가작 모두 재연작품으로 작품에 숨결을 다시 불어 넣어 레퍼토리화하려는 것이 기획 의도였다. 수준이 뒤처지는 작품이 없었고, 초연과 재연을 비교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여기서는 필자가 초연까지 본 5편에 대한 리뷰를 담는다.

떠다니는 먼지를 모티브 삼아 점점 확장하는 움직임이 신선하고 흥미로웠던 김영찬(단체명 ‘29동’)의 ‘먼지’를 7년 전 만났었다. 같은 공간에서 이 작품을 다시 보았을 때, 초연 당시 대상화했었던 먼지에 자신을 투영시킨 한 편의 드라마가 완성돼 있었다. 그(익명의 존재)는 자신을 한갓 먼지로 여길 만큼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지만, 누군가를 만나 느끼고 품으면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 일상적이고 때로는 격정적인 움직임은 작품 말미에 바다를 만나기 전 넓고 천천히 흐르는 강처럼 자유롭고 편안한 춤이 되었고, 회한을 안고 빛 속에서 흩어지는 먼지는 관객에게 사랑의 의미를 생 각하게 했다.

이용진(에게로)의 ‘Chain Reaction’을 처음 봤을 때 몸이 춤을 껴안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호흡은 몸 속 어느 지점을 떠돌고 춤은 드러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춤을 뱉어낼 것으로 생각했다. 3년 후, 이용진의 숨결은 여전했지만 춤은 몸을 벗어나려 하고 있었다. 장작이 타올라야 열기가 멀리 닿듯이 춤꾼은 춤으로 육신을 태우면서 세계와 깊이 소통한다. 춤이 사유의 순수한 이미지라면 춤꾼은 몸으로 사유하고 실천한다. 이용진은 ‘태어난 성향이 마찰로 인하여 불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한다.(땀플릿 작품 소개 글) ‘Chain Reaction’은 사유(마찰)와 이미지(불꽃)의 연속현상이다.

이연주(현대무용단 자유)의 ‘지독했던 오후’는 기억의 오류를 투명한 입방체로 표현한다. 크기가 다른 입방체 네 개는 저마다의 기억이며 입방체를 이리저리 짜 맞추듯이 기억은 편집된다. 입방체의 투명한 벽은 기억이 실제에 닿지 못하는 한계이고, 그 한계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지난 6월 AK21 공연(초연) 보다 작품의 밀도가 높아졌는데, 대극장과 소극장 차이가 큰 영향을 끼쳤다. 대극장에서 크고 무거운 장치를 옮기는 에너지 소모가 소극장에서 최소화되면서 춤에 쏟

을 에너지를 확보한 결과 춤이 드러나고 긴장이 증폭되면서 밀도가 높아졌다. 작품에 적절한 공간과 소품의 무게·크기·구도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야겠지만, 초연에서 놓친 장점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삭막한 현실을 빚대어 거주 불가능한 곳을 떠도는 여행자의 꿈을 다룬 '사막을 건너는 히치하이커'는 허성준(분실물 보관소)의 작품이다.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한 여행자에게 낮에는 작열하는 태양이 심장을 녹이고 밤이면 뺨속까지 추위가 파고드는 사막은 불친절하고 야박한 곳이다. 철학자 아감벤은 '구원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있으며, 구원이 도래해도 모든 것은 그대로다. 아주 미세한 차이만 있을 뿐이다.'라고 말한다.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는 알아채지 못한 구원처럼 이미 그곳에 있었다. 해결 실마리를 담은 채로 문제의 장소에 묻혀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안내서를 찾았다고 사랑과 연민이 삭막한 현실에서 구원으로 이끌 수 있을지, 혹시 또 다른 사막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지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초연 당시의 진지함이 누그러졌고, 구성을 단순화한다면 주제와 낙천적 결말이 더 선명해질 듯하다.

POD Dance Project 이종윤, 이진우의 '공차적응'은 POD 즉, '이인조 행성(Planet of Duo)'을 가상공간으로 설정한다. 작품은 두 사람이 탄 우주선이 새로운 행성에 불시착하는 영상으로 시작한다. 60일의 낮과 60일의 밤이 이어지고, 기온이 영하 180도와 영상 180도를 오가며 중력은 0G에서 2G까지 변하는 곳. 극단을 오가는 가혹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두 사람의 노력은 눈물겹다. 현실은 '이인조 행성'의 물리적 환경 못지않게 가혹하고, 현실에 불시착한 청년이 느끼는 고통은 기성세대보다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힘겹게 춤추며 적응하기 위해 발버둥 친다. '공차적응'은 '아무 도움 없이 극한의 현실에서 살아남기'에 대한 씩씩한 비꼬기다. 2년 전 초연에 비해 춤의 격렬함은 덜하지만, 배경 설정 등 이야기가 분명해지면서 작품이 더 많은 것을 품었다.

'리프레시'에 참여한 단체들은 30대를 주축으로 우리나라 춤판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들을 한자리에 모으기가 만만한 일이 아니다. 행사의 역사나 권위가 있거나 아니면 출연료가 많다는 등의 유인 요소가 있어야 하지만, 해당하는 요소가 하나도 없는 이 공연을 기획하고 실현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이때까지 부산에 없었던 기획인데다 창단한 지 불과 5년이 채 안 된 단체가 이룬 성과가 아닌가. 기획자의 말에 따르면 모든 참가팀이 기획 의도를 듣고 흔쾌히 섭외에 응했다고 한다. 그들은 기성의 전통과 권위에 기대기보다 자신들이 주도하는 역사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주최 측이 미안할 정도의 출연료에도 달려 온 이유도 자신들처럼 생각하고 춤추고 버티는 이들을 만나 동지애를 느끼고 연대하기 위해서다. 이런 기대와 의지가 애초 기획 의도였던 잠자던 작품을 레퍼토리화한다는 계획을 넘어 부산, 대구, 서울의 젊은 춤꾼을 묶고 지역 춤판을 활성화하는 데까지 이르게 했다. 지금 우리 춤판은 기성의 권위가 만든 수직 구조가 해체되고, 그 빈자리를 '리프레시'에 모인 현장 춤꾼의 연대가 빠르게 채우고 있다. 매년 이맘때 우리 춤판에 새 숨결을 불어넣을 '리프레시'가 이어지기 바란다. 사진제공 | 사진가 박병민



부산문화회관

2019 부산 오페라 WEEK\_아지무스 오페라단 오페라 갈라콘서트 사랑의 묘약

일 시 10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22년 완공 예정인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하고 지역 오페라 육성과 오페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한 '2019 부산 오페라 WEEK'. 작곡가 도니체티가 6주만에 완성한 전설적인 희극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갈라무대로 만날 수 있는 이번 무대에서는 예술총감독 손옥, 연출가 허복영의 연출, 전남대학교 박인욱 교수가 지휘하는 인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로 세계 속의 한국을 빛낸 성악가로 선정된 테너 김기선을 비롯해 숙명여자대학교 박현주 교수, 동아대학교 박대용 교수, 한정현, 이주민과 동아대학교 합창단이 관객과 만난다.

해설과 함께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서현의 사랑 이야기

일 시 10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지클레프 02-515-5123



뛰어난 예술적 감각과 함께 탁월한 명석함으로 음악을 해석하여 관객을 압도하는 음악을 표현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서현의 해설과 함께하는 '사랑 이야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한 후 도미, 인디애나음대 전문연주자과정을 다니며 전문연주자로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한 이서현은 귀국 후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현악과 전제 1호 박사를 취득하기도 했다. 이서현은 현재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1객원수석, 서울 비르투오지 챔버오케스트라, 피아노 트리오 여운 단원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 피아노/홍인경

(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마티네콘서트 시즌 5 오페라 이야기 V

일 시 10월 2일 수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대표적인 브런치 콘서트인 (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2019년 마지막 무대. 이번 다섯 번째 시즌 마지막 무대의 주인공은 베르디의 후계자이자 사실주의 오페라의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꼽히는 푸치니. TBN 부산교통방송 손지현 아나운서의 사회로,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지휘자 윤상운이 지휘하고 소프라노 윤지영, 테너 김준연의 협연, 부산 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푸치니의 대표적인 오페라 '토스카', '나비부인', '마농 레스코', '투란도트'의 주요 곡을 들려준다.

제26회 동요사랑페스티벌 꽃씨가 되어

일 시 10월 3일 목요일 오후 4:0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한국동요사랑회 010-3864-9889



지난 1984년 창작동요를 통해 풍부한 감성과 좋은 심성, 창의적인 아이들로 성장시키기 위해 부산의 작곡가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한국동요사랑회(회장 류지원)의 26번째 창작동요 발표회.

한국동요사랑회는 그동안 25차례 창작동요 발표회를 통해 총 25권의 창작동요 음반과 26권의 창작동요 악보집을 출간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도 창작동요 '그날이 오면(류지원곡)', 바다 소식(신진수 곡) 등 총 34곡의 창작동요 곡을 들려준다.

제15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

일 시 10월 4일(금)-6일(일) 중극장, 전시실, 중앙광장
문의 (사)부산차문화진흥원 809-1551, www.busanatea.kr



현대인의 생활 속에 점점 더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차 문화를 올바르게 전파하고 여유로운 삶을 재발견하기 위해 개최되는 제15회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 10월 4일 오후 3시 중극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차문화, 함께 미래를 문다'라는 주제로, 숙우회의 양유익차 선차 시연을 통해 차의 기본을 돌아보는 동시에 함께 미래를 생각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전시실에서는 선고다인을 모신 추모관, 인성교육의 갈집이가 될 수 있는 인성교육 홍보관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가 펼쳐진다.

2019년 부산현대음악앙상을 특별연주회 6인의 창작실내악의 밤

일 시 10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현대음악앙상 010-4691-4994



지난 2008년 부산지역의 현대음악의 활성화와 수준높은 연주를 목표로 창단한 부산현대음악앙상들의 특별연주회. 부산현대음악앙상들은 창단 후 풍부하고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바탕으로 폭넓은 현대음악 장르를 탁월하게 해석하여 호평과 주목을 받았으며, 특히 창작작품의 초연을 통해 음악의 지평을 넓혀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박성미, 오용철, 김민표, 이규봉, 정주희, 임주섭 등 작곡가 6명의 창작곡을 들려준다.
• 연주/바이올린 강고은, 고아라, 비올라 유정주, 첼로 광대희, 플루트 장예지, 클라리넷 황남용, 피아노 김진희, 강대현



**2019 부산 오페라 WEEK  
온누리오페라단 오페라 ‘살로메’**

**일 시** 10월 5일-6일 토-일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VIP 10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성서에 나오는 헤롯왕과 그의 의붓딸 살로메, 그리고 당대의 예언자 세레 요한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온누리오페라단의 오페라 ‘살로메’. 오페라 ‘살로메’는 대문호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곡을 붙인 작품으로, 원작의 관음적인 시선과 탐미주의를 무대미술과 영상, 춤을 통해 그대로 살려냈다.

- 예술감독/이홍길 ● 연출/김성경
- 지휘/마르쿠스 후버
- 연주/네오피하모니오케스트라
- 출연/이윤경, 윤지영, 김충희, 이광근, 안세범, 양송미, 신대현, 전하라 외

**2019 부산대학교 관악정기연주회  
부산대 해군군악대 합동연주**

**일 시** 10월 5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 의** 부산대학교 510-1747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관악전공자들이 마련하는 2019 부산대학교 관악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해군군악대와와 합동무대로, 관악 특유의 웅장한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 존 윌리엄스/올림픽 팡파르
- 알프레드 리드/축제 서곡
- 거쉰/랩스다인 블루
- 마르케스/단조 제2번
- 이와이 나오히로(편곡)/아메리칸 그라피티 III 등
- 클라리넷/서민재
- 혼/박병규

**심지현 첼로 리사이틀**

**일 시** 10월 5일 토요일 오후 6: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 의** 심지현 010-3863-3678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창원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있는 첼리스트 심지현 독주회. 따뜻한 소리로 감동을 전하는 심지현의 두 번째 독주회로, 바흐와 베토벤, 슈베르트 등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곡을 통해 음악을 통한 평안과 위로를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프로그램**

- 베토벤/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중 ‘사랑을 느끼는 남자들에게는’ 주제에 의한 7개의 변주곡
- 바흐/무반주 첼로모음곡 제1번 BWV 1007
- 슈베르트/아르페지오네 소나타 가단조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의 명작 연극  
NT라이브 ‘프랑켄슈타인’**

**일 시** 10월 6일 일요일 오후 2:00, 6:00 중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영국의 국립극장 내셔널 시어터(National Theatre)에서 상연되는 연극의 공연실황을 라이브로 감상할 수 있는 ‘NT 라이브(NT Live)’.

올해 처음 NT-라이브를 시도하는 부산문화회관의 첫 상영작은 NT-라이브 최고의 흥행작이자, 연극계 역사상 가장 완벽한 ‘프랑켄슈타인’으로 전 세계의 관객과 평단을 매료시킨 내셔널 시어터의 화제작 <프랑켄슈타인>이다. 영국 BBC의 화제작 ‘셜록’ 시리즈로 유명한 베네딕트 컴버배치와 미국 드라마 <엘리멘트리>의 조니 리 밀러가 출연해, 프랑켄슈타인과 그의 피조물인 괴물 역을 번갈아 맡으며 숨 막히는 연기 대결을 펼친다.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제19회 정기연주회**

**일 시** 10월 8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 의**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010-9640-7766



지난 1991년 설립된, 전국 최대 규모의 전문 피아니스트들로 구성된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에서 마련하는 19번째 정기연주회.

매년 정기연주회뿐만 아니라 지역 초청연주회를 통해 지역 간의 문화 교류활동에도 앞장서온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는 이번 무대에서 초·중·고등학생들과 함께 연주하고 즐기는 힐링 콘서트로 관객들과 만난다. 특히 어린 청중과 쉽게 교감할 수 있도록 누구나 귀에 익은 친숙한 곡을 비롯 영화음악 주제곡, 또는 어린이를 주제로 한 작품 등을 들려준다.

**소프라노 임혜정 독창회  
집시를 노래하다**

**일 시** 10월 8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지은컴퍼니 010-9736-3535



현재 동의대학교 예술종합콘서바토리 성악외래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임혜정 독창회.

‘집시를 노래하다’라는 테마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브람스, 슈만, 볼프, 리스트, 드보르 작, 레하르 등 낭만시대 작곡가들이 집시를 소재로 그만의 색깔로 작곡한 작품을 통해 집시의 사랑과 낭만, 정착하지 못한 슬픔과 애환, 비애와 절규 등 음악을 통해 집시의 삶을 들여다본다.

- 피아노/김현경 ● 바이올린/여주현
- 해설/김정화

제48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정기연주회 피아노 랩소디

일 시 10월 10일-11일 목-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 의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010-6563-6692



매년 두차례 다양한 피아노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정기연주회.

10일(목) 현대피아노 음악의 밤
20세기 최고의 아르헨티나 작곡가 구아스타비노를 비롯해 근, 현대 작곡가들의 피아노음

악을 새로운 연주감각으로 들려준다.
연주/조혜영, 김민주, 박은정, 최민경, 정미라, 정승연, 이아영, 차미령, 황정미

11일(금) 듀오 콘서트
연주/김미영&이성미, 박희정&신진희, 조영은&박환희, 김태기&이요한, 조미지&조아란, 강성은&김병기, 정년경&이경옥

서혜리 피아노 독주회

일 시 10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 의 윤예술기획 010-9025-1212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무지카비바, 퓨전앙상블 멤버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서혜리 독주회. 이화여자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도미, 신시내티대학교에서 최고연주자과정과 박사과정을 졸업한 서혜리는 미국과 중국, 유럽 등지에서 다수의 독주회와 실내악 연주회를 가져왔으며, 현재는 서울과 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솔로 및 듀오, 앙상블 연주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설/김윤선

2019 부산 오페라 WEEK (재)부산문화회관 오페라 '리골레토'

일 시 10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12일-13일 토-일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VIP 10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19년 부산 오페라 WEEK의 대미를 장식하는 오페라 '리골레토'. (재)부산문화회관이 자체 제작한 오페라 '리골레토'는 연출가 이의주 연출, 지휘자 강석희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로 고성현, 김종표, 박정민(리골레토), 이재욱, 김지호, 전병호(만토바 백자), 강혜정, 박현진(질다), 김요한, 박상진(스파라푸칠레), 손혜은(막달레나), 윤오건(몬테로네) 역을 맡아 극적인 밀도감과 함께 베르디 오페라 특유의 음악적 긴장과 조화를 선사한다.

제3회 용마코러스 정기연주회

일 시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용마코러스 문형준 010-9595-9911



경남고등학교 동문으로 결성된 용마코러스 정기연주회.
지난 2013년 12월 창단한 용마코러스는 매년 정기연주회와 부산 합창제,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 평화음악회, 해군3함대 나라사랑 가족사랑 음악회, 재부 고교동문 연합합창제, 부산사람 이태석 신부 기념음악회 등에 출연했으며, 특히 올해는 제 주국제관악제 경축음악회에 초청을 받는 등 고교 동문 합창단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확실히 했다.

지휘/조성빈 반주/박소미
소프라노/손정은 베이스바리톤/이시원
사회/박시현

에클라 피아노 트리오 with Romantic Autumn

일 시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 의 에클라 피아노 트리오 010-8272-5306



각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주영, 첼리스트 김나래, 피아니스트 하승경으로 구성된 에클라 피아노 트리오 창단연주회.
그동안 월드브리지 오케스트라와 협연, 부산 시민회회관 장애인 음악회, 부산마루극제음악제 부산음악인 시리즈, 금정수요음악회 등 다수 무대를 통해 관객과 소통해온 에클라 피아노 트리오 앞으로 완성도 높은 실내악으로 관객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예정이다.
'에클라(Eclat)'는 '빛의 조각, 열정' 등을 뜻하는 사전적 의미처럼 한 조각의 음(Tone)까지 열과 성의를 다 해서 연주하겠다는 연주자들의 의지를 담고 있다.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제46회 정기연주회 사랑나눔음악회

일 시 10월 13일 일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 의 UKO 988-3087



지난 2006년 소아암, 심장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 환자들을 돕기 위해 결성된 UKO는 2006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미국 코리안타운 유스 커뮤니티센터 초청연주회, 중국 강소성 연주회, 한-뉴질랜드 수교 50주년 기념음악회(오클랜드, 웰링턴), 오스트리아 초청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특히 유코는 그동안 연주회 티켓 판매액 전액을 기부하면서 200여명의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의 꺼져가는 생명을 살린 바 있다.

지휘/이동신
테너/김준원 소프라노/김아름

## 제37회 부산창작관악축제

**일 시** 10월 14일-15일 월-화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한국관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 010-6505-5689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관악합주단을 초청, 무대연주 기회를 제공하고 관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부산창작관악축제 2019년 무대.

지난 1974년 한-일 친선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가져온 부산창작관악축제는 지난해 창작관악곡까지 음악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부산관악축제에서 부산창작관악축제로 명칭을 바꾸고 한국관악의 예술적 발달과 부산음악의 저변확대에 힘써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지역 관악합주단이 참가한 가운데 웅장하면서도 화려한 관악의 향연을 펼친다.

## 뉴프라이م 오케스트라 제34회 정기연주회

**일 시** 10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뉴프라이م 오케스트라 010-5468-4658



2006년 창단된 후 힘이 넘치는 웅장하고 화려한 사운드로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뉴프라이م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뉴프라이م 오케스트라는 지난 2007년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대중상 영화제 개막식 연주, 부산바다축제 열린음악회, 울산UBC 10주년 기념음악회, 국제신문 유콘서트, 울산시교육청 찾아가는 방과후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예술감독 임종오가 지휘하고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 교수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작곡가 하순봉의 창작곡을 비롯해 가을의 서정에 어울리는 브루흐, 차이콥스키 곡을 들려준다.

## 2019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정기연주회

**일 시** 10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510-1747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재학생들이 들려주는 2019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정기연주회.

김진연 교수가 지휘하는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오케스트라와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협연자들이 그동안의 음악수업을 되돌아보는 열정적인 무대를 펼친다.

### 프로그램

최한희/Composition 'Desire behind the shadow'

바흐/피아노 협주곡 제2번 마장조 BWV. 1053  
 바시/베르디의 '리콜레토' 모티브로 한 환상협주곡  
 김동진/신아리아  
 베토벤/교향곡 제7번 가장조 작품 92 등

- 지휘/김진연
- 작곡/최한희
- 피아노/신해리
- 클라리넷/이지성
- 소프라노/박소영

## 제32회 부산합창제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일 시** 10월 21일-24일 월-목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6



합창을 사랑하는 아마추어 합창단 51개팀이 참가하는 제32회 부산합창제.

### 21일 참가팀

신라시니어스콰이어 (지휘/이은정, 반주/남현숙)  
 예그리나합창단(지휘/강종철, 반주/이현숙)

남구시니어합창단 지휘/박성수, 반주/김미경)  
 해운대노노합창단 지휘/고봉수, 반주/강수)  
 남부산농협 청솔합창단(지휘/강학운, 반주/손혜진)  
 강서여성합창단(지휘/박언수, 반주/이진희)  
 부산브라보아버지합창단(지휘/이기환, 반주/구화진)  
 성산콰이어(지휘/김석중, 반주/최승희)  
 에버그린코러스(지휘/이정철, 반주/이경미)

펠리체합창단(지휘/이재란, 반주/이아름)  
 부산광역시공무원합창단(지휘/오동주, 반주/김경미)  
 글로리콰이어(지휘/이정철, 반주/박성미)  
 갈멜합창단(지휘/구영립, 반주/김임경)

### 22일 참가팀

부산대학교평생교육원 경헌Happy Choir(지휘/이외근, 반주/김은경)  
 경남여고수정합창단(지휘/조익래, 반주/김은실)  
 부산은파합창단(지휘/이홍길, 반주/엄혜경)  
 모래톱합창단(지휘/이정란, 반주/김경혜)  
 만다라콰이어(지휘/이순희, 반주/박미음)  
 루보체레아디스싱어즈(지휘/권영기, 반주/조미영)  
 금빛합창단(지휘/권영옥, 반주/양진경)  
 부산진시장여성합창단(지휘/김성훈, 반주/박은정)  
 해운대소리합창단(지휘/이현성, 반주/전해란)  
 무지개합창단(지휘/최인숙, 반주/박송이)  
 부산울산원음합창단(지휘/이은정, 반주/조은지)  
 뮤즈콰이어(부산대학교합창단 OB합창단)(지휘/김성복, 반주/조아라)

### 23일 참가팀

한국건강대학교 온 합창단(지휘/이은정, 반주/남현숙)  
 부산여고동백합창단(지휘/조현수, 반주/이소진)  
 BTN불교TV여성합창단(지휘/문정재, 반주/구화진)  
 정관여성햇빛합창단(지휘/권영기, 반주/전미리)

해운대NH여성합창단(지휘/이재란, 반주/이아름)  
 복스양상블(지휘/이철성, 반주/김효성)  
 금성하모니(지휘/손옥, 반주/김주리)  
 붓다보이스합창단(지휘/이찬우, 반주/이찬우)  
 부산와인스쿨 나눔행복 합창단(지휘/권영기, 반주/김경미)  
 현대나르시어합창단(지휘/이경선, 반주/엄혜경)  
 부산사대부고동문합창단(나시나노)(지휘/채범석, 반주/김보혜)  
 부산하모니합창단(지휘/김강규, 반주/김민선)

### 24일 참가팀

부산중구시니어코러스(지휘/이은정, 반주/조은지)  
 부산CBS콰이어(지휘/이외근, 반주/김은경)  
 영도구립여성합창단(지휘/김민지, 반주/김혜민)  
 센텀합창단(지휘/이철성, 반주/박재나)  
 예그린합창단(지휘/손옥, 반주/이영숙)  
 부산여성합창단(지휘/김성복, 반주/전미리)  
 나눔애사랑 합창단(지휘/이은정, 반주/남현숙)  
 부산진구남성합창단(지휘/강경원, 반주/주은정)  
 부산로즈콰이어(지휘/정승원, 반주/강미)  
 에체르콰이어(지휘/김민준, 반주/배미나)  
 느티나무합창단(지휘/윤풍원, 반주/조은지)  
 부산라이온스콰이어(지휘/손옥, 반주/이영숙)  
 클라세콰이어(지휘/임미진, 반주/최윤경)



### 제22회 오륙도 평화음악회

**일 시** 10월 18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광역시 남구문화원 010-9287-6350



부산의 상징인 오륙도와 천혜의 주변 환경을 널리 알리고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누구나 함께 즐기며 화합하는 제22회 오륙도 평화음악회.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회 음악회가 주최하고 남구문화원이 주관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지역 성악가들과 해파랑합창단, 무지카비바앙상블이 출연, 국내외 가곡 및 유명 오페라 아리아 등 우리 귀에 친숙한 곡을 들려준다.

- 소프라노/정태미, 양근화
- 테너/강학윤, 박천수
- 바리톤/하병욱, 박찬

###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58회 정기연주회

**일 시** 10월 21일~22일 월-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부산피아노듀오협회 010-5044-5320, 010-4242-8902



지난 1990년 창단 이후 피아노 듀오음악의 연구, 보급 및 젊고 역량 있는 신인들의 데뷔 무대를 만들어온 부산피아노듀오협회의 정기연주회.

부산피아노듀오협회는 매년 두차례 정기연주회를 통해 피아노 듀오음악의 진수를 선보이고 있다.

- 21일 연주/이소진, 표세규, 심하정, 김영실
- 22일 연주/박윤정&이문숙, 김은주&장호진, 김미진&김미연, 조혜영&최정윤, 이현욱&김경진, 서혜리&김효정&송정은&김유진, 하승경&김미희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5회 정기연주회 부산 신사

**일 시**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깊어가는 가을의 서정을 들려줄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5회 정기연주회 '부산 신사'.

최수열 예술감독이 지휘하고 독일 뒤셀도르프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으로 있는 첼리스트 김두민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아름다운 선율 속에 낭만성과 서정성이 가득 담긴 엘가의 '첼로 협주곡'과 가을의 서정과 잘 어울리는 낭만주의 작곡가 브람스의 '교향곡 제1번'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엘가/첼로 협주곡  
 브람스/교향곡 제1번

### 제9회 정승찬 플루트 독주회

**일 시**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아트락 010-5468-4658



현재 부·울·경 플루트 연주회 상임이사, 인터내셔널 플루트 콰이어, 오케스트라 채움 음악감독이자 고신대학교 음악과 초빙교수로 있는 플루티스트 정승찬 독주회.

고신대학교 음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부르크엔란트 주립음대(하이든 시립음악원), 빈 시립음악대학을 졸업한 정승찬은 그동안 독주회를 비롯 미국 및 오스트리아 초청연주, 앙상블, 협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피아노/김현경
- 플루트/한유주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2

**일 시** 10월 27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3110~1



미래의 촉망받는 젊은 음악인을 발굴, 다양한 경험과 비전을 제시하며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그동안 담아온 기량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유망주 음악회' 두 번째 무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기회를 갖는 솔리스트들의 축제와는 다른 실내악 무대로, 음악활동을 함께 해온 단원들이 의기투합해 새로운 장르의 실험적인 실내악 무대에 도전한다.

특히 다양한 구성의 앙상블 무대와 독주악기로 자주 만날 수 없는 더블베이스, 트롬본의 매력적인 선율을 만날 수 있다.

**프로그램**

사라사테/두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나바라 작품 33

바흐/두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콘체르토 라단조 카터 판/엘토 색소폰과 베이스 트롬본을 위한 듀오 헤르만/3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카프리치오 작품 2 말콤 아놀드/베이스 5중주 제1번 작품 73 슈베르트/8중주 바장조 작품 166 D. 803 등 수곡

- 지도/이영근(수석지휘자)
- 바이올린/김선영, 최예린, 강운선, 최어진, 최한솔, 차희주 이소정, 김유경
- 비올라/김초롱
- 첼로/이현아
- 더블베이스/하승연
- 플루트/엄경민
- 피아노/최우림
- 클라리넷/공경빈
- 바순/김가원
- 호른/김가원, 최희진(호른)
- 트럼펫/김채희, 한윤승
- 트롬본/염다운, 김성준
- 튜바/김정훈

## 그랑발레 정기공연 4seasons of Busan

**일 시** 10월 27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문 의** 그랑발레 010-8510-4784



경성대학교 발레전공 동문들로 결성된 그랑발레 정기공연.

지난 1992년 창단된 후 올해로 창단 28주년을 맞는 그랑발레는 클래식발레에서부터 창작발레까지 다양한 공간과 형태를 활용한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부산의 사계절’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안무가들의 협업으로 부산의 계절이 주는 이미지를 각자 해체하여 재해석한 프롤로그 ‘accumulation’, 겨울 ‘순환’, 봄 ‘농도질음’, 여름 ‘여름파업’, 가을 ‘발하고 발하다’, 에필로그 등 6개의 작품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선보인다.

## 2019 멜로매니아 정기연주회

**일 시** 10월 29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 의** 멜로매니아 010-3570-3717



지난 1994년 결성된 아마추어 남성 성악가들의 모임 멜로매니아의 2019년 정기연주회. 뒤늦게 성악을 공부하며 새롭게 음악인생을 시작한 멜로매니아 단원들은 전문성악가 못지않은 실력과 음악사랑으로 다양한 활동들

펼치고 있다. 멜로매니아는 이번 무대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친근한 가곡과 아리아를 독창과 중창으로 들려준다.

- 테너/도용복, 원오한, 정경일
- 바리톤/한성권, 배태균, 송은섭
- 보컬 트레이너/박광하
- 피아노/이승윤
- 협연/멜로매니아 앙상블

## 오페라 갈라 콘서트 푸치니가 사랑한 여인들

**일 시** 10월 30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 의** 부산문화 1600-1803



베르디 이후 이탈리아가 낳은 최대의 오페라 작곡가이자 사실주의 오페라의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 한명인 푸치니의 대표적인 오페라 아리아로 꾸미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 ‘푸치니가 사랑한 여인들’.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엄남이, 김유진, 정혜리, 박현진, 이정신, 류지은, 전지영과 테너 장신권, 이광순, 김달진, 김준연이 출연, 오페라 ‘라보엠’, ‘투란도트’, ‘토스카’ 등 푸치니의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특히 해설자인 테너 장신권이 200여년 전 푸치니 복장을 하고 나와 해설을 통해 오페라에 대한 관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 예술감독/손정희
- 피아노/박은순, 최승희

##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합창단 119사랑 음악회

**일 시** 10월 30일 수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760-3053



지난 2017년 6월, 전국 의용소방대 최초로 창단한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합창단의 ‘119사랑 음악회’. 이번 무대에서는 2019년 부산 119 어린이 동요대회에서 초등부 대상을 받은 동래구 남문초등학교 합창단, 색소포니스트 윤여민의 특별출연으로, 소방가를 비롯해 가곡, 대중가요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단장/문병기(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장)
- 지휘/박미경
- 반주/윤민화

## 문화가 있는 날 특별 콘서트 20세기 재즈와 탱고

**일 시** 10월 30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무료  
**문 의** (주)세실예술기획 02-543-6752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보경, 이영은이 마련하는 문화가 있는 날 특별 콘서트.

맨하탄 피아노 앙상블을 창단, 함께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보경, 이영은은 고전에서부터 낭만, 현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로 다양한 협업무대를 가져왔다.

관객과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피아노 음악의 깊은 아름다움을 함께 하고자 마련된 이번 무대에서는 일반인들이 쉽게 공감하고 영감을 받을 수 있는 20C 재즈와 탱고 클래식 음악을 1 piano 4 hands로 들려준다.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3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선정 공연시리즈 2 공존(共存):자연 그리고 인간

**일 시** 10월 31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선정을 위한 특별한 무대 ‘거장들의 다채로운 무대 프로젝트’ 두 번째 무대 ‘공존(共存):자연 그리고 인간’.

전 중앙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를 역임한 박상후 지휘자가 객원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나라의 산과 바다, 그리고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는 작곡가 김성국, 김창환, 임희선, 김성경의 작품을 들려준다.

- 객원지휘/박상후
- 객원출연/이기진, 정혜민(콘트라베이스)

제56회 향신회 작곡발표회  
왼손 피아니스트와 함께하는  
'소리 너머의 소리'

일 시 10월 31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의 향신회 010-9902-3549



부산의 대표적인 현대 음악 작곡모임인 향신회의 56번째 작곡발표회. 독일과 미국에서 활동을 하던 중 뇌졸중으로 인한 전신 마비를 겪었지만, 불굴의 의지와 꾸준한 재화를 통해 실의를 딛고 일어난 왼손 피아니스트 이훈 선생과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로, 작곡가 박선혜, 권유미, 김도희, 김윤희, 김지은, 노선경, 문지은, 방희연, 백용주, 백은숙, 이유희, 전옥용, 진소영, 홍윤경의 창작곡을 들려준다.

- 연주/피아노 이훈, 서혜리, 플루트 유주영, 클라리넷 유지훈, 바이올린 손은혜, 정아람, 비올라 윤솔샘, 첼로 김나래, 메조소프라노 한현미

박소현 해설이 있는 바이올린, 비올라 독주회  
알고 나면 쓸데 많은 신나는 클래식

일 시 11월 2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바이올리니스트 겸 비올리스트이자 클래식 전문 강연자, 칼럼니스트인 박소현이 해설과 함께 마련하는 '알고 나면 쓸데 많은 신나는 클래식' 두 번째 무대. 부산예고 재학 중 오스트리아로 유학, 비엔나 국립음악대학교, 린츠 국립음악대학교 연주자 학사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린츠 안톤 브루크너 음악대학교 바이올린 교수법 학사 졸업, 그라츠 국립음악대학교 비올라 전문연주자 및 교수법 학사과정을 이수한 박소현은 이번 무대에서 '사랑의 모양'이라는 부제로 늦가을 정취에 잘 어울리는 곡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 피아노/김은정      소프라노/신민원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유럽의 대표 남성현악5중주  
'볼로시' 앵콜공연

일 시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VIP석 5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만 4세 이상 입장,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유럽을 대표하는 남성현악 5중주 '볼로시(Volosisi)' 앵콜공연. 지난해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린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을 통해 부산시민과 첫 만남을 가진 '볼로시'는 그 당시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10년 데뷔한 후 2017년 세계적인 마켓 위맥스(World Music EXPO)의 개막식 무대에 서는 등 유럽 전역에서 평단의 지지와 대중의 사랑을 동시에 받아온 볼로시는 그동안 클래식은 물론 재즈와 록, 팝, 집시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음악으로 관객을 사로잡아왔다.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BWPO)  
더 클래식, 아시아의 창

일 시 11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무료(홈페이지 www.knn.co.kr를 통해 초대권 신청)  
문의 KNN 850-9568



음악을 통해 부산을 알리고, 부산이 세계음악의 중심지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마련된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더 클래식, 아시아의 창'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지난 2009년 유럽과 미국, 러시아 등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산, 경남 출신의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후 지역문화 예술발전과 문화의 저변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무대에서는 부산 출신으로, 지난 2007년 보스턴심포니오케스트라 137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지휘자로 임명되면서 세계적 지휘자로 발돋움한 지휘자 성시연이 지휘하고 불가리아를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스베틀린 루

세브의 협연으로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4번을 들려준다. 협연자 스베틀린 루세브는 지난 2006년 불가리아 '올해의 음악가' 선정, 2007년 불가리아 최고연주자에게 수여하는 '크리스탈 리라'를 수여 받는 등 불가리아를 대표하는 음악인이자 지휘자 정명훈이 지휘하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서울시립교향악단 악장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해왔다.

- 프로그램 시벨리우스/바이올린 협주곡 차이콥스키/교향곡 제4번
- 지휘/성시연
- 협연/스베틀린 루세브(바이올린)
- 연주/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2019 시민뜨락축제

일 시 9월 20일(금)-10월 25일(금) 매주 금요일 오후 12:20 야외광장  
입장료 무료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2-5000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가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마련한 대표적인 야외무대축제 '2019 시민뜨락축제'는 지난 2017년 매년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부산시민들과 만나왔다.

- 10월 4일(금) 빛주(재즈), 부산 세레나데(뮤지컬 퍼포먼스)
- 10월 11일(금) 부산시립합창단(합창),
- 10월 18일(금) Project 광어(무용), 트락(퓨전국악)
- 10월 25일(금) 퍼스트 클래식(성악), 남성현악5중주 볼로시(월드뮤직)



음악 | Music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9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2일(제701회) 아라온 목관오중주 제2회 정기연주회**

플루티스트 신승민, 오보이스트 차시현, 클라리네티스트 류예린, 바수니스트 안희진, 호른니스트 강민주로 구성된 아라온 목관오중주와 피아니스트 문정재

의 앙상블이 어우러지는 금정수요음악회 701번째 무대.

**16일(제702회) 김민정 피아노 독주회 '내 삶의 루바토'**

미국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예비학교와 보스턴 대학교 학사 및 석사과정, 노스텍사스대학교 박사

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김민정 독주회. 쇼팽 서거 170주년을 기념해 마련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쇼팽 '녹턴' 작품 48, '마주르카' 작품 17, '폴로네이즈' 작품 53과 피아노 협주곡 제1번 작품 11을 들려준다.

**23일(제703회) 앙상블 라이덴샤프트 제4회 정기 연주회 'Modern Times'**

클라리네티스트 유지훈, 플루티스트 장예지, 피아니스트 진승민, 유혜진으로 구성된 앙상블 라이덴샤프트는 이번 무대에서 드뷔시를 비롯해 말콤 아놀드, 귀음 코네송, 폴 힌펠드 등 현대작곡가들의 곡을 들려준다.



**30일(제704회) 코리아 윈드 콘서트 연주회**

차별화된 무대로 목관 앙상블의 매력을 전해 온 코리아 윈드 콘서트의 무대.

독일의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서거 70주년을 맞아 마련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필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 작품 28, 관악기를 위한 심포니 '해피 워크숍' 등 그의 작품을 목관앙상블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제4회 부산 솔로이스츠 앙상블 정기연주회 시그니처 콘서트 4 '영감' with 정준화**

**일 시** 10월 6일 일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부산 솔로이스츠 앙상블 010-8524-0069



2015년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동문연주자들로 결성된 부산 솔로이스츠 앙상블의 네 번째 정기연주회.

멤버 개인의 색채가 어우러지면서도 조화로운 앙상블을 추구하는 부산솔로이스츠앙상블은 그동안 다양한 편성으로 정통 클래식 뿐만 아니라 타 장르와의 크로스오버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들려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관악단 악장 정준화와 함께하는 시그니처 콘서트 네 번째 무대로, 모차르트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로시니 '클라리넷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서주와 주제와 변주' 등을 들려준다.

**작곡그룹 An-ti Stimmung 제19회 작품발표회**

**일 시** 10월 7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작곡그룹 An-ti Stimmung 017-568-2687, 0110-8212-0222



매년 새로운 주제의 창작곡을 통해 현대음악과 청중 사이의 소통을 시도해온 작곡그룹 안티스티뮴(AntiStimmung)의 19번째 창작곡 발표회. 이번 무대에서는 작곡그룹 An-ti Stimmung 대표인 조희주(부산대학교 명예교수)를 비롯

해 작곡가 정지영(한세대학교 교수), 진소영(동아대학교 교수), 황선영(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박기섭(대구교육대학교 교수), 주창근(부산전자음악협회 회장), 진영민(경북대학교 교수), 정수란(부산대학교 교수)의 창작곡을 만날 수 있다.

**2019 MiOT 제22회 정기연주회 건반음악 오늘까지**

**일 시** 10월 8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MiOT 701-1584, 010-6566-1584



지난 1997년 작곡가 강순희를 주축으로 현대 음악을 연구하고 알려진 MiOT(Music in Our Time-우리시대음악)의 22번째 무대.

음악문화사를 통틀어 가장 친근하면서도 널리 보급된 피아노(건반악기)를 주제로, 다성음악의 대위법적 기법에서 절정을 이룬 바흐의 '푸가'를 시작으로 고전시대, 낭만시대를 거쳐 현대음악까지 건반악기의 역사적 변화를 작품을 통해 감상해본다.

- 총감독/강순희
- 연주/피아니스트 김진희, 이현옥, 이경아, 박유미, 김민정, 최혜련, 김영실

**제14회 우리 시 우리 노래 아름다운 부산을 노래하다**

**일 시** 10월 10일 목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한국창작가협회 323-8575, 010-5541-8576



우리 정서에 맞는 우리 가곡을 보급하기 위해 뜻을 함께한 시인, 작곡가, 성악가들로 결성된 한국창작가곡협회(회장 김성덕)가 들려주는 제14회 우리 시 우리 노래.

이번 무대에서는 제1부 그리운 추억, 제2부 애틋한 사랑, 제3부 내일의 희망이라는 부제로 독창, 여성합창, 남성합창, 혼성합창 등 다양한 창작곡을 들려준다.

- 작곡/강영화, 권유미, 김성덕, 김정란, 김성희, 노순덕, 심순보, 전세용, 이강산, 이성훈, 이옥영, 정규현, 이태현, 우덕상, 이주애, 조혜진, 정혜옥, 천득우, 허연숙

기타공연장

제8회 바리톤 고훈수와 함께하는  
가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을 음악회

**일 시**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 우리가곡 부르기 010-4434-6605



바리톤 고훈수와 경향 아카데미 가곡반, 이마트 금정점 가곡반, 해운대 시립도서관 가곡반, 중앙동 40계단 가곡교실 회원들이 함께하는 가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을 음악회.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신정순, 해운대 노노(No, 老)합창단, 해운대 장산 청춘합창단의 특별출연으로 깊어가는 가을의 서정을 노래한 아름다운 우리가곡을 들려준다.

- 출연/바리톤 고훈수, 피아노 김아영, 강수민, 해운대 시립도서관 가곡교실, 부산대학교 경향 아카데미 가곡교실, 이마트 금정점 가곡교실, 중앙동 40계단 가곡교실

소리로 그리는 한국가곡

**일 시**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인터파크티켓 예매시 30% 할인)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을숙도문화회관이 부산성악가협회와 함께 우리가곡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고 폭넓은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한 무대.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등 파트별 성악가 23명과 연극배우, 그리고 시 낭송이 어우러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가을을 소개하는 '비가'를 시작으로 겨울의 '동심초', 봄의 '어느 봄날', 그리고 여름의 '명태' 등 계절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곡을 통해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한 스토리가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 출연/부산성악가협회(대표 김지호), 연극배우 이창원, 네오필 현악앙상블, 김말숙(시낭송)

정주연 10번째 플루트 리사이틀  
Flute, be with you

**일 시** 10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아트뱅크크레아 442-1941



KNN 방송교향악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 중인 플루티스트 정주연 독주회. 미국 듀케인음대에서 철학, 미술, 사회학, 종교학 등 다양한 학문을 수학하며 석사학위를 취득한 정주연은 정주연은 부산예고 재학 시절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했으며 부산시립교향악단, 로얄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한 바 있다.

현재 부산교육대학교 및 대학원, 부산대학교에 출강하며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는 정주연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독주회를 가져오고 있다.

2019 영화의전당 10월 마티네콘서트  
푸디토리움의 시네마 브런치 시즌2  
그리고 슈만이 답하다

**일 시**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커피 무료 제공)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영화음악감독 푸디토리움과 함께하는 영화와 영화음악 이야기 '푸디토리움의 시네마 브런치' 두 번째 시즌. 푸디토리움(김정범)이 진행하는 시네마 브런치 10월 무대에서는 영화 '클라라' 속 클라라의 이야기와 함께 슈만의 음악과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프로그램

- 슈만/피아노와 현을 위한 4중주 작품 47
- 슈만/피아노와 현을 위한 5중주 Op 44
- 연주/피아노 콰르텟(바이올린 임홍균, 송혜림, 비올라 이신규, 첼로 전민수, 피아노 문정재)

해운대문화회관 특별기획공연  
별의 노래, 신화 속 하프 이야기

**일 시** 10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1층 1만원, 2층 5천원  
**문의**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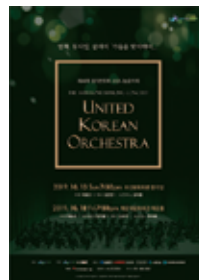
하프 앙상블의 매력을 널리 전하고 하프 음악의 보급을 위해 코리안 심포니 하피스트 윤혜순을 중심으로 창단한 앙상블 '더 하프(The Harp)'의 무대.

앙상블 '더 하프(The Harp)'는 지난 2014년 창단된 후 그동안 정기 연주회, 초청연주회, 신나는 예술여행 전국투어공연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낯설고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하프에 대한 경계를 허물고 관객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 해설, 리더/윤혜순
- 하프/윤혜순, 김영립, 권민지, 최미래
- 타악기/박혜령
- 오보에/임연애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제46회 정기연주회  
사랑나눔음악회

**일 시** 10월 18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UKO 988-3087



음악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UKO)의 정기연주회.

지난 2006년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을 중심으로 경남지역의 전문 연주자들로 결성된 유코는 그동안 연주회 티켓 판매액 전액을 기부하면서 소아암, 심장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 환자 200여명의 꺼져가는 생명을 살린 바 있다.

- 지휘/이동신
- 바이올린/임재홍
- 테너/김준원
- 소프라노/김아름

## 2019 F1963 Music Festival

**일 시**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5:00 F1963 석천홀  
**입장료** R석 4만원, S석 3만원  
**문의** F1963 760-2604



참신한 아이디어와 재치 넘치는 해설로 청중과 더 가깝게 소통해온 지휘자 금난새와 젊은 실력파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F1963 Music Festival'.

음악감독 금난새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2017 한국기타협회 전국기타콩쿠르 마스터부문 1위 입상자인 기타리스트 서유덕을 비롯해 피아니스트 안소렴, 트럼펫 고형민 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연주자들이 출연,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 음악감독, 지휘/금난새
- 기타/서유덕
- 피아노/안소렴
- 트럼펫/고형민
- 연주/뉴월드챔버오케스트라

## 제8회 을숙도 창작음악축제

**일 시** 10월 23일-25일 수-금요일 오후 8:00, 26일 토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05



문화예술 발전의 기반이 되는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의 예술가를 발굴 및 육성하고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제8회 을숙도 창작음악축제.

- 23일(수)** 향천회 'Piano를 위한 밤 I'
- 24일(목)** Swiss In Hyang Cheon 'Piano를 위한 밤 II'
- 25일(금)** 작곡모임 임태 '합창&가곡 세 남자의 합창 이야기'
- 26일(토)** 부산작곡가협회 '실내악의 밤'

## 클라라 슈만 탄생 200주년 기념음악회 FOR THE LOVE OF CLARA

**일 시** 10월 22일(화), 24일(목), 11월 1일(금)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클라라 슈만 탄생 200주년을 맞아 아트뱅크코리아가 마련한 특별한 무대 'FOR THE LOVE OF CLARA'.

피아니스트 박유미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음악가들이 출연, 클래식 음악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클라라 슈만과 로베르트 슈만, 그리고 요하네스 브람스의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이야기를 3일간의 음악여행 속에 그려낸다.

### 10월 22일 클라라의 피아노

부산,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성적인 피아니스트 김은정, 김미현, 김세희, 박유미, 이윤지, 천슬기

## 트리오 레자미 5번째 정기연주회

**일 시**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부산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 장재혁, 전주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 김근혜 그리고 국립 창원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김미현으로 구성된 트리오 레자미 정기연주회.

'레자미(Les Amis)'는 프랑스어로 '소중한 친구들'이라는 뜻으로, 음악적 열정을 모아 같은 곳을 바라보며 음악을 함께 하자라는 의지를 담고 있다. 지난 2016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부산, 창원 등지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트리오 레자미는 이번 무대에서 로버트 칸의 클라리넷 트리오, 윌헬름 베르거의 클라리넷, 첼로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를 들려준다.

가 출연, 당대 최고의 여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클라라 슈만의 숨겨진 보물인 피아노곡들을 들려준다.

### 10월 24일 사랑과 우정

클라라 슈만의 조언을 얻어 완성한 '피아노 5중주'를 통해 가을 남자, 젊은 브람스를 만날 수 있으며 슈만의 가곡 '시인의 사랑', '혼과 피아노를 위한 아다지오와 알레그로', 클라라 슈만의 '3개의 로망스'가 연주된다.

- 연주/강민주(혼), 박정희(피아노), 이은옥(바이올린), 성민주(피아노), 조윤환(테너), 권준(피아노), 김주영(바이올린), 이종은(바이올린), 김규(비올라), 김민승(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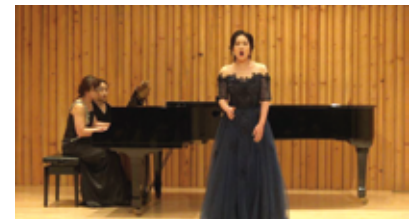
### 11월 1일 클라라와 로버트

슈만과 클라라의 작품을 집중 조명해보는 무대로, 특히 클라라의 단 하나뿐인 피아노3중주곡을 피아노 트리오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피아체 트리오의 감성적인 해석으로 감상할 수 있다.

- 연주/이일세(첼로), 박지은(피아노), 권준(피아노), 정은미(소프라노), 박유미(피아노), 박정희(피아노), 조무중(바이올린), 정윤희(첼로)

## 글로벌전국음악콩쿨 수상자 축하음악회

**일 시**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5: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초대  
**문의** 글로벌아트홀 505-5995



대한민국 음악인재의 등용문 글로벌전국음악콩쿨 수상자들이 펼치는 축하무대 '글로벌전국음악콩쿨 수상자 축하음악회'.

콩쿠르 전체대상수상자인 양수빈(서울대학교 성악과 2학년)을 비롯해 각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미래 음악가들의 축하연주가 펼쳐진다. 특히 연주자들의 녹음음원은 벅스, 멜론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 등재된다.



기타공연장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오! 나의 대한민국

**일 시** 10월 27일 일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 749-6044,  
010-6661-4838



해운대구 지역 초등학교, 중학생들로 구성된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마련하는 제28회 정기연주회. 지난 1999년 7월 창단된 후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18 부산국제합창제 청소년

부문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오 나의 대한민국'이라는 테마로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 지휘 권영기
- 반주/이정원, 김민희
- 모듬북/고석진
- 타악기/이영훈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와인 콘서트

**일 시** 10월 29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5천원(커피 제공)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3



금정문화회관이 격월로 마련하는 브런치 콘서트 10월 무대 '와인 콘서트'. 와인 소믈리에와 클래식 가이드와 유쾌한 수다를 통해 4개국의 와인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남미의 음악을 만날 수 있는 이번 무대에서는 중앙일보 주최 와인 컨슈머리포터 전문가 패널인 소믈리에 장홍과 현악연주팀 '안형수 콰텟'가 출연, 예술감독 김이곤의 해설과 함께 와인처럼 흥미 깊은 무대를 선사한다.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악아카데미  
제6회 정기연주회

**일 시** 10월 29일 금요일 오후 7: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입장료** 무료  
**문의** 강학윤 010-9287-6350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악아카데미 수강생들이 마련하는 제6회 정기연주회. 성악가 강학윤의 지도로 음악수업을 받아온 수강생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 아리아를 들려준다.
- 지도교수/강학윤
  - 피아노/주은정
  - 소프라노/박성애, 김순희, 박순희, 이명희, 서장희, 김보경
  - 테너/박상천, 양수배
  - 바리톤/박인재
  - 연주/워드앙상블(바이올린 김상희, 정다혜(첼로 윤성민, 유원욱))

연극 | Play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  
제10회 짜장콘서트

**일 시** 10월 31일 목요일 오후 7:00(오후 6시부터 짜장면 먹기) 음악풍경 연습실  
**입장료** 참석비 1만원(사전 예약)  
**문의** 음악풍경 987-5005



콘서트가 열리기 한시간 전인 6시 근처 중국집에서 연주자와 관객이 함께 짜장면을 시식하고 공연 뒷풀이를 통해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마련하는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의 이색 콘서트 '짜장콘서트'. 이번 무대에서는 (사)경상도민요보존회 대표 최윤영, 수음앙상블 리더이자 프로뮤지카 전석 피아니스트 정은희 씨가 출연, 국악과 양악의 이상적인 만남을 펼쳐보인다.

- 진행/이진아

코믹연극 달동네

**일 시** 5월 25일(토)-10월 31일(목)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9/13일, 9/17일 공연없음) 용천지탈소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극단 바라 1600-1716



어렵고 힘들었지만 사랑이 있었던 그때 그 시절 달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연극 '달동네'. 월남전 참전 중 행정착오로 전사자 처리된 아버지의 잘못된 전사자 통지를 받은 가족들은 부산 달동네로 이사를 오고 풍족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달동네 사람들과 희망을 잃지 않으며 살아간다. 전쟁 중 심한 화상으로 한국에 돌아온 아버지는 전국을 헤매다가 가족들을 만나지만, 가족들은 화상으로 얼굴을 잃어버린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국민연극 라이어 1탄

**일 시** 5월 31일(금)-10월 2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 8:00, 일·공휴일 오후 1:00, 4:00(월요일 공연없음, 추석연휴 공연시간 확인) KNN시어터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주)디오르골씨어터컴퍼니 664-7880



지난 1999년 초연 이후 누적 관객 600만명을 돌파한 국민연극 '라이어 1탄'. 평범한 택시기사 존 스미스가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2명의 부인 메리와 바바라를 두고 철저한 이중생활을 하는 내용으로, 기막힌 거짓말을 통해 속고 속이는 인간사를 통쾌하게 풀어냈다. 특히 빠른 전개와 더불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속에 예측할 수 없는 반전으로 단순한 코미디극을 뛰어넘는 흥미진진함을 선사한다.

## 연극 날라리 마형사

**일 시** 6월 6일(목)-12월 1일(일) 평일 오후 5:00, 7:30, 토요일 오후 3:00, 5:30, 8:00, 일공휴일 오후 2:30, 5:00, 7:3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전석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세상에서 제일 예리한 형사의 코믹 잠입수사극 '날라리 마형사'. 좌천될 위기에 놓인 마형사는 연출가 맹가진 살인사건에 의문을 가지고 '극단 연병임(연기를 병적으로 사랑하는 모임)'에 막내단원으로 잠입에 성공한다.

마형사는 허당미를 발산하며 연출가 맹가진과 여러 사건으로 얽히고 설킨 단원들을 수사하기 시작하는데, 과연 날라리 마형사는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 코미디극 불편한 타이밍

**일 시** 8월 29일(목)-10월 2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3:30, 6:3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불청객 친구들이 벌이는 코믹 황당 소동극 '불편한 타이밍'.

와이프가 친정에 간 틈을 타 친구들을 집에 초대한 정민, 광란의 밤을 보낸 후 다음날, 집주인 정민이 사라지고 친구들 앞에 나타난 것은 시체와 정체모를 여자, 그리고 조폭까지...

어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연극 '불편한 타이밍'은 오랜만에 만난 세 친구가 광란의 파티를 벌인 후 벌어지는 황당한 상황과 사라진 친구를 찾기위해 기억을 되짚어가는 과정을 코믹한 웃음으로 그려냈다.

## 뮤직드라마 맛의 기억

**일 시** 9월 10일(화)-10월 2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부산메트로홀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주)플레이 더 부산 1600-0316



특별한 집밥을 통해 감성을 채워주는 단짠 단짠 오감만족 연극 '맛의 기억'.

우연히 바다에서 만나 윤희와 명훈, 명훈은 사소한 일들로 계속 윤희와 엮이게 되고 이로 인해 마음을 열게된 윤희는 대뜸 명훈에게 집밥을 먹게 해달라고 조르는데...

윤희와 명훈의 맛의 기억은 무엇이며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연극 '맛의 기억'은 사람의 감각 중에서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미각, 그 '맛의 기억'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과 사랑 그리고 잊고 살았던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을 전해준다.

## 2019 나는 연출이다

**일 시** 10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5일-6일 토요일 오후 4:00 청춘나비아트홀

**입장료** 일반 1만5천원, 청소년 1만2천원  
**문의**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연출가의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꿈꾸며 시작된 창작단막극제 '2019 나는 연출이다'.

매년 국내외의 연출가가 참여, 독창적이면서도 실험적인 무대극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온 '나는 연출이다'는 올해 5명의 젊은 연출가들과 함께 새롭고 열정적인 창작무대를 선보인다.

- **연출/최용혁**(부산연극제작소 동북, 아로새긴 연출), **박용희**(공연예술단체 ICONTACT 대표), **김하영**(프로젝트그룸 배우다 상임연출), **권상우**(극단 B급로타리, H.O.W ProjectTeam 연출), **김동현**(극연구집단 시나위 연출)

## 연극 미저리

**일 시** 10월 11일 금요일 오후 8:00, 12일 토요일 오후 3:00, 7:00, 13일 일요일 오후 2:00 부산 드림씨어터

**입장료** R석 7만7천원, S석 5만5천원  
**문의** 공연마루 1588-0766



베스트셀러 작가 '폴 셀던'을 향한 열성팬 '애니 윌크스'의 광적인 집착을 다룬 '미저리'는 현대사회의 병리 현상인 '스토킹'을 주제로 한 정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탄탄한 스토리와 박진감 넘치는 연출로 펼쳐냈다.

특히 처절한 몸부림과 극한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폴 셀던 역의 김상중과 안재욱, 상냥하고 친절한 모습부터 복수를 위한 광기 어린 모습까지 폭넓은 감정 변화를 보여주는 애니 윌크스 역의 김해연과 김성령의 섬뜩하면서도 현실감 넘치는 연기는 객석을 사로잡았다.

## 금정문화회관 기획공연 극단 벼랑끝날다 음악극 '카르멘'

**일 시**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음악과 무용, 미술, 영상 등 전 장르를 총망라한 특별한 음악극 '카르멘'. 지난 2010년 초연된 극단 벼랑끝날다의 '카르멘'은 프랑스 작가 메리메의 원작소설 '카르멘'에 초점을 맞춰 자유에 대한 끝없는 갈망과 비극적 사랑의 파멸을 재

해석한 작품이다. 클래식과 뮤지컬, 연극의 장점들이 시너지를 발하면서 강렬한 무대를 선사하는 '카르멘'은 지난 2011년 거창국제연극제 대상 및 연출상, 2012년 한국공연예술센터 우수레퍼토리시리즈, 2013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공연, 2018년 경기공연예술페스타 베스트 컬렉션에 선정된 바 있다.

기타공연장

두레raum 시네마 낭독극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일 시** 10월 20일 일요일 오후 2: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재)영화의전당과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이 지역주민의 문화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한 두레raum 시네마 낭독극장. '시네마 낭독극장'은 지역 예술가, 지역 예술동아리가 협업, 영화를 기반으로 한 낭독극을 통해 시민예술가들을 양성하고 지속적인 예술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10월 낭독극장에서는 노회경 작가의 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만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가족을 위해 삶을 희생한 한 여자의 일생을 그린 작품으로, 시민 예술가들의 낭독극으로 진행된다.

뮤지컬 '친정엄마'  
10주년 기념공연

**일 시**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3:00, 7:00, 27일 일요일 오후 2:00, 6: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R석 11만원, S석 9만9천원  
**문의** (주)월드쇼마켓 1566-5490



대한민국을 감동시킨 세상의 모든 딸과 엄마를 위한 공감 뮤지컬 '친정엄마'. 뮤지컬 '친정엄마'는 시골에서 어렵게 살아 배울 것 못 배우고 펼칠 것 펼치지 못하고 살아온 '엄마'와 그런 엄마에게 애들함 느끼면서도 마음과 다르게 때론 상처를 주게 되는 '딸'이 주인공으로, 어느덧 결혼해서 아이 엄마가 된 딸이 비로소 친정엄마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국민엄마' 나문희, 김수미가 '엄마'로 출연, 공감과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극단 새벽 연희극 히로시마 메시지

**일 시** 10월 24일(목)-12월 14일(토) 목-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10월 30일, 11월 7일 문화가 있는 날 오후 8:00 공연)  
효로민락소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15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극단 새벽 245-5919



극단 새벽이 창단 35주년을 맞아 마련한 레퍼토리 시리즈 두 번째 무대 '히로시마 메시지'. 홍가이의 '히바쿠샤(피폭자)'를 원작으로 한 '히로시마 메시지'는 한국인 피폭자인 한 여인의 비극적 삶을 통해 강제징용 피폭2세의 이야기

기를 조명하고 있다.  
● 재구성, 연출/이성민 ● 작곡/조익래  
● 작사/이성민

무용 | Dance

발레컬  
후리아 후리아, 윤희신 찾기

**일 시** 10월 4일 금요일 오후 8:00, 5일 토요일 오후 2:00, 5: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05



임진왜란 당시 대대포를 지켰던 다대점사 윤희신 장군을 무대화한 발레컬 '후리아 후리아, 윤희신 찾기'. '발레컬'은 발레와 뮤지컬을 결합한 형태로 스토리가 있는 공연에 발레, 음악, 대사가 함께 하는 종합극이다.

이번 무대는 을숙도문화회관 상주단체인 김옥련 발레단이 우리 지역을 배경으로 한 역사를 통해 지역민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마련한 무대로, 죽음을 불사하고 왜군에 맞서 항전했으나 오늘날 크게 조명받지 못했던 윤희신 장군의 업적을 재미와 감동으로 풀어낸다.

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일 시**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1층 2만원, 2층 1만원(인터파크티켓 예매시 30% 할인)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화려한 브레이크 댄스와 우아한 발레가 만난 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첫눈에 비보이에게 마음을 빼앗긴 발레리나가 자신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비절이 되어가는 과정이 신나는 음악과 화려한 브레이크댄스와 함께 펼쳐지는 이번 작품은 2005년 초연된 후 전 세계 130개국 250만명이 관람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상하이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중국 건국 70주년 기념  
댄스드라마 '쭈환'  
- 따오기, 朱鷲, Crested Ibises

**일 시** 10월 8일 화요일 오후 7:00, 9일 수요일 오후 4:00 드림씨어터  
**입장료** R석 18만원, S석 12만원, A석 8만원, B석 4만원  
**문의** 드림미디어그룹(주) 070-8224-8868



2016 중국 무용계 최고상 '하화상(荷花奖)', 2018 중국국가저작권 금상 '작품상'을 수상한 중국 무용계의 거장 천페이화(陈飞华)가 이끄는 상하이댄스씨어터의 '쭈환' 한국 초연 무대. '환경'이라는 시대를 초월한 인류 공존의 메시지를 따오기의 사랑과 이별을 통해 그려가는 이번 작품은 중국 북경, 상하이, 시안, 청두 등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 보스턴, 일본 도쿄, 오사카 등 세계 각국에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240여회 공연되면서 전 세계의 호평을 받아왔다.



영화 | Movie

부산예술회관 작은영화콘서트  
시민과, 영화로 소통하다  
인생은 아름다워

**일 시** 10월 15일 화요일 오후 4: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무료(전체 관람가)  
**문의** 부산예술회관 612-1372, 628-4371



매월 셋째주 화요일, 한편의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에 대한 수다로 소통하는 부산 예술회관 작은영화콘서트 '시민과, 영화로 소통하다' 2019년 10월 상영회. 영화 상영 후에는 시나리오 작가이자 부산영화인협회 서영조 회장이 영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코드들을 소개하며 관객들이 놓친 장면에 숨어 있던 의미와 이미지들을 짚어준다.

10월에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라는 소재를 밝고 유머러스하게 그려낸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이탈리아, 1997년 작, 상영시간 116분)를 상영한다.

2019 부산 가치봄영화제

**일 시** 10월 17일(목)-19일(토)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상영시간 홈페이지 확인)  
**입장료** 무료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6080



장애인의 문화향유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식 개선을 위한 2019 부산 가치봄영화제. 사회적 정서와 청소년이 공감할 수 있는 대중적인 작품과 시각장애인의 선호도를 고려한 우수 영화 9편을 선정, 청각장애인들도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화면 음성해설 및 자막해설이 지원된다.

**상영작**  
천국의 아이들, 집으로 가는 길, 100일동안 100가지로 100퍼센트 행복찾기, 검사와 여선생, 소나기, 너의 결혼식, 소중한 사람, 빌리 엘리어트, 기생충

10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매주 월-화요일 오후 7:00, 목요일 오전 10:00, 7:00 시네바움  
**입장료** 일반 1만5천원, 학생 1만원(1회 수강료)  
**문의** 시네바움 010-2774-3455

**1일(화) 오후 7:00** 재즈를 탐하다(2) '블루스'  
• 강사/이기병(동시대 음악학과 교수)  
**10일(목), 17일(목), 24일(목), 31일(목) 오전 10:00** 무료아카데미 '논어, 깊게 읽기'  
• 강사/윤산 김수청(부산대 교양교육원 외래교수, 부산가톨릭대 인문학연구소 연구위원)



**10일(목), 17일(목), 24일(목), 31일(목) 오후 7:00** 무료아카데미 '손자병법(경쟁의 원리와 원칙)'  
• 강사/박승섭(부경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14일(월) 오후 7:00** 근현대 중국을 읽는 키워드(1)

중과 西  
• 강사/이보고(부경대 글로벌자율전공학부 교수)  
**15일(화)** 들뢰즈의 감각의 논리 읽기(2) 문제적 화가 베이컨을 말한다(2)  
• 강사/최영송(커뮤니케이션학 박사, 연구공간 로봇프로이트 대표)  
**21일(월)** 오후 7:00 김명우교수의마음공부(6) 반야심경과 그 세 번째 이야기  
• 강사/김명우(철학박사, 불교학자, 동아대 교양교육원 전임교수)

**22일(화)** 오후 7:00 김유신교수의 과학철학 산책(2) 영원과 시간(1)  
• 강사/김유신(부산대 명예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28일(월)** 오후 7:00 우주관 오디세이(4) 비운의 여성 과학자, 광기의 희생자, 히파티아 노벨상을 도둑맞은, 리제 마이트너  
• 강사/조송현(주식회사 웹진 인저리타임 대표,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9일(화)** 오후 7:00 책 읽는 오후(3) 뇌는 어떻게 세상을 보는가\_함께하는 영화, 공각기공대  
• 강사/박기현(지식탐험가, 박기현치과원장)

행사 | Event

정두환의 화요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가을에 듣는 실내악 이야기 II

**일 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입장료** 무료  
**문의** 정두환 011-574-0423



문화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꿈꾸는 '문화유목민' 정두환이 진행하는 화요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은 지난 2000년 3월 부산문화회관 음악감상실에서 시작된 후 올해 5월 70회 특집음악회를 가진 바 있다.

**1일(721회)** François Couperin Chamber Music  
**8일(722회)** Johann Pachelbel Chamber Music  
**15일 공연관람**(제37회 부산창작관악축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2일(723회)** Giovanni Battista Vitali Chamber Music  
**29일(724회)** 이달의 책 읽기 '말의 서랍'(김종원 저, 성안당)

김옥균의 클래식음악여행

**일 시**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연제구 평생학습관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롯데백화점부산본점 문화센터  
**입장료** 수강료 3개월 15만원(연제구 평생학습관 수강은 무료)  
**문의** 김옥균 010-6367-0149



MBC 부산문화방송에서 'FM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 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 김옥균(현재 클래식음악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이 진행하는 클래식음악 매니아를 위한 해설감상회.

**프로그램**  
드볼작 '현을 위한 세레나데', 구노 '병사의 합창' 비제 '아름의 여인', 헨델 '왕궁의 불꽃놀이' 모음곡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제15번', 바흐 '무반주 첼로 소나타' 등

기타공연장

내가 좋아하는 평화는  
2019 제13회 어린이 평화큰잔치

**일 시** 10월 3일 목요일 오전 10:30~오후 4:30  
부산민주공원  
**입장료** 무료(일부 체험은 유료)  
**문의** 부산어린이어깨동무 819-7942

그림자극, 인형극, 음악극 등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을 비롯해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남북 짝짝-북한말 알아맞히기, 북한음식 맛보기, 뱅글뱅글 평화바람개비, 북녘 어린이 돕기 바자회, 새콤달콤 사탕 모빌 만들기, 평화 책 전시, 평화표현 놀이터 등 다양한 체험 및 전시행사가 펼쳐진다.

2019 가을독서문화축제/오션북페어

**일 시** 10월 12일(토)-13일(일) 국립해양박물관  
**문의** 국립해양박물관 1688-8998, 580-9016, oceanbookfair.mcong.kr

전시 | Display

‘GREEN UTOPIA:공존’展

**일 시** 7월 17일(수)-10월 10일(목) BNK아트갤러리  
**문의** BNK아트갤러리 246-8975  
도시와 자연의 유토피아적 결합을 보여주는 박지훈 작가 초대전.

고은사진미술관 해외교류전  
‘로만 베작\_시대의 고고학’

**일 시** 8월 17일(토)-11월 20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의**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Happy go lucky Berr’展

**일 시** 9월 11일(수)-10월 6일(일)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의**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일 시** 10월 8일(화), 22일(화), 24일(화)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입장료 전석 2만원(23일 강좌는 1만5천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8일(화), 22일(화)**  
**음악으로 읽는 인문학**  
음악평론가 광근수의 클래식 인문학강좌로, 8일에는 19세기 비르투오소(거장 연주가)의 시대를 연 최초의 음악가인 파가니니의 작품 세계를, 22일에는 미니멀리즘의 거장 아르보 페르트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다.

• 강사/광근수(음악평론가)  
**28일(월) 색이 삶을 말하다 제30강**  
**미술의 눈이 된 색채, 화가를 말하다**  
구스타프 클림트 편  
색채로 만나는 10월의 화가는 아르누보의 장식성

강현경, 최순민 2인전

**일 시** 9월 16일(월)-10월 8일(화) 갤러리 아인  
**문의** 갤러리 아인 747-2612

‘을숙도에 있는 고니?’展

**일 시** 9월 21일(토)-10월 4일(금)  
갤러리 을숙도 제1전시실  
**입장료** 무료  
**문의** 갤러리 을숙도 220-5822



사하구 흥티예술촌 주민참여형 공공예술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제작한 고니조형물 201점을 을숙도의 자연환경과 함께 접목한 전시로, 천연기념물 고니가 찾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구의 중요성을 재조명해본다.

을 황금색으로 펼치며 ‘빈 분리파(Wien Secession, 1897)’를 결성하고 시대에술의 진보적 견인에 생을 불사른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를 만난다.  
• 강사/박미송(퍼스널컬러전문가)

제144회 알바트로스 詩낭송콘서트  
‘가을, 여행’ 주제 애송시 낭송회

**일 시**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관 문화홀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알바트로스시낭송문학협회 010-6367-0149

시를짓고듣는사람들의모임  
시마당 제196회 시낭송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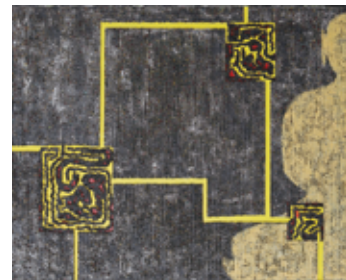
**일 시** 10월 22일 화요일 오후 6:30  
양정 오성병원 대강당  
**입장료** 무료  
**문의** 시를짓고듣는사람들의모임 회장 안태봉 010-8374-0626

‘작가수달이의 그림책 작업실’展

**일 시** 9월 24일(화)-10월 6일(일)  
갤러리 을숙도 제2, 3전시실  
**입장료** 무료  
**문의** 갤러리 을숙도 220-5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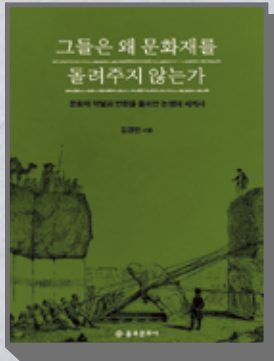
조용문 작가 개인전  
Image of Map

**일 시** 10월 9일(수)-10월 27일(일)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의**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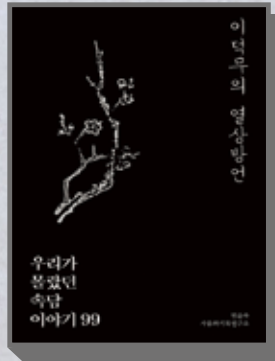
북칼럼니스트 박현주



### 그들은 왜 문화재를 돌려주지 않는가

김경민 지음 / 을유문화사  
372p / 1만 6천 원

2011년, 145년 만에 외규장각 의궤가 프랑스에서 '5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한 일괄 대여 형식'으로 돌아왔다. 우리 입장에서는 프랑스가 수탈해 간 문화재이니까 소유권까지 완전히 돌려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단순 논리로는 접근할 수 없다. 유네스코에서는 1970년, 불법 문화재 반입과 반출·소유권 양도를 금지한 협약을 채택했다. 이 협약은 이전 시기로 소급해서 적용하지 못하고, 당사국이 아니면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에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약탈해간 문화재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문화재 환수는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사실상 이뤄지기 힘들다. 영국의 대영 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는 다른 나라의 문화재가 당연하게 전시되어 있다. 문화재 약탈국들은 흠처간 것에 대해 사과는커녕 소유권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재 반환 논쟁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다. 단지 빼앗기고 빼앗는 문제가 아닌 역사적 배경·사회적 의미·경제적 가치가 뒤엉켜 있다. 이 책은 문화재 약탈과 반환을 둘러싼 논쟁의 세계사를 들려준다.



### 이덕무의 열상방언

엄윤숙 지음 / 사유와기록  
280p / 1만 4천 500원

우리나라에서 '속담'이란 단어가 처음 쓰이기 시작한 것은 조선 중기 <어우야담> <동문유해> 같은 책이지만 실제로 속담이 쓰인 것은 그보다 훨씬 앞선다. <삼국유사>에 속담이 나오는 걸로 봐서 삼국시대에 이미 상당수의 속담이 일반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고증과 박학의 대가이며 독서가였던 이덕무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널리 쓰이던 속담을 수집했다. 총 99편의 속담을 모아, 매 편마다 6글자로 한역한 뒤 그 뜻을 설명했다. 조선시대 속담은 현재 우리가 쓰는 속담의 원래 형태를 짐작하게 한다. 이덕무는 '누워서 떡을 먹으면 콩고물이 떨어진다'는 속담을 수집해 '餅臥喫 豆腐落(병와격 두설락)'이라는 한자로 정리했다. 떡을 먹는데 누워서까지 하니 콩고물이 얼 굴에 떨어지는 더러운 꼴을 보게 된다, 조금 편해지면 점점 더 편리한 것을 찾다가 삶이 엉망으로 흐트러지고 게을러지기 쉽다는 거다. 지금은 '누워서 떡 먹기'와 '콩고물이 떨어진다'로 분리해 사용되며 뜻도 조금 변했다. 속담은 한 줄로 쓴 책이고, 같은 속담을 쓰는 우리는 아름다운 언어공동체라는 느낄 수 있는 책이다.



### 조희창의 에센셜 클래식

조희창 지음 / 미디어섬  
396p / 1만 8천 원

250여 편의 작품 악보를 모두 외워 암보로 지휘했던 토스카니니, 20대에 손발이 굳는 희귀병인 '다발성 경화증'으로 질풍 같은 삶을 마감해야 했던 첼리스트 재클린 뒤 프레, 역사상 최고의 소프라노로 꼽히던 마리아 칼라스와 레나타 티발디의 경쟁, 무려 165번의 커튼콜을 받을 정도로 '빛나는 목소리'를 가졌던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름들이다.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등 여러 예술회관에서 오랫동안 클래식 음악을 대중에게 알려온 음악평론가 조희창 씨가 음악사를 움직여 온 25인의 마에스트로를 소개한다. 저자가 직접 만난 거장들과의 인터뷰는 생생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전설적인 지휘자 게오르크 솔티와 세기의 첼리스트 모스티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 마리아 칼라스와 숙명의 라이벌이었던 레나타 티발디가 나는 인터뷰가 실려 있다. 연주자마다 <놓칠 수 없는 음반>과 75개의 QR코드를 통해 최고의 동영상으로 연주를 볼 수 있는 <유튜브에서 보고 듣기> 코너가 수록돼 있어 음악 감상도 할 수 있다.



# 극장장의 손 편지

(재)부산문화회관 대표 이용관

## 예술경험이 학교 성적도 올린다?

오래 전 영어교사인 대학동기에게서 들은 일화 한 토막을 1인칭 화법으로 소개합니다.

부산의 어느 남자 중학교 3학년 담임 반에 전교 수석을 늘 놓치지 않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시험성적뿐 아니라 과제발표, 특별활동 어느 것 하나 똑 부러지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역대 담임교사들은 주로 이 아이에게 학급반장을 맡겼습니다. 리더십도 있어서 반장의 역할도 잘 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은 문득 아이의 가정 방문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아이를 이토록 뛰어나게 만든 ‘비장의 가정교육’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으리으리한 부자도 찢어지게 가난하지도 않은 평범한 가정의 아이엄마가 담임 선생님에게 들려 준 이야기는 ‘비장’의 그것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어요. 다만 짐작하기는 제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책 읽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아이도 제 곁에서 자라면서 저절로 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은 해요.”

동기가 들려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 정도만으로 아이가 그토록 뛰어나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 정도까지 하지 않으면서도 남보다 특출한 아이들은 많을 것입니다. 좋은 가정환경을 갖지 않았지만 성적이 뛰어난 시골 수재들도 옛날엔 널려 있었습니다. 공부가 아니면 입신양명의 길이 딱히 없었던 시절이기도 했지만요.

수재가 아닌 범재(凡才)들은 어떨까요? 부모가 클래식을 좋아하고 책읽기를 즐겨 하는 것만으로 될까요? 공연장 운영으로 일생을 보낸 필자는 늘 공연장 로비에서 아이만 객석으로 들여보내 놓고 따로 시간을 보내는 엄마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아이와 같이 들어가서 공연을 보고 감상을 서로 나누는 엄마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대학동기의 일화에 나오는 엄마도 분명 이런 분이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아이가 문화적 감수성이 더 나은지 판가를 나겠죠. 어느 아이에게는 엄마와의 좋은 추억이 더 많이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도 수능(SAT)이 있지요? 어려서부터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언어와 논술은 물론 수학 성적까지도 높다는 통계가 해마다 발표됩니다. 캘리포니아의 실리콘 벨리에서는 문화예술 전공자가 법학이나 경영학 전공자보다 직장(물론 벤처기업이지만)에서 성취도와 만족도가 높게 나온다는 기사도 필자는 본적이 있습니다. 최근 파리에 사는 목수정 작가가 페이스북에 올린 프랑스 학교의 사례도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학년 초에 열리는 학부모회의에 다녀왔다. 특이하게도 이번엔 지난 학년말 아이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해서 보여주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의 평소 습관, 취미 생활, 학습 태도 등에 대한 조사였고, 이것들이 아이들의 성적과 어떤 관련을 맺는지를 분석했다.

20점 만점에 16점 이상을 받은 아이들을 상위권으로 구분했는데, 그 아이들은 연중 가장 많은 수의 전시를 보러 다니고 (12회이상), 가장 많은 양의 독서를 하며, 음악이나 미술 체육 등에서 학교 수업 이외의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연장이나 영화관에 가는 비율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그룹의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에 바치는 평균 시간은 일주일에 3-4시간에 불과했다.

반면, 소위 중위권으로 분류된 아이들의 평균 공부 시간은 5-6시간으로 집계되었다. 이 그룹의 아이들의 평균 문화 활동은 첫 번째 그룹의 아이들에 비해 훨씬 적었다. 하위권으로 분류된 12점 이하의 그룹은 공부하는 시간도 적었지만, 특히 문화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에서 첫 번째 그룹과 현저한 차이가 났다. 대신 이 아이들은 스크린(텔레비전이나 게임, 모바일을 통해 접하게 되는 모든 활동)에 많은 시간을 바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이 조사를 통해 부모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가 아니라, 적절한 공부 습관을 갖고 있더라는 것. 즉, 매일 조금씩 그 날 배운 걸 들여다 볼 뿐 길게 붙잡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학교 공부 이외의 문화적 경험과 자극을 통해 세상을 풍부하

게 접하고 다각도에서 흡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얻는 지식과 경험들이 결국 여지없이 학교 성적으로도 드러난다는 것. 그러니 아이들이 다채로운 문화적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지나치게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에 정신 팔려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하는 아이들은, 이미 부모들이 지닌 문화 자본을 공기처럼 흡입해온 아이들일 것이다. 주말이면 부모와 함께 전시나 공연을 보러가고, 책을 읽거나, 악기를 연주하고,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터이다. 파리 시내에 있는 국립 중학교의 아이들 대부분이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산다. 아이들은 엇비슷한 생활수준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문화적 환경은 꼭 경제적 수준과 비례하진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의 이후의 삶의 질을 가르는 요인이 된다. 이런 결론은 아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닐 듯...”

한편의 공연이나 전시 관람만으로 아이가 크게 달라지기는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선한 가을날에 아이와 함께 공연장이나 미술관을 찾아 서로 감상을 나누는 시도 한 번만으로도 아이에게 멋진 추억은 선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변화가 보이고, 그것이 오래 지속도 되겠지요. 또 혹시 압니까? 아이에게 어떤 ‘비장’의 기회가 될지를? 러시아 출신의 발레리나 안나 파블로바의 전설도, 이 시대의 재미있는 지휘자 금난새의 행복하게 보이는 음악인생도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 손잡고 처음 가서 본 발레와 오케스트라 공연에서 시작되었다지요.



### ◆ (재)부산문화회관 4분기 문화예술아카데미 개강

9월 16일부터 수강생 모집, 10월 1일부터 순차 개강



차별화된 수준높은 강좌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 2019년도 4분기 강좌가 10월 1일부터 새롭게 펼쳐진다.

매 분기마다 다양한 강좌를 개설해온 문화예술아카데미는 이번 강좌에서도 쉽게 접하기 힘든 주제의 인문학, 교양 강좌에서부터

요즘 트렌드에 맞춘 실기강좌, 그리고 이색적인 특강까지 다채롭고 수준높은 강좌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4분기 강좌에서는 (재)부산문화회관이 마련한 기획공연 관람에 앞서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공연 연계 특강이 무료로 마련된다. 우선 11월 6일 열리는 프렐조카쥬 발레단의 ‘프레스코화’ 공연에 앞서 컨템포러리 발레 안무의 거장 프렐조카쥬의 작품세계에 대해 알아보는 특강이 10월 23일 열리며, 12월 부산시립극단 정기공연으로 무대에 오르는 ‘호텔로’와 더불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 대해 알아보는 ‘셰익스피어 연극읽기’ 두 번째 특강이 12월 2일 펼쳐진다. 가을의 시작과 더불어 가을의 감수성을 닮은 강좌도 함께 찾아온다. 11월 8일과 15일 두차례 열리는 ‘나를 찾는 글쓰기 여행’ 강좌에서는 막상 글을 쓰려고 하면 막막했던 경험을 극복하고 글을 통해 일상이 보다 풍요로워지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오페라와 미술을 접목한 예술 전문 작가 전원경의 ‘그림 속의 오페라’가 11월 특강으로 4차례 진행되며, 현대미술의 주요키워드를 통해 용어의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현대 미술의 이해와 흥미를 더하는 ‘무엇이 현대미술을 만드는가’는 10월 5일부터 매주 토요일 10차례 강좌가 진행된다. 이밖에 부산문화회관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실기 강좌들은 4분기에도 지속된다.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 607-6000, [www.bscc.or.kr](http://www.bscc.or.kr)

###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일본 가나자와 '동아시아 문화도시 문화교류행사' 참가

10월 19일(토)-20일(일) 가나자와 특설무대, 문화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10월 19일과 20일 일본 가나자와에서 열리는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행사’에 참가한다. ‘동아시아문화도시’는 지난 2012년 한·중·일 3국간의 오랜 갈등과 반목을 도시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해 해소해 나가자는데 합의하면서 매년 각 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도시 한 곳을 선정해 문화교류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지난해인 2018년에는 부산을 비롯해 하얼빈(중국), 가나자와(일본)가 선정되면서 그동안 다



양한 문화교류행사를 가져오고 있다. 한·중·일 3국의 예술단이 참가하는 이날 행사에서 부산 대표로 참가하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10월 19(가나자와역 특설무대)과 20일(가나자와 문화홀) 이틀간 수석지휘자 김수현의 지휘로 ‘아리랑’, ‘날라리 아리랑’, ‘민요모음연곡’ 등 신명 넘치는 곡으로 우리의 전통과 멋을 알린다.



# 2019년도 4분기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수강신청 : 9. 16.(월)부터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온라인 [www.bscc.or.kr](http://www.bscc.or.kr) (아카데미 > 강좌안내 및 접수)

문의 : 051) 607-6000

특	강					
(공연연계)	프렐조카주 발레 '프레스코화'	10.23	수(1회)	10:00-12:00	강의실	무료
(공연연계)	셰익스피어 연극 읽기 II '오델로'	12. 2	월(1회)	14:00-16:00	강의실	무료
	나를 찾는 글쓰기 여행	11. 8 / 11.15	매주 금(2회)	14:00-16:00	강의실	40,000
<i>new</i>	그림 속 오페라	11. 4 ~11.25	매주 월(4회)	14:00-16:00	강의실	80,000
<b>인문학 · 교양</b>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초급)	10. 7 ~12. 9	매주 월(10회)	10:30-12:30	강의실	180,000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응용)	10. 7 ~12. 9	매주 월(10회)	14:00-16:00	강의실	180,000
	Creative 북바인딩(팝업 북)	10. 2 ~12.11	매주 수(10회)	19:00-21:00	미술실	180,000
	일러스트 드로잉(달력 만들기)	10.10 ~12.12	매주 목(10회)	19:00-21:00	미술실	180,000
	음악을 보고 그림을 듣는다	10. 2 ~12.11	매주 수(10회)	19:00-21:00	강의실	150,000
	무엇이 현대미술을 만드는가 아티스틱 판타스틱 미술사	10. 5 ~12. 7	매주 토(10회)	14:00-16:00	강의실	150,000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포트폴리오)	10. 5 ~12. 7	매주 토(10회)	10:00-12:00	강의실	150,000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초급)	10. 5 ~12. 7	매주 토(10회)	15:00-17:00	강의실	120,000
<b>실기(악기·무용)</b>						
	바이올린 A	10. 7 ~12. 9	매주 월(10회)	17:30-19:00	레슨실	120,000
	바이올린 B	10. 7 ~12. 9	매주 월(10회)	19:30-21:00	레슨실	120,000
	클라리넷 A	10. 7 ~12. 9	매주 월(10회)	17:30-19:00	레슨실	120,000
	클라리넷 B	10. 7 ~12. 9	매주 월(10회)	19:30-21:00	레슨실	120,000
	해금(중급A)	10. 1 ~12. 3	매주 화(10회)	17:30-19:00	강의실	120,000
	해금(중급B)	10. 1 ~12. 3	매주 화(10회)	19:30-21:00	강의실	120,000
	사물놀이	10. 8 ~12.10	매주 화(10회)	17:30-19:00	연습실	120,000
	가야금 A	10. 8 ~12.10	매주 화(10회)	17:30-19:00	레슨실	140,000
	가야금 B	10. 8 ~12.10	매주 화(10회)	19:30-21:00	레슨실	140,000
	라인댄스(초급)	10. 8 ~12.10	매주 화(10회)	11:00-12:00	연습실	100,000
	라인댄스(중급)	10.10 ~12.12	매주 목(10회)	13:00-14:00	연습실	100,000
	한국무용(소고춤)	10. 8 ~12.10	매주 화(10회)	15:00-16:00	연습실	100,000
	한국무용(기초)	10. 2 ~12.11	매주 수(10회)	15:00-16:00	연습실	100,000
	한국무용(향발무)	10.10 ~12.12	매주 목(10회)	15:00-16:00	연습실	100,000
	슬림 업 스트레칭 발레	10. 2 ~12.11	매주 수(10회)	10:30-11:30	연습실	100,000
	프리미엄 발레	10. 4 ~12. 6	매주 금(10회)	14:00-15:00	연습실	100,000
	지휘자 클래스	10. 2 ~12.11	매주 수(10회)	19:00-21:00	합창단 연습실	360,000
	해금(초급)	10.10 ~12.12	매주 목(10회)	17:30-19:00	레슨실	120,000
	춤추는 현대무용	10.10 ~12.12	매주 목(10회)	19:30-20:30	연습실	100,000
	클래식기타(입문)	10. 4 ~12. 6	매주 금(10회)	10:30-12:00	강의실	120,000
	클래식기타(중급)	10. 4 ~12. 6	매주 금(10회)	14:00-15:30	강의실	120,000
	클래식기타(초급)	10. 4 ~12. 6	매주 금(10회)	16:00-17:30	강의실	120,000
	첼로 A	10.12 ~12.14	매주 토(10회)	11:00-12:30	레슨실	240,000
	첼로 B	10.12 ~12.14	매주 토(10회)	13:00-14:30	레슨실	24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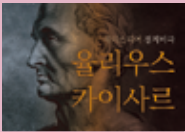
※ 강의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감동, 다채로운 재미, 깊이를 더한 품격  
**(재)부산문화회관 2019-20 시즌 프로그램**

**연극**



**9.7** (토) 3:00pm | 문화회관 중극장  
**소극장 라이브 뮤지컬의 명불허전**  
**<지하철 1호선>**  
 R 30,000 / S 20,000



**9.19** (목)~**22** (일) | 문화회관 중극장  
 목·금요일 7:30pm, 토·일요일 4:00pm  
**셰익스피어 정치 비극**  
**<율리우스 카이사르>**  
 R 30,000 / S 20,000



**10.6** (일), **11.10** (일) 2:00pm, 6:00pm  
 | 문화회관 중극장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의 명작 연극-NT Live**  
**<프랑켄슈타인>**,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All Seats 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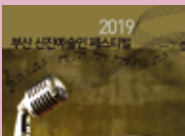


**20.2.15** (토), **2.29** (토) 2:00pm, 6:00pm  
 | 문화회관 중극장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의 명작 연극-NT Live**  
**<헤다 가블러>**,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텐은 죽었다>**  
 All Seats 20,000

**페스티벌**



**8.14** (수)~**30** (금) | 문화회관 챔버홀  
 평일 7:30pm, 주말 및 공휴일 5:00pm  
**2019 BNK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All Seats 20,000



**12.26** (목)~**31** (화)  
 | 문화회관 대극장, 중극장, 챔버홀,  
 시민회관 소극장  
**2019 부산 신진예술인 페스티벌**  
 ※세부 일정 및 내용 추후 공지 / 패키지 제외

**무용**



**11.6** (수)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프랑스 최정상 안무가의 환상적인**  
**모던 발레**  
**프렐조카주 발레단 <프레스코하>**  
 R 80,000 / S 60,000 / A 40,000



**12.6** (금)~**7** (토) | 문화회관 대극장  
 금요일 7:30pm, 토요일 3:00pm  
**국립발레단의 크리스마스 선물**  
**<호두까기인형>**  
 R 80,000 / S 60,000 / A 40,000



**12.13** (금)~**14** (토) | 시민회관 소극장  
 금요일 11:00am, 7:30pm, 토요일 3:00pm  
**어른들이 보는 겨울동화 시리즈**  
**<미운 오리 새끼>** (렉처퍼포먼스)  
 (예술감독 이태상)  
 All Seats 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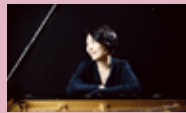
**클래식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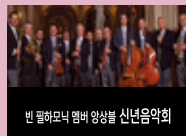
**10.25** (금) 7:30pm | 시민회관 소극장  
**잊혀지지 않는 치명적 유혹의 리듬**  
**남성 현악5중주 <볼로시 VOLOSI>**  
 V 50,000 / R 30,000 / S 20,000



**11.14** (목)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장한나X임동혁 첫 만남**  
**<장한나 &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 (Pf. 임동혁)  
 V 120,000 / R 90,000 / S 60,000 / A 30,000



**12.3** (화)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세계무대 데뷔 30주년 기념**  
**<백혜선 독주회>**  
 R 50,000 / S 30,000 / A 20,000



**20.1.10** (금)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내한공연 5회 연속 전석 매진!**  
**<빈 필하모닉 멤버 앙상블**  
**신년음악회>**  
 R 70,000 / S 50,000 / A 30,000 / B 20,000



**20.2.15** (토) 5:00pm | 문화회관 대극장  
**스윗 발렌타인데이**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R 70,000 / S 50,000 / A 30,000 / B 20,000

**오페라**



**9.30** (월)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2019 부산 오페라 WEEK 인 콘서트**  
**<세빌리아의 이발사>**  
 R 50,000 / S 30,000 / S 20,000

**10.1** (화) 7:30pm | 문화회관 중극장  
**2019 부산 오페라 WEEK 갈라 콘서트**  
**<사랑의 묘약>**  
 R 50,000 / S 30,000 / S 20,000

**10.5** (토)~**6** (일) 6:00pm  
 | 문화회관 대극장  
**2019 부산 오페라 WEEK 전막 오페라**  
**<살로메>**  
 V 100,000 / R 70,000 / S 50,000 / A 30,000

**10.11** (금)~**13** (일) | 문화회관 대극장  
 금요일 7:30pm, 토·일요일 6:00pm  
**극적인 밀도, 음악적 긴장과 조화,**  
**베르디 최고의 오페라 <리골레토>**  
 V 100,000 / R 70,000 / S 50,000 / A 30,000

**가족 & 어린이**



**8.30** (금) 7:30pm | 문화회관 중극장  
**샌드애니메이션과 함께하는**  
**문학콘서트 <소나기>**  
 R 20,000 / S 10,000



**9.28** (토) 3:00pm | 문화회관 중극장  
**유니크와 샌드아트가 들려주는**  
**<어린이왕자 이야기>**  
 R 20,000 / S 10,000



**11.16** (토) 3:00pm | 문화회관 중극장  
**시아와 친구들의 보물원정대**  
**<시아와 친구들 : 트레저 헌터즈>**  
 R 20,000 / S 10,000

**마티네 콘서트**



**8.28/10.2/11.20** (수) 11:00am  
| 문화회관 중극장  
**오전에 듣는 오페라 아리아의 향연**  
**<마티네 콘서트 시즌 5>**  
All Seats 10,000 \*티켓 예매 진행 중(매키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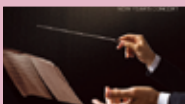
**콘서트**



**12.31** (화) 10:30pm | 문화회관 대극장  
**2019 제야음악회** (객원지휘 여자경)  
R 30,000 / S 20,000 / A 10,000  
\*세부 내용 추후 공지 / 패지키 제외



**9.6** (금) 7:30pm | 시민회관 소극장  
**조선의 아이돌, 오방신 이희문의**  
**<거침없이 열씨구>**  
V 50,000 / R 30,000 / S 20,000



**20.1.21** (화) 7:30pm | 시민회관 소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부산시민회관 새해음악회**  
All Seats 10,000



**20.2.14** (금) - **15** (토) | 시민회관 소극장  
금요일 7:30pm, 토요일 5:00pm  
**추억의 포크송 <동물원 콘서트>**  
R 55,000 / S 44,000

**부산시립예술단 수석지휘자·안무자 선정 공연 시리즈**  
**'거장들의 다채로운 무대 프로젝트'**

**부산시립합창단**



**6.28** (금)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합창단 제175회 정기연주회**  
**<전쟁과 평화 - 6월의 기억>**  
(객원지휘 김인재)  
All Seats 10,000



**9.26** (목)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합창단 제176회 정기연주회**  
**<자연을 노래하다>**  
(객원지휘 이기선)  
All Seats 10,000



**11.19** (화)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합창단 제177회 정기연주회**  
**<세계를 품다>**  
(객원지휘 Adrian Stanache)  
All Seats 10,0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8.22** (목)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2회 정기연주회**  
**<마스터 피스 in 부산>**  
(객원지휘 김종욱)  
All Seats 10,000



**10.31** (목)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3회 정기연주회**  
**<공존(共存): 자연 그리고 인간>**  
(객원지휘 박상후)  
All Seats 10,000



**12.24** (화)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4회 정기연주회**  
**<Odyssey : 긴 여정>**  
(객원지휘 진성수)  
All Seats 10,000



**20.2.25** (화)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5회 정기연주회**  
**<서으로 가는길>**  
(객원지휘 문형희)  
All Seats 10,000

**부산시립무용단**



**11.28** (목)~**29** (금)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무용단 제80회 정기공연**  
**<南風 - South Breeze>**  
(객원안무 이정운)  
All Seats 10,000



**20.3.19** (목)~**20** (금)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무용단 제81회 정기공연**  
**<Odyssea FE2020b>**  
(객원안무 김수현)  
All Seats 10,000

**부산시립예술단 시즌공연**

**부산시립교향악단**



**9.27** (금)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4회 정기연주회**  
**<프렌치 호른>**  
(지휘 최수열, 호른 김홍박)  
R 20,000 / S 15,000 / A 10,000 / B 5,000



**10.25** (금)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5회 정기연주회**  
**<부산 신사>**  
(지휘 최수열, 첼로 김두민)  
R 20,000 / S 15,000 / A 10,000 / B 5,000



**11.22** (금)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6회 정기연주회**  
**<아름.열.열하나.>**  
(지휘 최수열, 오르간 신동일)  
R 20,000 / S 15,000 / A 10,000 / B 5,000



**11.29** (금) 7:30pm | 문화회관 챔버홀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실내악 공장>**  
All Seats 10,000



**12.4** (수) 9:00pm | 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심야음악회>** (지휘 최수열, 이민형)  
All Seats 10,000



**12.19** (목)~**20** (금)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7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지휘 최수열)  
R 20,000 / S 15,000 / A 10,000 / B 5,000



**20.1.16** (목), **1.17** (금)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8회 정기연주회**  
**<2020 신년음악회>** (지휘 최수열)  
R 20,000 / S 15,000 / A 10,000 / B 5,000



**20.2.14** (금)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9회 정기연주회**  
**<프랑스식 뉘앙스>** (지휘 아드리앵 페뤼송)  
R 20,000 / S 15,000 / A 10,000 / B 5,000

**부산시립극단**



**12.12** (목)~**14** (토) | 문화회관 중극장  
목·금요일 7:30pm, 토요일 5:00pm  
**부산시립극단 제66회 정기공연**  
**<오델로>** (객원연출 양지웅)  
All Seats 10,000



# Package Ticket

# 2019-20 BSCC

## 명품 패키지

- 명품 공연 5편 동시 구매 시 30% 할인
  - 명품 공연 3편 동시 구매 시 20% 할인
- 명품 1. 잊혀지지 않는 치명적 유혹의 리듬 남성 현악5중주 <볼로시 VOLOSI>  
명품 2. 프랑스 최정상 안무가의 관능적인 모던 발레 프렐조카쥬 발레단 <프레스코화>  
명품 3. 장한나X임동혁 첫 만남 <장한나 &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Pf. 임동혁)>  
명품 4. 세계무대 데뷔 30주년 기념 <백혜선 독주회>  
명품 5. 국립발레단의 크리스마스 선물 <호두까기인형>  
명품 6. 내한공연 5회 연속 전석매진! <빈 필하모닉 멤버 앙상블 신년음악회>  
명품 7. 스윗 발렌타인데이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 \* 최고 좌석등급에 따라 VIP석 및 R석 교차 예매 가능

## 연극 패키지

- 연극 공연 2편 동시 구매 시 30% 할인
- 연극 1. 소극장 라이브 뮤지컬의 명불허전 <지하철 1호선>  
연극 2. 셰익스피어 정치 비극 <율리우스 카이사르>
- Ⓜ 60,000 > 42,000   Ⓞ 40,000 > 28,000

## NT Live 패키지

- 4편 동시 구매 시 50% 할인
  - 2편 이상 동시 구매 시 20% 할인
- NT Live 1. <프랑켄슈타인>  
NT Live 2.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NT Live 3. <헤다가블러>  
NT Live 4.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텐은 죽었다>

## 클래식 음악 패키지

- 음악 공연 5편 동시 구매 시 30% 할인
  - 음악 공연 3편 이상 구매 시 20% 할인
- 음악 1. 잊혀지지 않는 치명적 유혹의 리듬 남성 현악5중주 <볼로시 VOLOSI>  
음악 2. 장한나X임동혁 첫 만남 <장한나 &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Pf. 임동혁)>  
음악 3. 세계무대 데뷔 30주년 기념 <백혜선 독주회>  
음악 4. 내한공연 5회 연속 전석매진! <빈 필하모닉 멤버 앙상블 신년음악회>  
음악 5. 스윗 발렌타인데이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 \* 최고 좌석등급에 따라 VIP석 및 R석 교차 예매 가능

## 오페라 패키지

- 오페라 공연 4편 동시 구매 시 40% 할인
  - 오페라 공연 2편 이상 구매 시 30% 할인
- 오페라 1. 2019 오페라 WEEK 인 콘서트 <세빌리아의 이발사>  
오페라 2. 2019 오페라 WEEK 갈라 콘서트 <사랑의 묘약>  
오페라 3. 2019 오페라 WEEK 전막 오페라 <살로메>  
오페라 4. 극적인 밀도, 음악적 긴장과 조화, 베르디 최고의 오페라 <리골레토>
- \* 최고 좌석등급에 따라 VIP석 및 R석 교차 예매 가능

## 무용 패키지

- 무용 공연 3편 동시 구매 시 20% 할인
- 무용 1. 프랑스 최정상 안무가의 환상적인 모던 발레 프렐조카쥬 발레단 <프레스코화>  
무용 2. 국립발레단의 크리스마스 선물 <호두까기인형>  
무용 3. 어른들이 보는 겨울동화시리즈 <미운오리새끼>(렉처퍼포먼스)
- Ⓜ 180,000 > 144,000   Ⓞ 140,000 > 112,000   Ⓐ 100,000 > 80,000

# Season Program

## 패키지 문의 및 예매

### ■ 가능시간

평일 09:00~18:00

###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ARS ① 고객센터

ARS ② 외국어 문의

## 멤버 페스티벌 패키지

- 페스티벌 공연 10편 동시 구매 시 40% 할인
- 페스티벌 공연 5편 이상 동시 구매 시 30% 할인
- 페스티벌 공연 3편 이상 동시 구매 시 20% 할인

## 키즈 패키지

- 어린이 공연 3편 동시 구매 시 50% 할인  
어린이 1. 샌드애니메이션과 함께하는 문학콘서트 <소나기>  
어린이 2. 유니크와 샌드아트가 들려주는 <어린이왕자 이야기>  
어린이 3. 시아와 친구들의 보물원정대 <시아와 친구들 : 트레저헌터즈>  
④ 60,000 → 30,000    ⑤ 30,000 → 15,000

## 부산시립예술단 수석지휘자·안무자 선정 공연시리즈

### '거장들의 다채로운 무대 프로젝트' 패키지

- 공연 7편 동시 구매 시 50% 할인
- 국악 공연 4편 동시 구매 시 40% 할인
- 합창 공연 2편 동시 구매 시 40% 할인
- 무용 공연 2편 동시 구매 시 40% 할인  
거장 1. 부산시립합창단 제175회 정기연주회(객원지휘 김민재)  
거장 2.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2회 정기연주회(객원지휘 김종욱)  
거장 3. 부산시립합창단 제176회 정기연주회(객원지휘 이기선)  
거장 4.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3회 정기연주회(객원지휘 박상후)  
거장 5. 부산시립합창단 제177회 정기연주회(객원지휘 Adrian Stanache)  
거장 6. 부산시립무용단 제80회 정기공연(객원안무 이정윤)  
거장 7.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4회 정기연주회(객원지휘 진성수)  
거장 8.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5회 정기연주회(객원지휘 문형희)  
거장 9. 부산시립무용단 제81회 정기공연(객원안무 김수현)

## 부산시립예술단 자유패키지(총 10개)

- 교향악단 2019년 특별연주 및 2020년 정기연주회, 극단 공연 등 3편 동시 구매 시 30% 할인
- 예술단 공연 2편 이상 동일등급 동시 구매 시 20% 할인  
\* 2019년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제외

## 자유 패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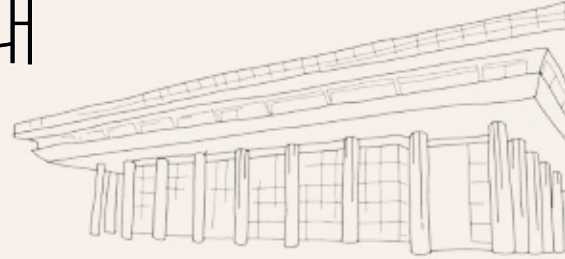
- 문화/시민회관 공연 5편 이상 동시 구매 시 30% 할인
- 문화/시민회관 공연 3편 이상 동시 구매 시 20% 할인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제외

## 패키지 구매 시 유의사항

- 패키지 예매는 전화예매만 가능합니다.
- 모든 패키지는 동일좌석등급으로 선택 가능합니다.(동일공연 중복선택 불가)
- 모든 패키지 상품은 묶음 상품으로 개별취소는 불가합니다.
- 모든 패키지 상품은 구성공연 첫 공연 시작 이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패키지 취소는 첫 공연 전날 오후 5시까지 가능 / 전화취소만 가능  
\* 단, 첫 공연이 일요일 또는 월요일일 경우, 그 전주 금요일 5시까지 취소 가능
- 패키지 구성공연의 상황에 따라 패키지 예매가 조기매진 될 수 있습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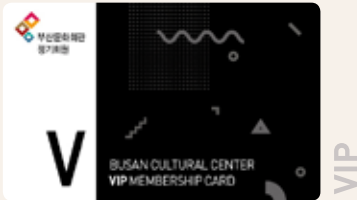


## 회원가입

- 가입신청**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 051)607-6074~6  
**무통장입금** 부산은행 101-2042-6796-01 [예금주/(재)부산문화회관]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 공통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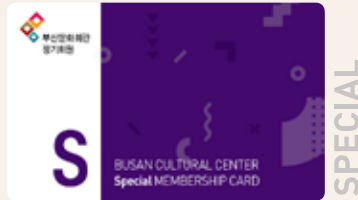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
-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우송 · 공연정보(SMS) 제공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20%)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할인(회원카드 제시 시 50%)
- 부산시립예술단원과 함께 떠나는 테마여행(매월 1회 추천, 여행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등



- 연회비** : 10만원  
**초대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좌석에서 예약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5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 ※ 지정된 기획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를 통해 따로 공지  
 ※ 부산시립예술단: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 연회비** : 5만원  
**초대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 연회비** : 3만원  
**초대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가입단체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 ※ 가입단체 초대권증정, 비가입단체는 예술단공연 입장료의 할인이 달라질 수 있음.



# VIP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회원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 4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 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19년, 2020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이후 공연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2019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종료]

8월 14일(수)-30일(금)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회당 선착순 20매, 8월 14일, 20일 공연은 제외)

## 2019 마티네 콘서트

8월 28일(수), 10월 2일(수), 11월 20일(수)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40매)

## 샌드애니메이션과 함께하는 문학콘서트 '소나기' [종료]

8월 30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R석, 선착순 30매)

## 뮤지컬 '지하철 1호선' [종료]

9월 7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R석, 선착순 30매)

## 연극 '율리우스 카이사르' [종료]

9월 19일(목)-22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R석, 회당 선착순 20매)

## 유니크와 샌드아트가 들려주는 '어린왕자 이야기'

9월 28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R석, 선착순 30매)

## 영국 국립극장의 공연을 라이브로 만나다 'NT Live'

10월 6일(일), 11월 10일(일), 2020년 2월 15일(토),  
2월 29일(토) 오후 2:00, 6: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30매)

## 프렐조카주 발레단 '프레스코화' [종료]

11월 6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S석, 선착순 30매)

## 어린이 뮤지컬 '시아와 친구들 : 트레저헌터즈'

11월 16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R석, 선착순 30매)

## 백혜선 독주회 [종료]

12월 3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선착순 30매)

## 2019 제야음악회

12월 31일(화) 오후 10: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선착순 40매)

## 빈필하모닉 앙상블 2020 신년음악회 [종료]

2020년 1월 10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S석, 선착순 40매)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홍보마케팅팀(607-6075~6, 6070~8)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와 함께하는 제1회 창작극대본공모전

### ☑ 공모개요

#### ■ 공모목적

지역예술인의 공연제작지원 및 제작기회 제공  
(재)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의 공공지원사업 확대

#### ■ 공모부문

창작음악극(국악음악극 포함), 희곡, 무용극 등 3개 부문  
(※ 분량 제한없음)

#### ■ 신청자격

예술인을 포함한 예술에 관심 있는 부산시민 누구나 지원가능  
(※ 나이제한 없음)

### ☑ 수상내용

#### ■ 창작음악극(국악음악극 포함), 희곡, 무용극 등 부문별 수상(총 3명)

- ※ 서각 부문 수상자에게는 상금 700만원과 트로피 수여
- ※ 수상작 중 1편을 선정 제작지원(회관 사정에 따라 1편 이상 제작 예정)
- ※ 해당분야 선정작이 없을 경우 해당자 없음으로 공지 가능

### ☑ 신청방법

#### ■ 접수기간

2019년 12월 20일(금)~12월 31일(화) 24:00까지 (12일간)

#### ■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book2580@bscc.or.kr)  
※ 3일 이내 접수희신메일 미수신시 반드시 확인필요

####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해당대본, 기타보완자료  
(CD/DVD, 악보 또는 음원파일, 추가자료 등 필요시 제출)

### ☑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051-607-6070~8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와 함께하는 제1회 부산청소년 공연감상문 공모전

### ☑ 공모내용

- (재)부산문화회관 시즌프로그램 중 작품 1편 이상 관람 후 감상문작성
- 200자 원고지 16~20매 분량(글자크기 11포인트, 줄간격 160%, 형식 상관없음)  
※ 응모작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은 주관 기관의 소유이며, 부산문화회관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등 자료에 사용될 수 있음.

### ☑ 신청자격

- 부산소재 중·고교 재학생, 대학생 개인

### ☑ 수상내용

- 대상(후원회장상) : 총 3명(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각 1명, 상금 70만원)
- 최우수상: 총 6명(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각 2명, 상금 50만원)
- 우수상: 총 9명(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각 3명, 상금 30만원)  
※ 수상자에게는 상금 및 트로피, 부상 수여  
※ 수상자 중 1명에게 부산광역시장상 별도 수여

### ☑ 접수기간

- 2019년 12월 20일(금) - 12월 31일(화)(12일간)

###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book2580@bscc.or.kr)

### ☑ 결과발표

- 2020년 1월 31일(금)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공지

### ☑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051-607-6070~8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 \* 회장

최수기 부일정보링크(주) 회장

## \* 부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임현경 신주레약국

임현숙 사상온누리약국

## \* 사무처장

윤영기 (주)선광 대표이사

## \* 이사회원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영양병원 이사장

김신호 (주)덕신체인 대표이사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평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투체어지점 지점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 \* 일반회원

강남주 (전)부경대학교 총장

김 균 (주)선경화성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성수 (주)태영유니텍 대표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영옥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종식 주식회사 J J K 회장

김진동 원창에프론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철 춘해병원 의무원장

김형우 (주)천마 대표이사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노경원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노은식 디케이락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재청 해운대 로드비치호텔 회장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박성복

박성환 대동병원 이사장

박혜빈 세종기획 이사

박홍근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성승모 부일정보링크(주) 대표이사

신명희 (전)해운대 동백합창단 단장

신상현 리더스금융판매 위드컨설팅 대표

이경철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경현 성모안과병원 병원장

이성임 엘가 대표

이에리카정애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정일 SK증권(주) 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은자

정민섭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영희 공연예술 전위 실장

정의화 (전)국회의장

조성락 속편한내과 원장

조종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조충영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진경옥 세무법인 영지 대표이사

하정태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허 준 신세계 안과의원 대표원장

현임숙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부장



- \* 후원회원 초청 음악회 개최  
(연 4회 이상)

---

- \* 부산시립예술단 전 공연  
무료 관람제공  
동반 1인 포함/사전신청자에 한함

---

- \* 대극장 로비 명예의전당 네이밍

---

- \* 대극장 좌석 네이밍

---

- \* 후원회 전용 룸 이용  
대극장 3층 로비 - 신설예정

---

- \*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

- \* 회원패 증정

---

- \* 예술에의 초대 소식지 발송

---

- \* 무료 주차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사항**

구분	후원 금액	연회비	법인/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장	500 이상	200	법인/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 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 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 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전시, 아카데미 등은 사전 신청자에 한함.
- \* 일부 공연 및 전시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후원회 가입 익년도부터 별도의 연회비 있음.

(재)부산문화회관



# 플러스 무료 회원

# 2차 가입 캠페인

혜택을 늘리다<sup>+</sup> 감동을 더하다<sup>+</sup>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품격높은 문화도시 부산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플러스회원 가입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온라인 무료회원인 플러스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문자를 통한 공연 알림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공연 정보가 담긴 뉴스레터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회원 가입으로 설렘과 감동의 순간을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과 함께하고 푸짐한 경품도 받으세요.

## 대상

캠페인 기간 중 가입한 회원

## 가입기간

2019년 9월 1일(일) ~ 12월 31일(화)

## 참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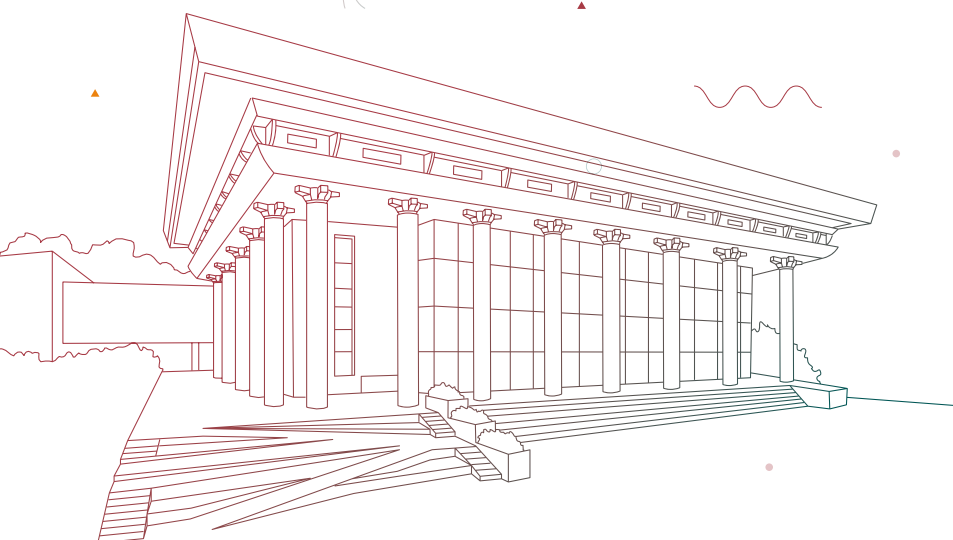
가입 신청서 작성 또는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가입

## 경품내용

선물1	10명	2020 부산문화회관 상반기 공연 초대권(1인2매)
선물2	20명	부산문화회관 VIP회원권 (10만원 상당)
선물3	30명	부산문화회관 스페셜회원권 (5만원 상당)
선물4	50명	부산문화회관 예술단회원권 (3만원 상당)
선물5	100명	부산문화회관 월간지 <예술에의 초대> 1년 구독권
선물6	100명	부산문화회관 텀블러
선물7	100명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5매

## 당첨자 발표

2020년 1월 중, 홈페이지 발표





발 달 리

# 꼬드어

GGO DEUNG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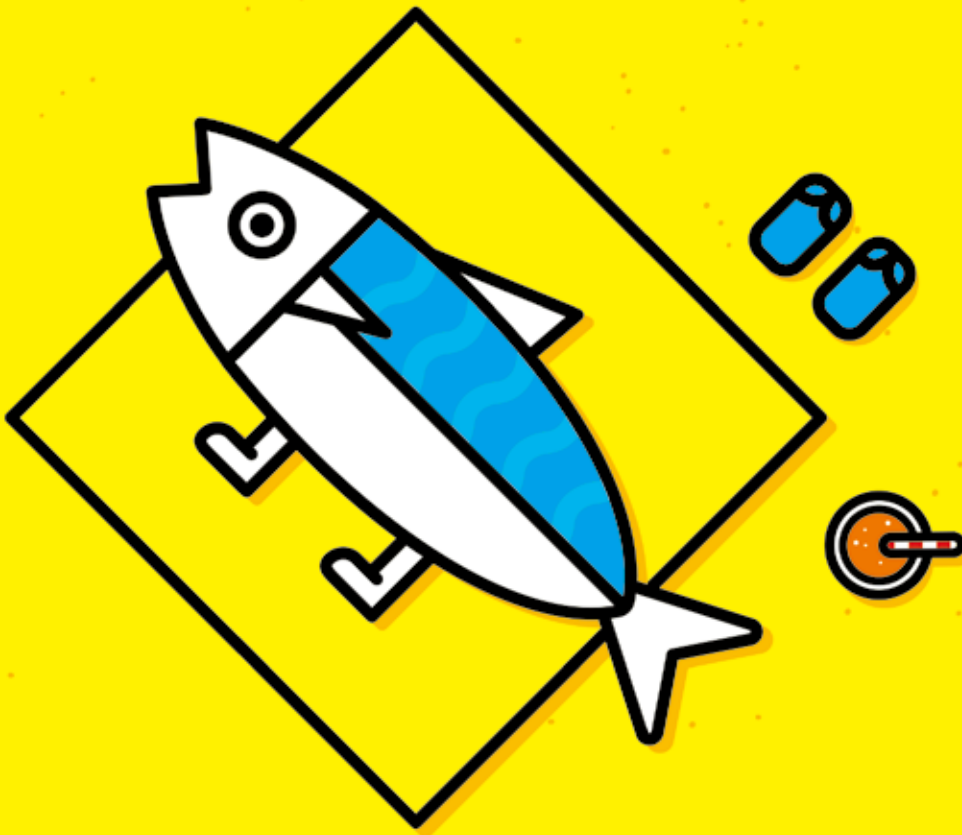


FACEBOOK



INSTAGRAM

## 호기심으로 뚝뚝 뭉친 두 다리로 여행을 즐기는 부산 대표 캐릭터



꼬드어는 부산을 상징하는 시어(市魚), 고등어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www.designivy.com](http://www.designivy.com) [www.designbusan.kr](http://www.designbusan.kr)



디자인부산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65번길 90, 101호 [T]051)636.1216 [E]info@designbusan.kr



# 프렐조카쥬 발레

# 프레스큐화

〈스노우 화이트〉 프렐조카쥬의 프렌치 모던 발레



11.6

Ballet Preljocaj 'La Fresque'

일시 2019.11.6.(수) 7:30pm 주최 부산문화회관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권 R 80,000 S 60,000 A 40,000 won

예매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ARS 1번) 인터파크 1544-1555